

조은수 교수 (불교학연구회장)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 불자들에게 불교의 밝은 미래 달려 있다"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5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98호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친구를 사귈 때에는 이익을 추구말라.
이익을 추구하면 친구 간 의리가 상한다.
순수한 생각으로 오랫동안 교우하라.

'관리·지원' 新 법인법 지원 조항은 어디에

조계종 총무원, 기존 법인법 폐기… 대체입법 추진

말도 탈도 많았던 법인법이 폐기되고 대체 입법된다. 이름도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이라고 바뀐다. 하지만 규제 조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추진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17차 회의에서 총무원이 제출한 법인법 대체입법안인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을 보고받았다.

총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대해 "현 법인법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요건이 안돼 반려해야 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인과 관계된 스님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 제정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많고 종회의원 선거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법인법' 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대체입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이 내놓은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이 이전 법인법과 가장 달라진 것은 법인에 대한 정의와 분류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은 △종단 사찰과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모연해 설립한 법인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해 설립한 법인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을 적용 범위에 뒀다. 다만, 종립학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은 예외로 분류했다. 또한 출연 주체와 형태에 따라 △종단법인 △사찰출연법인 △승려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 법인 △종단 등록 법인 △종단 미등록 법인 등으로 나눴다.

이렇게 법인 분류를 세분화한 것은 이전 법인법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조항 중 하나로 꼽혔던 정관 변경 종단 승인은 법인 명칭, 임원 자격과 선출, 정관 개정 정족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으로 별도의 세부 항을 만들어 이전 법인법과는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새 법인법은 총무원이 관리 일변도의 법 조항에서 탈피해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사실, 지원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조계종 명칭 사용과 신도증 발급, 행정 지원, 종단 행사 참여 등을 명시한 간단한 권리 조항 정도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들은 관리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법인 정의 · 분류는 새롭지만
이사장 선출 당연직 지명 등
규제 요소는 여전히 다분

선학원 완화책 실효성 의문
대각회도 "수용 불가" 주장
25일 종회 임시회서 논의 예정

여전히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예 사찰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임원 조항도 여전히 규제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일선 불교 법인 관계 변호사는 "법인의 대표나 이사장의 선출은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 이라며 "13조(임원 조항) 3항에는 사찰 법인의 대표자를 해당 사찰 주지로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사찰 법인 등의 정관,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하는 것도 법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행정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인 등록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선학원의 새 법인법 수용 여부도 문제이다.

현재 조계종이 내놓은 대체입법안에는 선학원의 경우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며 이 적용을 대체입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원 이사부터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선학원은 법인의 종단 등록을 전제로 한 법인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학원 관계자는 "내놓은 조항이 선학원을 위한 완화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 '법인법에 대한 대화는 없다' 는 이전 입장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밝혔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대각회에도 존재한다. 독립 법인들의 권한을 침하는 요소가 여전히 있다는 게 이유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법인의 사찰 등록을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법인 권한 침해 요소"라며 "대각회는 이미 분원장 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정리한 바 있고, 최근 법인관리법에 대해서도 총무원에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중앙종회 결과를 보고 분원장 회의 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애초 법안을 만들 때부터 각 법인들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 입안했으면 한다"고 종단에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로운 길벗 '행복바라미' 희망합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 바라미' 캠페인이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6월 19~20일 광화문 일대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14년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정만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창일 의원, 장윤석 의원,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주요내빈은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행복바라미 단말기를 시연했다. 〈관련 기사 5면〉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글 천수경 봉정…"의례 대중화 기대"

조계종 19일 조계사 대웅전서 봉정법회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표준 한글 천수경 봉정식' 을 6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을 비롯한 주요 사찰 스님과 포교 · 신도단체가 참석했다. 행사는 △봉정 고불문 낭독 △봉정사 및 법어 △한글천수경 시연 △공로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글 천수경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널리 독송돼 불자들의 신심이 날로 견고해지는 것은 물론 나눔과 보시라는 공감과 소통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봉정사에서 "그동안 주옥같은 의례문이 한문으로 독송되어 한글세대인 현대인들이 듣고 이해하며 가슴으로 동참하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이유로 포교원에서는 1995년 불교의례의 한글화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글 천수경은 의례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앙종회와 종무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조계종과 의례위원회(위원장 인묵)은 한글의례문 〈천수경〉, 한글반야심경과 칠정례를 책과 CD로 제작해 전국 사찰 및 타종단 사찰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포교원장 지원 스님(앞)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6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전에 한글 천수경을 봉정하고 있다.

南北불교 손잡고 만해 스님 추모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서 70주기 공동 다례재

만해 한용운 스님〈사진〉 열반 70주기를 맞아 남북 불교도가 함께 다례재를 개최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과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합동다례재를 봉행하기로 했다. 남측 참석 인원은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례재는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의 결과 성사될 수 있었다. 당시 민추본은 조불련에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봉행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후 팩스로 수차례 의견을 교환해왔다. 회담에서는 이외에도 서산대사비 보존보수사업, 묘향산 보현사 추계제향 등에 관한 내용이 오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합동점등 법회는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조불련은 만해 스님의 항일정신을 높이 사며 행사 필요성에 동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학술토론회 형식이 아닌 공동추모 형식의 다례재를 제안했다. 주제, 범위 등 조율해야할 세부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추본 측은 방북과 관련해 현재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민추본 관계자는 "이번 남북합동다례재는 불교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정신과 사상, 업적과 실천을 남과 북이 함께 조명해보는 의미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불교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남북교류행사가 정례화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998호 INDEX

테마로 가는 사찰 기행 12
호국의 달 기획 연천 광복 통일사

종합 2·3
조계종 선거법 개정 적신호
염불 수행 생활화 주제 포럼
도난 광배가 버젓이 미술관에
문창극 총리 후보에 뿔난 불교계
불교여성광장 위한 바자회

신행 · 복지 6·7
세계 수행지도자 바른 집중을 말하다
불교 구호 NGO 해외서 학교 건립

학술 문화재 8
선학원, 만해 열반 70주년 세미나



“재정확보, 사찰 유휴토지 활용해 해결”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조계종 재정구조 개선위한 연구 발표

“조계종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찰 분담금은 사실상 10년 동안 동결 상태였다. 신도 고령화 등으로 개별 사찰의 재정이 열악해진 탓이다. 종단 재원 확보를 위해 각 사찰의 유휴토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여야 한다.”

조계종 재정 강화를 위해 개별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가섭)는 6월 17일 조계사 안심당에서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계종의 분담금 수입은 10여 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하은지 연구원은 “정률 인상 구조가 아니기에 앞으로도 큰 차이 없이 160억원 규모에 머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이에 대해 수목장 · 휴양림 · 주말농장 · 친환경에너지 개발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목장은 사찰림을 갖춘 주변환경을 활용하고, 소속 신도 및 불자층을 대상하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또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경내 분위기 구성과 자연회귀 같은 불교사상을 펼칠 수 있는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꼽혔다.

국내 수목장 1위당 평균 이용금액은 100만원 선으로 30,000㎡ 부지를 갖추고 초기 1억원을 투자하면 연 평균 50위 기수 분양에 연간 5000만원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양림의 경우에는 생태체험과 청소년 포교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긍정요인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20,0000㎡ 의 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사찰 재정이 영세한 상황에서 역시 사업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 우려됐다. 이밖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업 수익에 등락이 심한 것도 단점으로 나타났다. 예상 수익은 자부담 4억원과 융자액 16억원 등을 초기 투자비용으로 투입하면 연간 4억 2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예상됐다.

주말농장과 캠핑장의 경우 힐링 등의 사회적 요구에 불교계가 발맞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으나 사찰입자의 불리함과 가계소비 감소에 따른 수익 위험이 예상됐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 경쟁이 심화되면 전기 가격이 하락해 수익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됐다. 사찰 측이 보조금 등을 받아 2억 8000만원의 시설설비를 투자하면 연간 5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연구결과에서 사업 전문성의 확보와 이익 보장 등의 일선사찰의 참여요인을 유지해야 종단 수익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가섭 스님은 “이번 연구 결과 그동안의 종단 수익사업은 종단 내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과, 전문경영체제 미비, 일선 사찰의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에 닥친 상황에서 연계망을 구축하자는 의미가 강하다”며 “종단과 전문성을 지닌 외부업체, 일선 사찰 간 연계가 원할히 이뤄진다면 5억 80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종단의 유휴토지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회적 병폐에 종교인이 침묵해서야”

KCRP 여성위 ‘세월호 참사 종교인 역할’ 주제 세미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해온 종교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 여성위원회는 ‘생명존중, 세월호 참사를 통한 교훈과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6월 17일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 원불교 등 이웃 종교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재마 스님은 팽목항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을 토대로 종교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재마 스님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종교 교리에 따라 죽음과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 말하기 보단 슬픔에 동참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올리는 기도로써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체대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병폐에 대해서 종교인이라고 침묵하는 것은 ‘기도 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일 수 있다”며 사회적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범종교적으로 애도주간과 기도주간을 가질 것과 안전 사회를 위한 대안 활동, 유가족들의 치유를 담당할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을 주장했다. 특히 국민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준직선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적신호’

16일 간담회서 종회의장단 · 비구니회 입장 차 보여

비구 · 비구니 스님이 동수로 참여하는 선거인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비구니회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전국비구니회 임원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6월 25일 개최되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법은 1994년 이후 선거 때마다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34대 집행부의 선거 공약인 만큼 여론을 수렴해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준직선제 방안을 골자로 선거법을 개정 발의했다.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부 스님들이 비구와 비구니를 동수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대해 종단 내부의 우려가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좀 더 논의해 차기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구니회 측 스님들은 이번 종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자리에서 비구니회 스님들은 “총무원이 발의한 선거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종도들의 찬성 의견이 많다”면서 “6월 임시종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비구니회가 입장 차가 확연한 만큼 총무원 입법예고안이 198회 임시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로 종회 소집이 어려워 사실상 선거법 개정안 차기 종회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17일 총무원장 선거를 준직선제로 확대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종회의



6월 17일 종헌개정특위 제17차 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법 등 종헌종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됐다.

의장단 “개정안 우려 많아”
비구니회 “원안 처리해야”
실천승가회도 法개정 촉구

결단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선거가 시행되면 약 6000여 명의 스님에 의해 종단의 수장이 선출돼 총무원장의 대표성과 정당성 등이 한층 더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비구니 스님이 동등하게 포함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종단 일각의 의견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남녀평등은 이미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어떤 선거에서도 성별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승가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종도들의 참정권과 민주적인 종단운영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중덕(정덕)이상의 승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 선출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임을 위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기간동안 그 지위가 상실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을 축소해 공식선거운동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들은 오는 6월 25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98차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염불’ 만으로도 ‘힐링’이 가능하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기포럼서 염불 생활화·현대적 적용 논의

현대인 스트레스 극복 가능 ‘낭독 독서’로도 효과 입증

염불 수행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힐링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차 교육아사리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주요 발제로 나선 교육아사리 정운 스님은 ‘낭독 독서’와 염불과의 비교를 통해 염불이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정운 스님은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소에는 학생 두 명을 선정해 한 명에게는 ‘낭독 독서’를, 다른 한 명에게는 스마트폰 게임을 시키고 뇌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낭독 독서’를 한 학생에게는 안정적인 알파파가 나왔으나 스마트폰 게임을 한 학생에게서는 불안정한 뇌파가 측정됐다.

또한 낭독을 실시할 경우 기억력 20%로 증가되며 뇌가 평소보다 활발하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6월 20일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제7차 교육아사리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정운 스님은 “소리 내어 읽는 독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계속 소리 내어 읽는 염불 역시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아사리 법상 스님(포교연구실장)도 염불수행을 통한 현대인의 포교방안에 주목했다. 스님은 염불을 ‘안심입명(安心立命)’의 포교방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포교 콘텐츠로서의 염불 수행을 제안했다.

법상 스님은 “21세기 의례문화의 콘텐츠로 염불을 통한 포교는 구태의 산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일의 콘텐츠”라면서 “염불수행포교를 위해서 염불당의 설립과 수행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의례원장 인묵 스님이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과 이성운 조계종 의례실무위원 ‘생활 속에 활용하는 염불’ 등의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 선묵 혜자 스님

초심호계원, 18일 선출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에 서울 도안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초심호계원은 6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13차 심판부를 열어 세영 스님의 총무원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장에 선묵 혜자 스님을 호선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청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6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총무원 문화부장, 사서실장, 소청심사위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도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이와 더불어 직무비위로 징계에 회부된 성관 스님(해인사)에 대해 제적, 공금 전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내장사 주지 지선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판결했다. 또 중앙징계위원회가 직무정지를 결정해 공권정지 5년의 징계에 회부된 전 임휴사 주지 보정스님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사퇴 권고문

기독교 신앙으로 역사가 왜곡되고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왜곡된 역사관과 국혼을 어지럽히는 망령된 과거의 언행과, 그의 기독교 신앙으로 편협된 인성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기에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 할 수 없고 또 이에 동조하는 유일 신성론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무리들을 좌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호국 불교 화쟁교단의 납자로 수많은 호국 선열과 이민족의 숭고한 선구자의 영령앞에 눈물로 참회하오며, 차제에 억조창생의 민초 앞에 문창극 총리 후보를 석고대죄하게 함으로써, 아직도 이 시대에 잔재하고 있는 문총리 후보자와 같이 식민 매국사관과 친일 매국사관을 공유하고 있는 식자층을 발본 색원하여 더 이상 종교나 이념으로 국혼이 혼란되고 국기가 문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이 행동하여햐 할 때 입니다.

우리 민족의 혼에는 안파견 단군을 위시하여 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인간의 위약함을 지켜온 많은 사상과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기독교, 무교등 많은 종교 의식이 함축되어 한민족이 공존하여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 신성 사상으로 인격이 형성된 문 후보자와 같은 식민 사관이야 말로 자기 지성에 도취된 무지한 아집의 인격자일 뿐입니다. 얼마나 더 국민을 실망하고 분노케 할 것인가? 신성은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일 뿐이며, 유일 신성의 사상으로 신성한 국혼을 문란케 하는 종교적 포장이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여야 할 종교적 역사관입니다. 신성한 국혼은 찬연히 우리의 역사를 지켜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국가재건에 초 종교적 열성을 다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모든 사회 구조를 수평화 시켰습니다. 내가 대통이요, 대통령이 또한 나 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뜻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의지인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평화된 사회구조를 지탱해줄 윤리를 빨리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코 호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집에서 벗어나고 문총리 후보는 조속히 사퇴하기 바랍니다.

2014. 6. 1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사)화쟁교단 분황종 총재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현블

"철새타령 그만, 대량 살처분 중단"

AI공동대책위, 17일 성명

조계종 사회부와 동물보호연대 등이 함께 구성한 조류독감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I 바이러스 전파를 촉진시키는 현 축산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는 "1천3백만 마리라는 사상 최대의 가금류 수를 살처분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해도 AI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AI 원인으로 철새주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철새 이동시기 분석과 AI 발생시기상 오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 방역에 의미없는 비용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을 질타했다.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는 현재까지 최장 기간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대책위는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되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거기서 비롯되는 병원체들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공장식 축산시스템 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책위는 국회에 관련 입법 및 청원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닭 가공업체 앞에서의 시위도 계획 중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무료로 즐기세요

7월 4일까지 이벤트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개시한다.

가장 먼저 올 여름 가족들이 함께 하면 좋을 '퍼져라 행복씨앗'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아아, 생생, 여여, 당당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13개 사찰에서는 2주간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무료 템플스테이는 오는 7월 4일까지 템플스테이 신청을 한 개인 참가자(4인 이하)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13개 사찰별 108명씩, 총 1,404명만이 템플스테이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행복여행수첩'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각 사찰별 선착순 500명까지 가능하며 수첩의 수량이 소진될 시 자동 종료된다.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만 제공되는 '행복여행수첩' 은 별도의 이벤트 응모가 가능한 스티커북이 동봉돼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사라진 광배가 버젓이 미술관에

"봉화 오전리 불상 광배
호암미술관 야외에 전시"
김태형 · 황평우 등 주장
6.25 전쟁 후 도난 추정

호암 미술관 반박
"사진 광배와 전혀 달라"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자료의 오전리 불상 및 광배(사진 왼쪽)와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광배(사진 오른쪽)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관장 홍라희)이 경북 봉화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암미술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태형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6월 16일 "경북 봉화군 오전리에 있었던 9세기 석조 광배가 용인 호암미술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돼 있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배는 불상의 뒤편에 자리하는 장식이다. 오전리 석조 광배는 높이 195㎝로 통일신라 석조 광배로는 대형이다. 현재 오전리에는 광배는 없어진 채 경북도 유형문화재 154호인 '석불 좌상' 의 몸통만 남아 있다.

황평우 소장은 "경북 봉화군 오전리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154호 석불 좌상' 옆 바닥에 있던 것"이라며 "일제시대 사진을 보면 이 광배가 '석불 좌상' 과 나란히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학예사와 황평우 소장이 공개한 사진은 일제시대 수덕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 장안사 사성전 등의 수리공사를 감독한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 1882~1950)가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1994년 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자료〉에도 '부석사 석불좌상/경북 영풍/통일신라(9세기)/07021-97' 에 실려 있다.

김 학예사와 황 소장은 "현지 주민들을 탐문한 결과 광배는 '석불 좌상' 불두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단으로 반출된 광배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학예사와 황 소장은 "문양과 크기, 양식 등을 비교하면 두 광배는 동일하다"며 "미술관 측의 불두 소장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암미술관 측은 소장 광배는 사진의 광배와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호암미술관 관계자들은 "사진 속 광배의 두광은 타원형인데 호암미술관 광배는 완전한 원형이며 사진 속 광배는 하단 오른쪽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데 호암미술관 광배는 파손 부위나 수리한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006년에는 현등사와 조계종이 리움미술관이 소장 중인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 에 대해 도난문화재임을 들어 반환 요청을 해 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리움은 선의취득 조항으로 승소했으나 불교계의 반발에 되돌려 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무개념 총리 후보에 불교계 뿔났다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 단체 등 잇달아 기자회견…"지명 철회하라"

'위안부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불교계 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은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했다.

중앙종회 의장단은 "문창극 후보자는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역사의식이 부재하며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 반민족적 식민사관에 매몰돼 있다"며 "문 후보자 발언을 접한 많은 국민이 100년 전 을사늑약과 국권침탈을 주도했던 친일매국노 이완용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발언을 동의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취임식에서 온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6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리 후보의 지명 철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운영을 요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조계사 일주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또다시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공직자들의 지명을 철회할 것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개혁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해 정의평화불교연대,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민주주의 불자회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거부하는 문 후보자의 편향된 사고구조를 규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 및 포교 단체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역사관과 반국민적 정서를 가진 문 총리 후보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16일 청와대 불자회장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송광용 신임 교육문화수석, 모철민 前 교육문화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잘 읽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 정혜숙 · 이나은 기자**

〈관련기사 31면〉

선묘·채색 구분 허문 조선 희귀불화 발견

정우택 관장, 日미술관서… 16세기 말 민간 제작 추정

일본 네즈 미술관에서 발견된 지장보살설법 18지옥도. 지장보살이 표현된 상단은 선묘, 지옥이 묘사된 하단은 채색 기법으로 그려졌다.

일본 도쿄에서 조선 전기 희귀 불화가 발견됐다. 이 불화 그동안 불화를 구현한 묘법의 구분을 허문 작품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네즈(根津)미술관에서 이 불화를 확인한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지장보살설법, 18지옥도' " 라며 "선묘와 채색을 한 화면에 동시에 구현해 채색불화와 선묘불화의 묘법 구분을 허문 것으로 일본과 중국 불화에서도 전무한 사례다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 관장은 "교토 지온인(知恩院) 사찰에 1575~77년 제작된 같은 도상의 조선 불화가 소장돼 있다"며 "백토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죽은 백성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민간에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관장은 또 "이번 불화의 발견으로 그동안 막연히 중국불화로 추정돼 온 오사카 다이후쿠지(大福寺) '지장보살설법, 18지옥도' 도 조선불화로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네즈(根津)미술관에서 발견된 16세기말 조선 불화.

1596년 제작된 오사카 다이후쿠지(大福寺) '지장보살설법, 18지옥도' 는 보살들의 형상과 표현법이 조선불화의 양식을 띄고 있음에도 채색에서 연둣빛이 강한 색감의 차이로 '명나라 혹은 조선 불화로 추정된다' 며 판단이 미뤄져 왔다.

한편, 이번 불화는 네즈 미술관이 불화 특별전 준비 차 수장고를 정리하다 발견했다. 정 관장은 6월 21일 동악미술사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이 불화를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2020년 불교여성광장 건립 발원

불교여성개발원, 13일 자비나눔행사… 전원주 홍보대사 위촉

불교계를 대표하는 여성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이 6월 13일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마음 모아 함께' 를 주제로 연 이번 바자회에서는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성철 스님의 서화와 백남준, 천경자 작가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선재스님이 후원한 연잎밥 등 먹거리마당과 기증품 판매가 진행됐다.

정경연 원장은 입재식에서 "2011년 불교여성광장 건립 발원 이후 마음을 모아 현재 교육관을 마련했다"며 "2020년까지 108억원을 모연해 여성불자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날 제3차 여성불자 108인회 회원인 탤런트 전원주 씨를 불교여성개발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서울 조계사 인근에 건평 1천평의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발원, 2011년 8월 입재식을 갖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108억원 기금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후원자 1만명을 모집해 1인당 108만원 씩 3년간 후원하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 539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약 9억 3천여만원을 모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은 6월 13일 제3차 여성불자 108인회 회원인 탤런트 전원주 씨를 불교여성개발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보련기획 BORYE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일 주 문



인드라망 골목장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6월 24일 도량 앞 골목에 귀농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인드라망 골목장터'를 연다.



제41기 단기출가학교 입학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1일 월정사 문수선원에서 제41기 단기출가학교 입학식을 연다.



동화사 세월호 피해지원 성금 기부

대구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6월 19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태고종 사이버전법단 모집

태고종 홍보부장 혜철 스님은 7월 15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종단 소식을 전하는 사이버전법단을 모집한다. (02)739-3450



한국경제 움직이는 CEO 선정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6월 17일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으로 시상하는 '2014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인재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자연 개원 8주년 후원행사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6월 20일 장충동 우리함께회관에서 개원 8주년 기념 임시총회와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승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월 19일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당선인사차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해 결국 역전승했다"면서 "원만한 교육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교계의 축원으로 당선됐다.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기획실장 일감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기획국장 남전 스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기록문화 연구에 새 장 열겠다"

이지범 신임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소장은 연구보다는 연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링커(Linker, 연결자)' 이죠.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새로운 20년을 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하는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신임 소장〈사진〉은 취임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 소장은 최근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회에서 인준을 거쳐 소장으로 임명됐다. 2009년 연구소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 5년여 간을 살뜰히 살림살이를 맡아왔다. 그만큼 연구소에 가지는 애착과 이사장 종림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한 열정은 남다르다.

"지난 20년 동안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 전산화 불사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담아내는 새로운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 소장이 주목하는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은 근현대 불교문화이다. 이 소장은 근현대 선지식과 재가법사의 구술 증언 채록, 자료 수집 등 관련 기록문화를 집대성하는 연구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
〈교장〉 전산화 지속 추진
근현대 선지식 · 재가법사 등
구술 · 기록 수집 사업 계획
재정 마련 방안도 고민 중

또한 초조 · 재조 대장경과 의천 스님의 〈교장〉까지 이어지는 대장경 전산화 불사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경 전산화 불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 〈속장경〉으로 알려진 의천 스님의 〈교장〉의 전산화가 마무리돼야 이 불사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새 기록문화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기존의 콘텐츠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 운영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기초 체력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방안 중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지정 도량인 서울 흑석동 달마사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한, 대장경 교육 교재 보급도 수익 창출 방안 중 하나다.

"대장경은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재가 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소 재원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까지 진행되는 달마사의 불사가 완료되면 연구소 자료기록관과 전시실 등을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대장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재 등을 제작해 보급할 것입니다."

이 소장은 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이 계획하고 있는 '대장경 학회' 설립과 '불교와 인지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히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대장경 학회는 종림 스님이 발원한 대장경 전사화 불사의 회향점입니다. 스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지과학과 불교와의 연계 연구도 향후 연구소의 지향점입니다. 연구소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은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신성민 기자**

필리핀 재해복구 컴퓨터 40대 전달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18일 국제평화지원단에 컴퓨터 40대를 전달했다. 이 컴퓨터는 수해복구 지역 관공서와 피해 초등학교에 전해진다.

정우 스님은 4월 7~9일 필리핀 아라우부대(부대장 이철원 대령)를 방문해 모금한 37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컴퓨터 지원은 아라우부대가 관공서 건물 복구활동을 마무리하며 요청한 것으로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법문화재단에서 1000만원, 군종교구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법당에서 필리핀 파병장병 아라우부대 2진 환송법회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학생들 정서능력 함양시키기 주력"

권진영 교법사 〈아힘사〉 워크북 펴내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는 때 청소년들에게 불교로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권진영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교법사〈사진〉는 최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담은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 워크북 〈아힘사〉를 펴냈다.

권 교법사는 "3년 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보면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야겠다고 발심하고 연구를 시작해 이번에 워크북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권 교법사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정서적 역량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타인이 어떤 감정으로 나를 대하는지 모르게 되고, 그 결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교법사는 학교나 사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힘사(비폭력, 불상해) 워크숍을 운영해 학교 폭력의 이해와 해결을 자기주도학습의 원리에 의해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교법사는 "불교 수행의 근본원리인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면 정서지능을 함양할 수 있다"며 "타인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으로 자신을 잘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 즉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음미해 배우고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충주 흥천사 세월호 희생자 위령제



충주 흥천사(주지 동봉)는 6월 14일 대웅전서 '세월호 및 부산외대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 희생자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위령제에서 주지 동봉 스님은 "세월호 및 부산외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위령제를 마련했다"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슬픔과 미움을 털어내고 그 빈자리에 희망과 자비심이 채워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TX법우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케이티엑스(KTX) 기관사법우회(회장 강원구)는 6월 19일 서울 동자동 케이티엑스사업소 강당에서 '케이티엑스(KTX)기관사법우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을 법사로, 진관사 총무 법해 스님을 비롯한 KTX 임직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정년퇴직한 이백원 기관사에게 공로패를, 김경훈 기관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정중종, '우리말 불교 성전' 봉정



정중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이 6월 19일 열린 법회에서 〈우리말 불교 성전〉을 봉정하고 있다.

(사)불교 정중종(총무원장 법만)은 6월 18일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종단 소의경전인 〈우리말 불교 성전〉 봉정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정중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은 "진리의 말씀을 간추려 한 권의 성전으로 편찬했다"면서 "세존이 설하신 법을 수지하고 이를 올바르게 지니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고 말했다.

정중종의 소의 경전 〈우리말 불교 성전〉은 준비 기간 3년, 제작 기간 1년이 소요된 불사로 한역아함경과 니까야 역서를 대조해 어려운 한문을 한글로 번역했고, 혼동되는 불교용어를 통일화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 행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위령제

승단의 화합과 더불어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의 걸림과 편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여 완전한 일체가 되어 서로 융화하며 장애가 되지 않는 원융무애 사상을 근본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 총 연합 진흥회**에서는 2014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제3회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합동위령제**를 봉행합니다.

일 시 | 2558(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1부 - 현충문 참배(군악대, 의장대 동참)
제2부 - 현충관 위령제(집전 : 혜일스님 외)
제3부 - 영산제

봉행위원

■ 대법주(총재) : 영산당 일공 대화상
■ 부 총 재 : 고명 대종사, 법혜 대종사
■ 대 회 장 : 석연화
■ 부 대 회 장 : 도선, 효진, 은곡, 법성, 월암, 김현호, 신진우, 황명철, 최기용
■ 봉행위원장 : 법 붕
■ 봉행위 부위원장 : 원덕, 소운, 이승완
■ 집행위원장 : 혜 월
■ 제전위원장 : 혜 일
■ 홍보위원장 : 최 명화
■ 준비위원장 : 윤태길
■ 의 전 : 무영, 지성
■ 봉 행 위 원 : 운암, 혜승, 현덕, 체의, 도현, 약산, 경천, 반야, 청화, 관연, 이영일, 이강우, 공명, 혜암, 혜명, 혜인, 세화, 장윤희, 장연화, 오승란, 양혜영, 전혜현, 채연서, 오윤지, 김덕기, 이순이, 서순관, 김도영, 이재복, 김원희, 허형택, 민미홍, 김금숙, 김현수, 엄경애, 김호준
■ 후 원 : 국방부, 국립 현충원, 나라사랑국민연합, 불교TV BTN, BBS, 현대불교, 월남참전전우회, 전국의용 소방연합회, 자유수호 참전동지회, 지구환경운동본부, 독도수호 국민연합, 세계예술교류협회, 한국민속예술연구원, 국제동방풍수문화연합회, 월간 禪으로가는길

* 나라를 위하는 숭고한 동행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오며 함께 하실 법하를 초청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4-23호 전화 : 02)857-2250 팩스 : 033)766-2557 / 02)853-0533 회장(석연화) 011-285-6800 봉행위원장(법붕) 010-6294-3900 사무국장(혜광) 010-4813-6800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정만 스님,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창일 의원, 장윤석 의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주요 내빈이 행복바라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점등했다.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공상정, 조해리 선수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1천여 관중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노란손수건을 흔들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 바람, 나눔문화 훈풍 전국서 부네

날마다 좋은날, 6월 19일 광화문광장서 선포식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길벗, 전통문화와 나눔문화로 어우러진, 2014 대한민국 문화대축전의 출발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 바라미'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6월 19~20일 광화문 일대에서 '2014년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행사를 열었다.

19일 첫날은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 전시가 광화문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발걸음을 했다. 오후에는 국군 의장대 퍼레이드 및 니르바나오케스트라 공연과 난타공연 등 많은 볼거리를 선보여 퇴근길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반야심경 인경 체험과 연등 만들기 등의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북청사자놀이 등 전통문화 공연이 마련됐다.

지난 해 이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한 행복바라미는 그동안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인기배우 등 유명스타들이 홍보대사로 대거 참여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공상정, 조해리 선수를 비롯해 전국가대표 수영감독 노민상 교수와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수영 금메달리스트 정다래가 참여해 팬사인회를 가졌다.

이어 북측광장 특설무대에서 행복바라미 알림식이 거행됐다. 행사에는 표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정만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창일 의원, 장윤석 의원,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내외빈과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신용카드로 기부를 하는 행복바라미 단말기를 시연한 뒤, 행복바라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점등했다.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자승 스님을 대신해 치사를 낭독했다. 정만 스님은 "세상의 변화는 작은 몸짓과 발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장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이들의 좋은 길벗이 되겠다는 '행복 바라미' 캠페인의 취지를 격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조계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어주는 등 여러 가지 국가적 슬픔에 불교계가 치유와 위로의 등불이 되주고 있다"며 "서울시도 불교계와 힘을 합쳐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 조성사업,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교계와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많은 일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 이번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흥 행복바라미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틔우기 위해 행복바라미라는 이름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대한민국의 압축성장 이면에 많은 사회구조의 모순과 각종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행복바라미의 자비와 참여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해 우리모두가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원한다"며 "2년차 출발을 선포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축시 '나누는 손바닥'을 함께 낭독하고 행복바라미 로고송을 불렀다. 또한 저녁 8시부터는 승무 · 바라춤 · 난타 · 인디밴드의 축하공연이 선보이고, 밤 9시부터는 애니메이션 '붓다'가 야외 상영됐다.

퍼레이드 · 전통문화체험 등 행사 다채
사부대중 1천여명 참여해 즐거운 시간
7월 5일까지 16개 市 108 모금 캠페인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한편 행복바라미는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108곳에서 나눔문화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이 기간 동안 행복바라미는 △수원 팔달구 지동교(6월 22일)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6월 28일) △광주역 광장(6월 29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7월 5일) △부산 광복로 패션거리(7월 6일) 등 지방랜드마크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모연된 금액은 무의탁 노인과 청소년, 빈곤 이주민 등 사회복지망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기흥 날마다 좋은날 이사장은 "행복바라미 모금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우리사회의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들에게 쓰여지는 캠페인"이라며 "각 모금기관마다 배분위원회를 두고 기관, 단체별로 수혜 대상자들을 추천 받아 중앙신도회에서 승인하면 모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 사업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나누는 손바닥

청화 스님(조계종 前교육원장)

물이 마른 개울 바닥 같이/ 돌들만 앙상한 세상이 되어서야 쓰겠는가./ 사람이어늘/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살을 가진 사람이어늘/ 불빛이 꺼져가는 가난한 얼굴들을/ 어찌 먼 산 같이 바라만 보고 살아야하리./ 처마 밑 다리 부러진 제비 새끼도/ 살뜰이 손보아 살려준 흥부 같은/ 타고 난 마음씨는 어찌하고/ 타고 난 그 마음씨는 어찌하고./ 이름하여 행복바라미는/여기저기 행복을 바라는 영혼들의 소리에/ 두 귀를 세우고 일어난 몸/ 바람을 불러 나직이 외친다./ 흰 접시에 높이 받드는 꿀떡/문 닫고 혼자만 먹는 그 입에는 끝내 가시가 돋아 피를 흘리지만./ 여럿에게 나누는 손바닥 위에는/ 아, 나누어 넓어진 그 손바닥 위에는/ 점점 보석이 쌓여 빛나는 것이라고,/ 그러니 혼자서 다만 혼자서/어둔 돌밭에 행복을 찾는 발길은/여기 와 나누는 길 함께 가자고,/ 그래, 이 소식 온 천지에 전해/행복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나뭇잎처럼 풀잎처럼 흔들어 달라고.



국군 의장대 퍼레이드가 시연되고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버나를 돌리고 있다.



평일임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대자대비의 그늘을 드리우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주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을 이루는 영험한 기도도량 – 현지사 서울분원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10만독으로 소원을 성취하다

2012년에는 아들딸이 좋은 배필 만나기를 발원하면서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10만독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 10만독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만독을 다 마치고 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귀가하다가 차가 터널 벽을 들이박아 두 바퀴를 돌아버린 대형 전복사고가 났는데 지금 용인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SM5 승용차는 종이짝처럼 구겨져 폐차했습니다만 아들은 기적처럼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원했던 바대로 아들 딸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배필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며느리가 될 새색시가 뜻밖에도 좋은 집을 마련해왔습니다. 딸도 인턴 수련의와 곧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 걱정을 놓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이야기 ①' 중에서 – 경기도 안양시 최안나

관세음보살님 기도 및 공부법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3,5,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서울분원 관음재일 안내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안내 ; 음력 1일, 15일, 23일,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혜민병원 뒤) 02-453-5953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
7월 6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8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템플스테이로 희망 전해요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 법륜사 '드림콘서트' 개최

세월호 침몰 참사로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김제 금산사와 용인 법륜사는 6월 28일과 7월 5일 각각 '내비둬 콘서트' '드림콘서트' 라는 이름의 치유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6월 28일 열리는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는 가야금 싱어송 라이터 정민아 씨가, 7월5일 법륜사 드림콘서트에는 소리의 고장 전북을 대표하는 젊은 소리꾼 이용선 씨가 참여한다. 사회는 일감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 맡는다.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은 "미안해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토닥여주고 희망을 속삭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책임감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내비둬 콘서트는 일감스님이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나의 삶을 템플스테이 여행에서 만큼은 놔두어보자'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간 김용택(시인), 안도현(시인), 김병만(개그맨), 김남훈(프로레슬러), 서천석(의사), 임동창(피아니스트) 씨 등이 게스트로 초청됐으며 이번이 30번째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063-542-0048), 용인 법륜사 템플스테이 (010-6766-870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패 떠나 최선 다하니 모두가 '한마음'

원주불교축구단 6월 6일 친선축구대회

불교계 축구팀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불교축구단과 FC승가원,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치악실버축구단은 6월 6일 합천해인사 체력단련장에서 '친선축구대회 한마당'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불교축구단 지도법사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을 비롯해 축구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각 축구팀들은 이날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기정 원주불교축구단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현각 스님과 해인사 학장 스님의 기획으로 친선경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FC승가원 선수들이 이번 행사를 좋아해 오는 7월에 원주불교축구단이



원주불교축구단과 FC승가원,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치악실버축구단은 6월 6일 합천해인사 체력단련장에서 '친선축구대회 한마당' 을 개최했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또한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인 치악실버축구단은 스님과 함께 한 축구게임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등 모두 즐거워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수원 효문화원, 효행교육지도사 과정 개설

6월 26일 수원 효문화원 교육관서 개강

사단법인 수원효문화원(이사장 진철희)은 '제1기 효행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효행교육지도사 강좌' 개강식은 6월 26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효문화원 교육관에서 열리며, 강좌는 3개월간 매주1회 5시간 강좌로 마련된다.

강의 내용은 한국의 전통적 효행사상과 문화 및 레크레이션을 활용한 효 강의법 등으로 효전문 교수 및 전통예절원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수원효문화원은 "효행장려법 제8610호 및 수원시 효행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생활에서 급격하게 희석되고 망각돼가고 있는 효예 사상과 행동규범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고자 양성과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철희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인성함양과 도덕성 회복, 선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의식과 언행 등을 교육하는 효예교육 지도의 첨병인 '효행교육지도사' 양성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031)245-0088

이나은 기자

법사 스님 국적 달라도 '바른집중' 몰입 OK

보리수선원, 국제 심포지엄 '바른 집중을 말하다' 성료

한국과 중국, 미얀마와 티베트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정체험을 나누고 직접 수행을 실참하는 수행의 장이 열렸다.

(사)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따)은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부산, 합천, 광주 지역에서 '국제 심포지엄 및 체험 행사-바른 집중을 말하다' 를 개최했다.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가별 바른집중 지도 및 실제 체험' 에는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미얀마), 겐뒨샤꺄 스님(티베트), 밍셴 스님(중국), 원담 스님(한국)이 참여해 수행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

이날 다목적홀에 모인 500여 참가자들은 각국의 스님들이 전하는 법문과 수행법을 들으며 '바른집중' 수행에 동참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이 과거, 미래를 쫓기 때문입니다. 미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좌선만 생각하고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중국 불교 5개 법맥을 이은 밍셴 스님이 사념처 수행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밍셴 스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수행삼매경에 빠졌다.

이후 4개월 만에 아라한 경지에 오른 순룬 사야도의 제자 우 순다라 삼장법사의 순룬 수행법 지도가 이어졌다.

순다라 스님은 12세에 출가해 25세에 순룬 수행처를 총괄했다. 또 수행경험을 삼장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23년간 문밖출입을 단절하고 48세에 성경의 11배인 경장, 율장, 논장을 빨리어로 완전히 외우고, 쓰고 이해하는 삼장법사에 올랐다.



(사)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따)은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부산, 합천, 광주 지역에서 '국제 심포지엄 및 체험 행사-바른 집중을 말하다' 를 개최했다.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가별 바른집중 지도 및 실제 체험' 에는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미얀마), 겐뒨샤꺄 스님(티베트), 밍셴 스님(중국), 원담 스님(한국)이 참여해 수행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

6월 11~22일 서울 부산 광주서 개최
미얀마, 티베트, 중국 법사 스님 지도
1천여명 참가해 '명상 몰입'
"내년엔 '지혜' 주제로 열 것"

이날 순다라 스님이 지도한 순룬 수행법은 강한 호흡을 통해 졸음과 산만한 마음을 극복하고, 곧 바로 호흡이 부딪히는 감각과 강한 호흡으로 일어나는 몸의 통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의 네 가지 마음챙김의 대상을 관찰하는 점은 마하시 수행법과 유사하지만, 현상들에 대한 명칭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각을 관찰하면서 위빠사나 지혜를 빠르게 향상시켜나가는 수행법이다.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집중을 위한 45분 정도의 강한 호흡(초보자는 1분에 60회 정도, 숙달자는 100에서 200회 정도)과 45분에서 1시간 정도의 몸의 감각(강한 감각으로 주로 통증)을 관찰하는 위빠사나 수행을 하도록 참가자들을 이끌었다.

이날 밍셴 스님, 순다라 스님 외에도 티베트의 겐뒨샤꺄 스님과 진주 도과선원장 원담 스님의 지도 강연도 펼쳐졌다. 겐뒨샤꺄 스님은 불교학 최고 지위인 게셰 하람파를 취득했으며, 간덴 사원 교수로 임명돼 논리학과 반야, 중관학 등을 강의해 왔다. 겐뒨샤꺄 스님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무상함과 보리심, 무아에 대한 명상 수행법을 이끌다.

이밖에 25안거를 성만한 진주 도과선원 선원장 원담 스님이 '바른 집중' 을 주제로 명강연을 펼쳤다.

끝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윤회와 탐욕, 아만,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게 된 참석자들은 삶의 현명한 지혜를 얻었다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차애영 씨는 "살아가면서 바른집중을 하는 것이 힘든데 각국 스님들의 법문이 한결같이 좋은 내용이라 늦은 나이지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여성 참가자는 "여러 나라의 스님들을 모시고 바른 집중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으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보리수선원은 11일부터 15일까지 부산, 합천, 광주 등에서 국제명상 심포지엄 '온전한 행복과 평화로 살아갑니다' 을 개최했다. 종교나 연령, 남녀노소를 떠나 바른 집중과 명상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시청과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법석을 마련했다. 반응은 예상만큼 뜨거웠다. 그래서 6월 16~22일 과천 보리수선원에서 개최하려던 '삼장법사의 특별집중수행' 을 충남 금산의 마달피 수련원에서 열고,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이 법문을 통해 아비담마에 근거한 수행법을 가르치고 개인지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모두 자율보시 형태로 마련됐다. 모든 사람이 괴로움과 무지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복과 평화로 살아가길 바라는 뜻에서다.

이에 보리수선원장 붓다락키따 스님은 매해 주제를 바꿔 지속적으로 집중명상 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님은 "내년에는 지혜, 그 다음에는 열반 등을 주제로 세계적인 수행자들을 초청해 심포지엄과 수행체험을 이어 여러분의 불성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껍질을 벗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공무원 불자 앞장서 모범 보이자"

공불련, 6월 14~15일 수덕사서 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6월 14~15일 예산 수덕사에서 '제23차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공불련 회원 및 가족 400여 명이 동참했다.

공불련 회원들은 14일 첫날 황하루에서 입재식을 가졌다.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입재식 인사말씀에서 "조고각하(照顧脚下) 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습 그리고 보다 더 자주 모여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그대로 실천하며 회향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되시리라 확신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공불련을 위해 항시 축원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저를 비롯한 우리 공불련 회원들은 공직자로서 각자 각자가 맡고 있는 소임을 제대로 해왔는지,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 뼈아프게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불자들이 앞장서서 우리사회의 부족하고 미흡한 안전시스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고, 일상에서는 우리 불자들이 실천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자"고 당부했다.

이후 공불련 회원들은 황하루에서 진행된 수행정진시간에는 108배 및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정근을 했다. 이어 진행된 임원단회의에서는 가을 창립기념법회 등 공불련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6월 14~15일 예산 수덕사에서 '제23차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15일 새벽예불 후 산문에서 금강보탑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이어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계사로 5계를 받은 뒤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살고자 하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불자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불퇴전의 정진력으로 어두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하며 수계법회를 마무리 했다. **이나은 기자**

心 靈 治 療 (심령치료)

당신은 심령치료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노우"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석학이신 이희승 박사 편저 국어대사전에 심령법에 관해 해설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학 · 심령현상 · 심령술**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요법은 **비종교** 행위입니다.
그럼 심령치료에 대하여 설명해 보면 미국과 영국, 소련 등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미국에는 심령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매우 뒤져 있을 뿐 그나마 일본에서는 "일본심령과학협회"라는 간판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령치료의 종류

① 재령에 의한 방법
② 인연 해제에 의한 방법
③ 영계 의사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심령치료에는 접촉치료와 손바닥 치료가 있고 저마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약이나 물리적 치료 등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심령학 · 심령술 · 심령현상 등 복잡한 내용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심령요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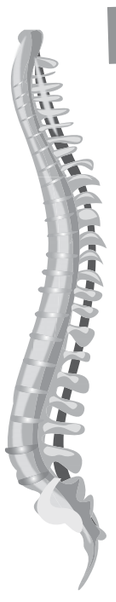
심령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원에 오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의학 등 방법으로 못 고치는 분은 심령치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2 ~ 3일 이면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많은 환자를 심령요법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 2동 602-4호 **靑 岩 禪 院** **전화 02)992-8624**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 · 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자리이타’ 가난한 나라에 학교 설립 이어져

지구촌공생회

정혜사 후원, 올해 초중등학교 기공

천호월서희망재단

미얀마에 3개 학교 세울 예정

아름다운동행

태풍 피해 필리핀 초등학교 복구



전주 정혜사에서 후원한 미얀마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8개 국가에 지원한 47개 시설 중 최대 규모다. 사진은 지난 1월 지구촌공생회가 완공한 라오스 논킬렉 불국 초등학교 교사 앞에서 월주 스님 등과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천호재단이 학교를 세울 미얀마 쉐띳지역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



아름다운동행이 6월 17일 필리핀 팔로시에 완공한 파윙초등학교

교계 단체들이 앞다퉈 빈곤국에 학교를 세우고 있다.

‘세계를 껴안는 자비실천’ 이라는 목표로 활동하는 대표적 국제개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지난 6월 10일 미얀마 양곤시 외곽 사우스다곤 타운쉽에서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상 2층 총 12칸으로 건립될 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8개 국가에 지원한 47개 시설 중 최대 규모다. 대한불교보문종 전주 정혜사에서 학교 건립기금 1억5천만원을 후원한 덕분이다.

지구촌공생회측에 따르면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공립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불교사원들이 사원학교를 설립해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잦은 행사와 장례의식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학교가 건립될 더포아 사원학교 역시 환경이 열악하다. 대나무 기둥과 나뭇잎 지붕에 벽대신 천을 두른 옹색한 공간에서 21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비라도 내리면 상황은 더 악화돼 쏟아지는 빗물에 수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다. 정혜초중등학교는 유치원과 초중등과정을 모두 운용할 예정이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이사장 월서) 역시 6월 19일 미얀마 북부 쉐띳에서 초등학교 착공식을 가졌다. 이 지역은 양곤에서 차로 약 12시간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진 외곽. 때문에 주변에 학교가 없어 마을에 있는 쉐띳사라는 절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왔다.

제대로 된 교실이 없어 바닥에서 칠판을 놓고 수업했던 420명의 학생들은 11월이면 완공될 학교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은 미얀마지역에 2개 학교를 더 지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서는 지난 6월 17일 필리핀 팔로시 파윙초등학교 공사 완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태풍 하이옌 피해를 입은 필리핀 지역 재건사업을 진행중인 아름다운동행에서는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복구공사를 지원해왔다.

이로써 천막을 치고 교육받아왔던 학생 659명은 새로 단장된 교실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아름다운동행은 부락초등학교 등 나머지 7곳의 학교 재건작업을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난 등 사회적 고통으로 무명에 머물러 있는 중생구제는 불교의 기본 교리다.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 등 빈곤국의 상황을 보면 비참할 정도”라며 “이 나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교육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마음으로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공 스님 역시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독점보다는 나눔, 대립보다는 공존을 우선시 하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학교에서 나오길 기원한다”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학교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생김새 달라도 하모니로 하나”

제5회 전국다문화어린이합창대회… 이천초등학교 대상

“진심으로 나누다보면 정말 내 친구가 되는 느낌이죠. 친구되는 가장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6월 1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문화 초등학생 400여명의 하모니가 울려퍼졌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다문화합창대회는 초등학생 다문화어린이가 절반이상 포함된 전국 각지의 합창단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가 사회 전반에 다문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21개 팀이 중창과 합창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은 “다문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합창대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초등학교 김세희 교사 역시 “자신감없이 위축되어 있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합창 연습을 통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합창대회가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데 동의했다.

최다 인원으로 참가한 김해 삼성초등학교 소속 삼성다솜합창단은 37명 중 12명이 다문화어린이다. 서동주(12)군은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서 군은 “서먹했던 친구들과 합창연습을 함께 하며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졌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등 총 11개팀에 주어졌다. 대상을 차지한 이천국제어린이합창단 소속 강지현(9)양 어머니 유혜경(41)씨는 일부러 아이에게 다문화 합창단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그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는 시선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고 평등하다는 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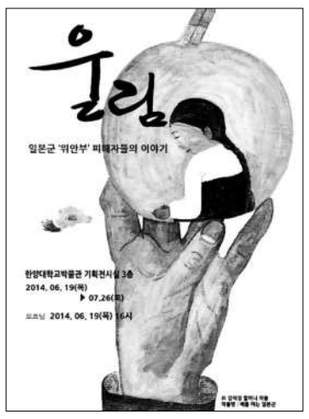
현재 한국의 결혼 이민자는 24만명, 다문화가족은 40만 가구에 달한다. 합창을 통해 어울림의 가치를 심어주고자 마련된 다문화 합창은 이 대회가 거의 유일하다.

배현진 기자



올해로 5회를 맞아 6월 18일 열린 전국다문화어린이합창대회는 화합과 어울림의 축제였다.

나눔의 집 특별전 ‘울림’ … 7월 26일까지 한양대 박물관서



위안부 할머니 그림 및 유품 전시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싸고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몰지각한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기획전시가 열린다.

‘울림-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전시가 한양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나눔의 집 부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한양대 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시품은 고(故) 김순덕 할머니와 강덕경 할머니의 그림 14점과 박옥련, 김화선 할머니 유품,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국 · 일본 교과서, 신문기사 등이다.

이와 함께 문화 강좌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한양대 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6월 27부터 차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과거와 현재’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발표), ‘피해자 할머니의 삶’ (나눔의 집 강일출, 이옥선 할머니), ‘전쟁범죄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아 교수)가 이어진다.

전시회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국의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로 규정,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육을 권고한 UN 및 국제인권기구들의 결의안도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나눔의 집 부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자료 3060점은 지난해 국가기록원에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등록됐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 등의 과정을 거쳐 후대에 전승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증언 구술기록, 심리검사,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유품 등이다.

전시 해설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3시~3시 40분까지 전시실 3층에서 진행된다. (02)2220-1394

배현진 기자

노년층, 약물 의존도 높아 심각한 상태

서울어르신상담센터, 6월 20일 중독 실태 세미나

노년층은 어떤 중독에 취약하고 치료 방안은 무엇일까.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희유)는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주요 중독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 노인 중독실태 세미나’ 를 개최했다. 지난해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 28곳 및 탑골공원과 종로 3가의 역사를 이용하는 50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조사가 바탕이 됐다.

알코올, 약물, 인터넷, 운동, 도박 등 5가지로 노인중독 종류를 분류하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처방 약물 중에는 영양제(31.5%), 드링크제(17.7%), 감기약(17.3%), 외용제/연고(16.7%) 순이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측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59.3%)과 부작용(60.8%)을 알고 있는 노인은 적은 반면 약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노년층이 잠재적 약물중독 문제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 중독현황과 전망’ 에 대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용석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노인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한 분야별 관점을 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노인중독에 대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방안과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담론(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남석인 교수)도 다뤄졌다.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7월 7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는 합리적 철학 아닌 '철학적 종교'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조성택 교수(고려대)

1강 '샤키야무니 붓다 등장의 역사적 배경'
2강 역사적 붓다의 재구성
3강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4강 근대 유럽이 바라본 '붓다': 부처님은 '영국신사인'가 '맑시스트'인가?
5강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 중
6강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현재 우리가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신비적 관점과 이성적 관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한테 부처님은 신이셨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비는 겁니다.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불교를 믿은신 거죠. 이는 요즘도 수험생 합격발원 기도하는 곳에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불교는 하느님을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70~80% 불자가 이걸 안 하면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는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되고 출가자들은 수행자가 아닌 종교적 권위의 상징, 붓다의 대리자가 됩니다. 기복종교, 무속적 불교로 전락하게 되고 출가자의 전횡과 오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결국 상식적 이해와 수행이 결여 되면서 무지몽매한 범부우치를 대량 생산하는 동시에 종교의 기업화 비즈니스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타종교 혹은 사회의 다른 부문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 이해는 또 어떤가요?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불교적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불교를 철학화해 종교로서의 불교가 지향하는 '초월성'을 간과하게 되죠. 현실불교라는 측면에서 이성적 이해방식의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신비주의적 관점의 문제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본 강좌에서는 이성적 이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상으로서 불교의 특징

불교를 이성적 · 합리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지식인들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불교란 지식화 · 교리화 되어 있으며 실천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철학자이고 사상가이며 불교라는 종교의 교주입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 경전에 신비롭게 묘사해 놓은 '꽃비가 내리고…' 같은 구절들을 제외시키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적 수사적 장치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하나의 철학 체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불교는 철학입니까 종교입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은 이성으로 이해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또 서양인들이 말하는 종교는 초월적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추구를 말하죠. 이 관점에서 볼 때 불교는 또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불교는 무엇인가요? 만해 스님께서는 이런 논리에 대해 불교는 철학인 동시에 종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대 이후 사람들은 철학적 진리는 하나만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수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의 정신적 경지와 세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3천의 중생이 있다면 3천의 세계가 있는 거죠. 각자의 업에 따라 보는 세계가 다 다른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 내업이 바뀌면 세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스펙트럼으로 무한한 진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죠. 수천 수만 개 무량수의 실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 없이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불교를 바라봐서는 불교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해 스님께서는 불교는 철학적 종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고 초월적 절대자의 믿음과 구원을 추구한다고 말이죠. 만해 스님은 철학적 종교라는 말을 처음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사실 동양사상에서 철학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인의 가르침으로 이해되죠. 서양에서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유일신만이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불교 철학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피, 정토신앙, 수행 이런 것들은 구원의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 불교는 이성과 정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란 누구인가?

붓다(Buddha)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까요? 현대 불교학의 입장을 살펴보면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스승)으로서의 '붓다'를 강조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신(神)적 존재로 변모합니다.

19세기 영국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불교를 재구성하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여러 관심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불교 또한 유럽의 19세기 이상형(ideal)을 형성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스리랑카에서 팔리어 문헌을 가지고 온 영국인들이 재구성한 부처님은 마틴루터보다 훨씬 더 앞선 종교개혁가로, 바라문 계급을 타파하고 무소유 공동체를 형성한 인류 최초의 막시스트로 또 시대의 뛰어난 철학자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이상적 인간을 말하자면 냉철한 감정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젠틀맨입니다. 마음이라고는 없는 이성적 지적인 전형을 부처님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의 작가 헤르만헤세가 유럽의 여러 정보를 수집해 〈싯다르타〉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인류를 구제하는 부처님이 아니라 고뇌하는 철학자의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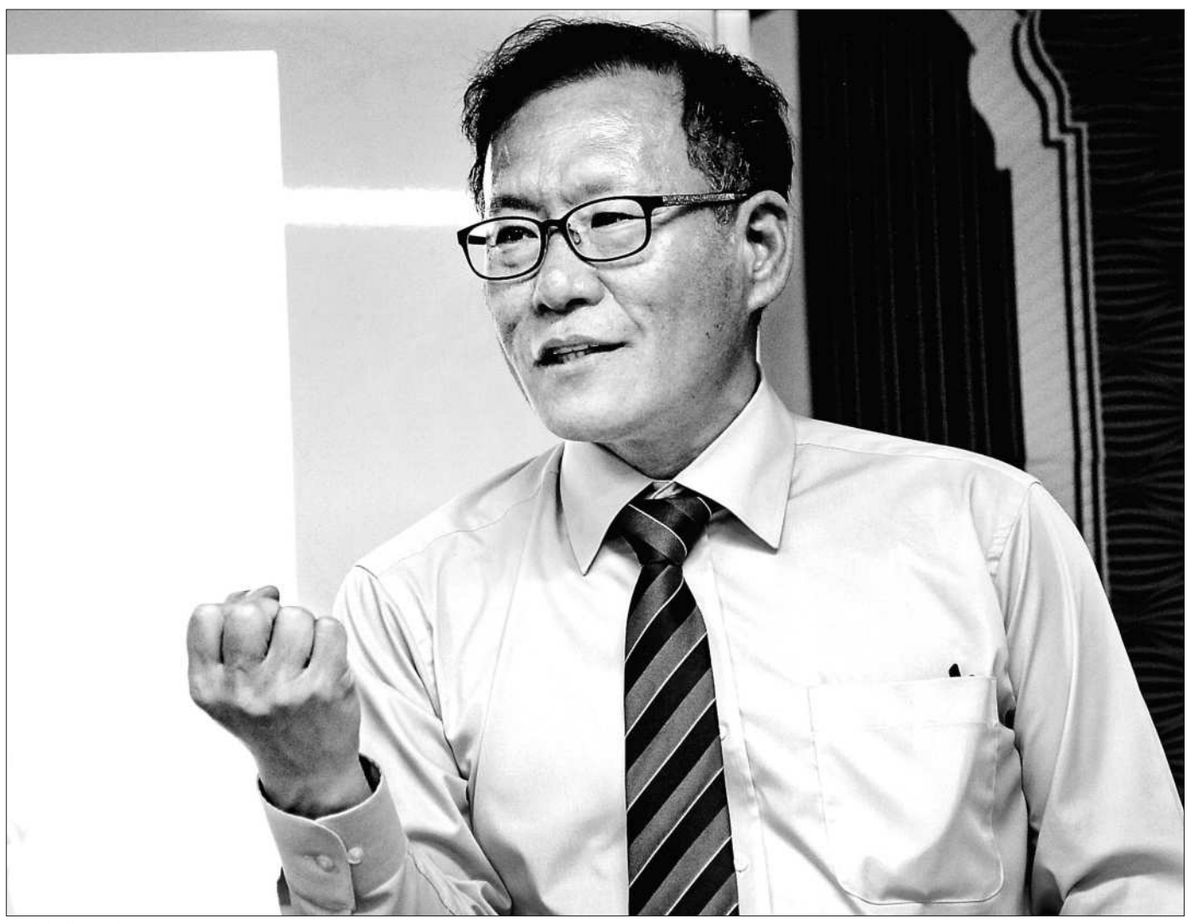
이를 근대 이후 한국인들은 불교의 장점인 양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철학자 부처님이라는 한쪽 면만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소지가 많아지는거죠. 부처님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초기에 근대적 합리적 이성적 과학의 세계를 이룩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불교를 없애려고 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엘리트들을 유학 보내보니 자신들이 버리려했던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들은 영국인들이 재구성한 불교를 보면서 이성적 체계적인 초기불교와 신화적 종교적 대승불교를 구분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대승불교를 타락하고 열등한 종교로 전락했다고 단정 짓습니다. 일본의 불교학자 스에끼 다케히로가 1970년도에 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도사상에는 극히 주지적, 이지적인 것이 보인다. 그 좋은 예로 초기불교가 있다. 이 석가 재세 중의 불교를 보면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일본에서 보고 듣는 불교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일본불교를 말하면 (중략) 정서와 직관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모자라서, 불교라고 하면 무조건 반-합리적인 사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불교가 합리적인 사상체계라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다."

하지만 브라흐만 도나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이론 또한 동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나는 부처님께 "당신께서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라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오 브라만이여, 나는 붓다이다. 그러니 브라만아,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극복한 뒤, 나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나를 붓다라 알라."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철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나는 신도 인간도 아니다
나는 붓다이다"
붓다는 깨달아 변화된 존재
이성적 지식으로 바라보면
부처님 왜곡 · 본질 놓칠 우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의해 변화된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자랐지만 깨달음에 의해 변화된 자이며 잠에서 깬 자인 것이죠.

불교 경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다면 불교 경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불교는 명상 · 깨침의 체험에서 나온 깨달은 자의 진리로 견도→수도→무학도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진리'에서 '체득의 진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는 인식론 · 존재론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를 불일(不一)과 불이(不二) 관점에서 살펴보죠. '불일'은 '多의 세계' 언어 · 분별 · 이성 ·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는 불교에 대한 이성적 이해로 경전을 언어적 이성적 차원에서만 이해한 것을 말합니다.

'불이'는 분별 이전 · 깨달음 · 부처의 세계로 불교에 대한 신비적 이해로 중생즉불(衆生卽佛),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성적 사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를 '이언진여(離言眞如)'라고 합니다. 또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알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 수 없는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알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법론적 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경전 언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의언진여(依言眞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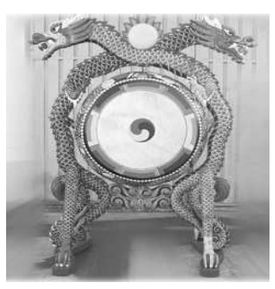
왜냐하면 깨달음의 세계와 경전의 관계는 동일한 것도 아니지만(不一), 서로 다른 것도 아니기(不二)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 일정한 '정의'(定義)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란 대상과 나의 언어적, 이성적 세계가 관련성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나의 담론 구성을 의미합니다.

서양에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경험이란 없다고 선언했으며 불교에서 깨달음의 영역을 지워버렸습니다. 학자로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 합리적으로 구성되는 것만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중불교 · 과학 · 예술 통섭한 선각자

선학원 주최 만해 스님 70주기 학술세미나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70주기를 맞은 추모 학술세미나가 6월 16일 서울 정법사에서 열렸다.

선학원이 '한국근대불교사와 만해학'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불교사상가로서의 만해 스님의 면모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신규탁 "만해사상 조동종만의 영향 아냐"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이날 첫 발표인 '만해사상과 선'에서 만해 스님의 〈십현담주해〉에 나타난 스님의 선사상을 살피고 김시습의 〈십현담요해〉와 비교 분석했다.

〈십현담〉은 당나라 선승(禪僧) 동안상찰(同安常察)이 조동종(曹洞宗)의 가풍과 수행자의 실천 지침 등을 칠언율시 형식으로 노래한 10수의 게송으로 만해 스님은 1865년 〈십현담주해〉를 펴낸바 있다. 학계에서는 만해 스님의 선사상을 '조동선'과 관련해 논하고 있다.

신 교수는 "만해 스님의 〈십현담주해〉에는 '이류중생'이나 '편-정' '군-신' 등을 제외하고는 조동종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만해 스님의 선사상을 조동선의 연장선에서 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논평으로 나선 김호귀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십현담〉 10개 항목은 조동오위(조동종의 핵심사상)의 개념과 상당한 유사성 내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신 교수는 "선종사에서 '남종선의 5종 가풍'을 분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종파의 계보는 있지만, 수행가풍에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차차석 "화엄 · 유마 등의 실천사상 반영"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만해사상과 불교학'에서 "만해 스님의 대중불교 사상에는 화엄경과 유마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차차석 교수는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불교의 개혁안' 등 다수의 논설에서 대중불교론을 주창했으며, 그 교학적 배경으로 화엄경과 유마경을 들었다.

만해 스님은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사회 현실을 여의지 않고 번뇌 중 보리를 얻고 생사 중 열반을 얻는 것인 즉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대중불교의 건설'이라고 설한다.

차 교수는 "만해 스님의 대중불교론은 불성론과 원생보살사상에 의거한 것"이라며 "만해 스님은 이밖에 화엄 성기론, 유마 방편설, 〈십현담 주해〉의 성상융회설 등을 적절히 활용해 사상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끝으로 "만해 스님이 결국 추구한 것은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였다"며 "그 사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신규탁


차차석


한상길


박현수

한상길 "서양철학의 자유의지 등 도입"

이어 '근대 동아시아 사조와 만해의 개혁사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상길 동국대 전임연구원은 양계초, 이동인, 태허스님, 세노오 기로, 다르마 팔라 등 동시대 다른 불교개혁과들과 비교하며 "만해 스님이 펼친 불교개혁은 당시 아시아의 큰 흐름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만해 스님은 근대 자유주의 사상에 심취, 칸트의 자유의지와 같이 인간 본성을 자유로운 것으로 보았다"며 "여러 서구철학과 사상도 수용해 당시 조선사회의 현실과 불교개혁을 위한 사상 정립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박현수 "문학과 삶 연관고리 연구"

끝으로 박현수 경북대 교수는 '만해문학의 문학사적 가치'를 통해 "만해 스님은 과학(진), 종교(선), 예술(미)를 하나로 통합해 사유한 전인적 인간이었다"고 평가하며 "만해의 문학은 단순히 그 문학만 볼 것이 아니라 문학과 삶의 연관고리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문학사적 가치로 보면 '심오한 형이상학의 형상화' '시적 형식의 돈오적 완성' '다양한 화자의 발견과 열란기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만해 스님은 선학원 설립조사로 수행정진에 힘쓴 선사,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삶의 희망을 북돋아준 시인이자 소설가, 민족의 독립에 힘쓴 독립운동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애쓴 교육자, 문학 동인지와 잡지 발간에 노력한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선각자였다"며 "만해 스님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립과 학술서적의 발행을 통해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심에서 화엄경 무료강좌 열린다

화엄학연구소 · 미붓아카데미 6월 23일부터 공동 개최

화엄학연구소(소장 신규탁, 연세대 교수)와 미붓아카데미(대표 이학종)는 6월 23일부터 조계사 인근 전법회관 대강의실에서 '화엄경 대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봉선사 회주 월운 스님에게 사사받은 신규탁 교수가 강연한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의실 문제로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무단 2회 이상 결석 땐 수강자격이 박탈되고, 예비수강자에게 수강권이 이양된다. 예비수강자는 강의를 들을 수는 있으나, 좌석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이메일(urubella@naver.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 이름과 모바일 전화 번호, 이메일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노덕현 기자

달라이라마 통역사에게 배우는 티베트어

티벳장경연구소 7월 7일부터 무료강좌 개최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소장 진옥)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408호에서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현대 티베트어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에서는 현재 제14대 달라이라마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정 티벳장경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씩 기초회화와 문법을 강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티벳장경연구소 홈페이지(www.koreatibet.kr)에서 볼 수 있으며, 신청은 연구소로 하면 된다.

한편, 2009년에 설립된 티벳장경연구소는 티베트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발간 및 특강, 학술대회, 번역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불교전파 경로와 수행문화'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7월 4~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글로벌에이스홀에서 '불교전파 경로와 수행문화'를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4일 행사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남방불교 수행문화 형성', 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북방불교 수행문화 형성'이 발표되며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5일에는 경주 남산 불적답사도 진행된다.

권탄준 한국불교학회 회장은 "불교가 전파된 경로를 따라 각각의 수행문화 전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문연, '불교원전연구' 제16호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최근 〈불교원전연구〉 제1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산스크리트본 대승장엄경론 보리품 한글역'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의 '빨리율 비구경분별 바라이품'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초빙교수의 '보만론' △권오민 경상대 교수의 '아비달마순정리론 변연기품 중 요의경에 관한 중현과 상좌 슈리라타와 세친의 대론'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팔종강요 해석'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구례 사성암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전남 구례 사성암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6월 15일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사성암은 백제 성왕 22년에 연기 조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오산암'으로 불리다가 4명의 고승(의상 대사, 원효 대사, 도선국사, 진각 국사)이 수도해 '사성암'으로 바뀌어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라 모양의 '오산'은 해발 531m의 낮은 산으로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한 안산암과 유문암질 화산암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상으로 한국형 경영 모델 만든다

'인적자원관리의 불교적 리모델링팀', 프로젝트 콜로키움 개최

한국형 경영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영기법에 대한 학술적 담론의 장이 마련된다.

'인적자원관리의 불교적 리모델링팀'(책임연구원 박경준, 동국대 교수)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사업 일환으로 6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 학술관 102호에서 '화쟁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사회적 적용 진단'이란 주제로 콜로키엄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3년 9월 1일 선정돼 2015년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불교는 무소유를 강조하는 경제와는 동떨어진 종교라고 인식돼 왔다. 하지만 불교는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자 수입을 인정한 종교였으며, 오늘날 글로벌 기업에 비유할 수 있는 대상(隊商)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종교다. 또 초기 아함경 곳곳에는 상업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돼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불교적 리모델링팀'은 이번 콜로키움에서 화쟁사상을 키워드로 다양한 불교사상 속의 한국형 경영모델을 모색한다. 그동안 분석과 검증 없이 경제적, 정치적 외압에 의해 받아들여야 했던 경영 논리에서 벗어나 한국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관리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 과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교수가 '화쟁에 대한 원효의 논리적 구조' '화쟁은 사상인가 논법인가' '화쟁의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화쟁의 구체적 논법 또는 논리전개방식'의 4가지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이어 김승용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이동진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경영학부 대우교수가 경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형 인사관리 방안을 제시한다.(02)2260-3129

노덕현 기자

일본어로 만나는 '한국불교 100년'

23일 日서 출판기념회… 이치노헤 스님 전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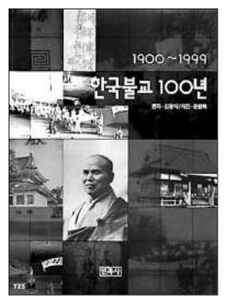
2000년 민족사가 발행한 사진집 〈한국불교 100년〉이 일본어판으로 출판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도 열릴 예정이다.

사진과 해설이 곁들인 〈한국불교 100년〉는 1900~1999년까지 한국불교와 관련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사건을 망라했으며 근대 한국불교 1세기를 훌륭하게 조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록된 자료는 불교계에 있었던 중요사건, 희귀사진, 기념사진, 신문, 잡지, 인물, 책, 성명서, 문건, 중요사건, 기사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모아 총 1105컷을 수록했다.

이 책이 일본 고세이샤(皓星社)에서 일본어판으로 출판되는 데는 조동종 운쇼지(雲祥寺) 주지이며, 동아시아불교운동사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이치노헤 쇼코 스님의 역할이 컸다. 스님이 모든 출판 경비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노헤 스님은 "책을 출판한 목적은 이 책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불교 수탈 사진과 자료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면서 "일본인들에게 광복 이후 한국불교의 발전모습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는 6월 23일 오후5시 도쿄 긴자 라이온스 호텔에서 열리며, 한국 측에서는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윤창화 민족사 대표,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등이, 일본 측에서는 쇼코 스님, 하쿠신쿤 참의원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북 불자들, 외국인 마음 어루만져

전주 우리는선우,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현대차와 연계, 민속공연 등 선봬
이미용봉사, 건강검진 등 호응 높아
외국인노동자 "한자리 모여 행복해"


6월 15일 어울림 마당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사찰들과 신행단체들이 오랜 타국생활로 지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6월 15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열었다.

완주 송광사, 금선암, 원경사등 지역 사찰과 전주 우리는 선우, 천천클럽, 전북불교네트워크, 좋은 이웃 등이 주최한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은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 15개국 4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참해 함께 어우러지며 즐기는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이 날 행사는 고국과 가족 곁을 떠나 3D업종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고 한국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민속극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 간단한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장기자랑을 하며 잠시나마 타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랬다.

또 레크레이션 강사가 진행하는 여흥과 부채춤 등 우리 민속공연에 이어 현대차 노동조합서 준비한 자전거, 전자제품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졌고 유행이 지났거나 몸에 맞지 않아 버려진 의류 1000여 점이 노동자들에게 전달됐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전주 한사랑 봉사단원들이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고, 오랜 타국생활서 소홀하기 쉬운 건강검진도 이루어졌다.

오종근 우리는선우 회장은 "근로여건도 어렵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용기 운영위원장은 "처음에 손을 다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며 "한국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외국인이냐며 냉소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불자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 올해로 9회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경품을 한아름 받고 돌아갔다.

네팔에서 온 비노드 씨(34)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랜만에 고국의 친구들도 한자리에서 만나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 화합 위해 각 종교 성지탐방 진행"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상암대표 현지 스님 취임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에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지난 13일 무등산 원효사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현지스님의 취임과 함께 김영태 명예교수(전남대) 초청하여 '이웃 종교의 이해와 상생 방안' 에 대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광주지역 6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불교 현지스님, 개신교 장헌권 목사(서정교회), 천주교 이옥수 신부(광주교구 비서실 주임신부), 원불교 박덕규 교무(서광주교당 주임교무), 천도교 이우원 선도사, 향교 장원섭 전교 등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종교간 화합 · 상생을 위한 정기적 모임과 종교간 문화적 교류, 지역내 현안에 대한 종교인들의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모임이다. 특히 평화음악회 정기 간담회, 각 종교별 성지탐방, 이웃종교 소개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지 스님은 사찰을 찾은 각 종교 지도자들에게 "빛고을 광주는 아미타신앙을 기초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많은 지명이 불교적 연원으로 지어졌다"며 광주지역 지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교수는 강연을 통해 "종교 간의 주요 갈등 요인은 배타주의이며, 이는 교리적 독단주의, 종파적 우월주의, 종교적 패권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며, "종교편향 배제 방안으로 배타주의 지양과 종교 다원주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 미륵종 종정 추대법회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덕운) 제6세 종정에 무불당 법상스님이 추대됐다. 6월 18일 광주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에서는 총무원장 덕운 스님, 종회의장 지운 스님, 원로의장 법조 스님 등 종단 스님을 비롯해 성우 스님(불교TV 회장), 종오 스님(제주 관음사 조실),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등 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종정 추대법회가 열렸다.

이날 종정으로 추대된 법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은 여생 미륵종에 생명과 마음을 다해 미륵상생 도솔천의 길을 닦고, 아래로는 미륵하생의 현세 중생을 위한 십선업(十善業)을 닦게 하여 만유중생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자비의 대승 보살행을 인류사회에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십선업의 핵심인 사섭법(四攝法)을 설명하며, "철저한 수행가풍으로 솔선수범하는 수행선지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했다.

법상 스님은 통도사 행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극락선원에서 하안거, 동안거를 성만했으며, 울산 신흥사 주지, 경주 무량사 주지, 불국사 미술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향불사 무불선원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법어에 앞서 총무원장 덕운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무불 법상 대종사를 한국불교 미륵종 종정에 추대하게 됨을 전 종도와 함께 기쁜 마음 한량없다"며 "잠시 혼란스러웠던 우리 종단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 공개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이 일반에 최초 공개됐다.

익산 심곡사(주지 화평)와 국립 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6월 18일 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칠층석탑 사리장엄을 소개하는 특별기획전 '장엄과 공덕' 전을 개최했다.

8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심곡사 칠층석탑 중대석에서 발견된 금동불, 불감, 백자사리호 등 귀중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는 지난 2012년 심곡사 칠층석탑의 해체보수과정에서 발견된 백자 사리호 1점, 금동불입상 2구, 금동불 7구가 봉안된 금동불감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리장엄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기단 중대석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불입상 2점이다. 불상의 뒤쪽이 편평하고, 옷주름이 볼륨이 없는 특징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라도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석탑 지대석에서 수습된 불감 안에 함께 봉안돼 있었던 금동불 좌상 7점은 각기 다른 특징과 양식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아미타삼존불은 고려 말에 들어온 원대 라마양식 불상의 영향을 받아 고려 말인 14세기 중엽에, 또 다른 4개의 불상은 상체가 짧고 체구에 비해 손이 작게 표현된 점으로 조선 초인 15세기 중엽에 각각 조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개막식에 이어 익산 심곡사는 사리장엄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전북사학회 와 공동으로 박물관 강당에서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주 죽림사 괘불탱, 일반 전시

우리나라 괘불중 가장 오래된 죽림사 괘불이 일반에게 공개됐다. 나주 죽림사(주지 법용)는 6월 15일 국내 탱화 전문가들이 동석한 가운데 일반 신도들에게 보물 제1279호인 '죽림사 세존 괘불탱' 친견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괘불탱은 조선 광해 14년(1622)에 조성된 5.2m×2.8m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죽림사 괘불은 석가모니불이 연꽃 위에 결좌부좌 자세로 앉은 모습을 단독으로 그린 그림으로 조선후기 수인(首印), 신헌(信軒) 두 화사가 그린 조선시대 일반불화나 괘불탱화에서 보기 드믄 예이다. 현재 조선시대 괘불은 100점이 조금 넘게 남아 있다.

죽림사 세본 괘불탱은 문화재 변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반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이날 공개는 탱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목적을 담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탱화는 전체 6폭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마촉지인을 한 손가락이 크고 벌어져있어 17세기 특징을 잘 갖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일반 괘불탱은 영산회상을 기본으로 많은 불 · 보살님이 등장하지만 죽림사 괘불은 석가모니만을 모신 특이한 경우이며, 두광(머리쪽의 광배)옆의 오색 광선이 일반적으로 직선인데 비해 곡선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주지 법용 스님은 "불자들이 죽림사 괘불탱화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다행이다.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참고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결혼이주여성들, 법주사서 산사체험

청주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속리산 법주사에서 산사체험을 했다.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월 16일 결혼이주여성 40명과 함께 속리산 법주사를 찾았다.

법주사 문화탐방행사는 청주 명장사(주지 김유정)에서 진행하는 '이주여성 한국문화 새로 익히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결혼이주여성들은 속리산 오리 숲을 걸으며 한국의 산과 숲 문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법주사 경내를 돌아보며 대웅전, 쌍사자석등, 팔상전 등 국보급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에 감탄했다.

견학에 참여한 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가정에서 불화를 종종 겪는다"며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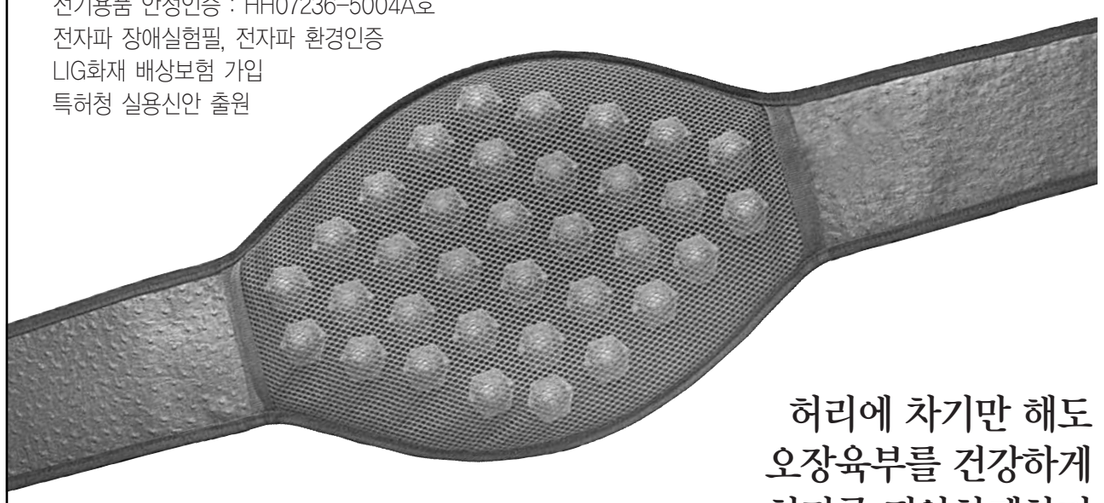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사찰도 이젠 평생교육 시대

통도사 평생교육원 문화강좌 등 인기

영축총림 통도사 평생교육원(원장 원산)이 평생교육원 졸업생들의 솜씨를 뽐내는 전시의 장을 마련해 화제다.

통도사평생교육원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가오는 하반기 교육일정을 알리는 '평생교육원 문화의 밤' 을 6월 14일 통도사 자비도량 연수원 6층 세미나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평생교육원 문화의 밤' 에서는 '마음으로 만나는 전통 조각보, 궁중다식' 이라는 주제하에 공예명장 김순향 관장 및 수강생들의 조각보 전시와 박소영 궁중음식전전문가 및 수강생들의 궁중다식 전시가 열렸다.

이는 지난 상반기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엿볼 수 있어 참석한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본식에 앞서 '선재 스님 사찰음식 집중연수' 를 지도하는 선재 스님과 수강생들이 정성스레 사찰음식을 준비해 참석한 내빈과 스님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통도사 연수원 연수국장 도안 스님은 "통도사 평생교육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공익사회 내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통도사 주지이자 평생교육원 원장인 원산 스님은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다식과 조각보는 수행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조각보의 한 땀 한 땀에 간곡한 움직임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도 정성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성스럽게 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불자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6월 14일 자비도량 연수원서
조각보 · 궁중다식 전시 '눈길'
선재 스님 사찰요리 강좌 인기


평생교육원 원장 원산스님이 전시된 궁중다식을 관람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초의 차명상' 을 지도하는 지장스님이 수강생들과 함께 차 명상을 시연했으며, 이어서 '평생교육원 문화의 밤' 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양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를 받은 통도사 평생교육원은 사찰음식, 차명상, 전통조각보, 궁중다식, 불교와 심리치유 등 다양한 강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이자 사찰음식 전문가로 알려진 선재 스님의 '자연건강 사찰음식' 강의는 스님만의 독특한 사찰요리법을 배울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또한, 공예명장 김순향 관장의 섬세한 지도로 진행되는 전통조각보 강좌도 수강생들이 어렵지 않게 전통조각보 공예법을 습득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를 1년 동안 수강한 박난경(52)씨는 "사찰음식을 배우면서 건강도 되찾고 사찰음식으로 포교에 힘쓰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원산 스님과 선재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통도사 평생교육원의 위치와 시설도 수강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양산시 하북면 에 위치하고 있는 통도사 자비도량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원 강좌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통도사 평생교육원은 이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http://www.tongdoacademy.com)으로 가능하며, 3분의 2 이상 출석한 수강생은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055)-367-8851

김나영 객원기자

문수급식센터 5년간 무료급식 2만명

효신 스님 40여 봉사자들과 지역 어르신 위해 봉사

대구 문수급식센터(센터장 효신, 수성구청소년수련원장)가 5년 동안 무료급식을 이어오고 있어 화제다. 수성구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 대구경찰청 법우회, 달서구청법우회, 달서경찰서 법우회 등 40여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문수급식센터는 달서구 월배공원서 매월 300여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평소 지역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던 효신 스님은 고향인 대구에 정착해 지역포교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그러던 중 이웃과 나누며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효신 스님은 "처음에는 매주 급식을 했는데 이웃의 기독교와 천주교가 참여 하게 되면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만 급식을 하게 되었다"며 "이웃 종교와 함께할 수 있어 더 의미 있다"고 전한다.

지난 2010년 발족 후 현재까지 문수급식센터가 제공한 무료급식에 참여한 인원은 약 2만여 명에 이른다. "매월 급식 때는 300여 명이 참여하고 초파일이나 동짓날 같은 때는 600여 명이 식사를 한다. 이밖에도 대구교도소 법회를 지원하는 등 자비와 나눔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한다.


문수급식센터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달서구 월배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문수급식센터 현장에는 달서 경찰서와 구청 등의 법우회 가족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끈다.

문수급식센터장 효신 스님은 종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를 졸업했다. 교정교화 전법단 지도법사, 대구경북 전법단 지도법사, 동화사 사회국장을 역임 했으며 현재는 수성구청소년수련원장,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호법과장 소임을 보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제16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부산 현충공원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계종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제16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를 부산 화명 신도시 현충공원 내에서 6월 13일 봉행했다. 진여원과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위안행사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남보타월 진여원 원장, 6 · 25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호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다한 영가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가졌다.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이 6월 13일 현충공원서 향을 올리고 있다.

참가스님 및 보훈유가족대표들이 밝힌 왕생극락 기원등을 시작으로 현충공원 기념비 앞에서는 헌화 및 분향이 진행됐으며, 제53사단 125연대의 조총발사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보훈유가족 장학생 대상 장학금 전달식 등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보훈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김나영 객원기자

정여 스님 〈나를 찾아가는…〉 출판기념회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의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 출판기념회' 가 6월 18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여 스님의 첫 명상 안내서인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맑은소리 맑은나라 발간)은 스님과 불자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정여 스님의 쉽고 간결한 문체의 명상 이야기와 삽화가 포함되어 있다.

선 명상 시연으로 특별하게 시작한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김계춘 신부, 방영식 목사,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과 정여스님

인사말에서 정여 스님은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으로 물질로 향해있던 마음을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의 고향으로 안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여름방학,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학생 무료 템플스테이

여름방학을 맞아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진정한 '나' 를 찾는 템플스테이 '깨어나 웃어라' 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무료로 진행한다. 지난 6월 7일 고등학생 대상 템플스테이에 이어 이번 대학생 대상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화합과 협동 등의 덕목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취업시험과 스펙 쫓기에 바빠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와 같은 무료 템플스테이 체험을 진행하게 됐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한마음 부산지원은 "이번 템플스테이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 자유스러움을 되찾아 궁극적으로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성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대학생 무료 템플스테이 체험은 총 두 차례로 각각 1박 2일씩 진행된다. 1차는 7월 4일~5일, 2차는 8월 29일~30일이다.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프로그램은 참선, 발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진행되며 불자가 아니어도 참여가능하다. 세면도구 외 개인 별도의 준비물은 없으며 의복도 제공된다. (070)4650-5535

김나영 객원기자

사하불교聯 '노인위문공연'

6월 11일 한우리 요양병원서

사하불교연합회(회장 법인)와 사하사암무료급식소가 주최한 '노인위문공연 및 경로잔치' 가 6월 11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우리요양병원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노인위문공연을 준비한 사하불교연합회는 200인분의 빵과 음료를 준비해 한우리요양병원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병동에 들러 빵을 직접 전달한 사하불교연합회 회장 법인 스님은 "오늘 공연으로 어르신들이 병고는 잊으시고 즐거움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위로공연에는 한우리요양병원 관계자 및 어르신 등 총100여명이 참여했다.


회장 법인 스님이 한우리요양병원 어르신을 격려하고 있다.

한편, 사하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은 십시일반으로 보시금을 모아 19년째 사하사암무료급식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파손, 도난 걱정 끝!!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 입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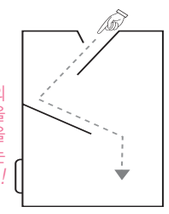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복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 주문 후 2~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기업은행 010-5414-2304 / 국민은행 614101-01-048120
농협중앙 221103-52-056910 / 하나은행 479-910037-98607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

분단 아픔 느끼며 평화 발원하는 '성지'

호국의 달, 군법당을 찾아서

① 5사단 광복 통일사



통일사 오른편 야외에 조성된 약사여래불.

한국전쟁중 수많은 전투…현 백마고지 관할
1978년 법당 신축후 20여 법사 거치며 포교
민통선 안 통일각 법당과 사리탑도 조성



제5사단 사령부 법당인 광복 통일사는 부대내에 위치해 있다. 주요 시설로는 법당과 종각, 탑 등이 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사찰 기행의 발길을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있고, 남북분단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북쪽으로 돌렸다. 서울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5사단 법당인 광복 통일사다. 제 5보병사단은 우리나라 중부전선을 지키는 최전방 철책부대다. 열쇠부대로 더 유명한 5사단은 경기북부의 최전방인 연천과 철원지역 등으로 가는 병사들이 거쳐가는 관문이다. 1948년 경기도 수색에서 제 5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사단 승격 뒤 부대가 이동해 현재의 위치에 주둔하게 됐다.

모든 부대가 마찬가지겠지만 5사단은 특히 한국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5사단은 육군본부의 소환으로 서울 용산에 올라와 북한군 남하 지연 작전에 참여한다. 1950년 7월 1일부터 시흥으로 지연전을 전개하며 철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서 대다수 병력이 분산돼 사단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1950년 10월 8일 부산, 대구, 마산에 주둔중이던 연대들을 근간으로 대구에서 재창설 됐다. 재정비된 5사단은 한국전쟁중 수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피의능선 및 가칠봉 전투가 유명하다. 또한 그 유명한 백마고지도 바로 5사단이 관할 및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 5사단사령부 법당은 광복 통일사다. 1978년에 신축됐다. 교회가 1980년 이후에 지어졌으니 사단내에서는 최초의 종교시설인 셈이다. 통일사 건립은 당시 불자 사단장이었던 김복동 장군의 발원에 의해 시작됐다.

강건욱 통일사 주지 법사는 "법당이 있기전엔 사단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복동 사단장님이 발의를 하셨고, 월정사 탄허 큰 스님께서 오셔서 직접 법당 위치까지 정해주셨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인 1천여만원의 모연금으로 68평 규모의 법당이 세워졌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법당서 본격적인 법회활동은 1978년 제 18대 군종참모인 김선근 법사(동국대 명예교수)가 부임하면서 부터다. 이전인 1962년에는 용림포교당이 연대급에 50평 규모로 건립돼 장병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했고, 1971년에 들어와서 대대급에 심원사 군법당이 지어져 군포교 도량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1978년에 제 모습을 갖춘 통일사는 현 주지 법사인 강건욱 법사에 이르기까지 20명이 거쳐가며 왕성한 포교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예하대대까지 총 11개의 소규모 법당을 거느리고 있다.

통일사는 부대밖에 있는 대다수 군법당과 달리 영내에 위치해 있다. 정문인 위병소를 통과해 10여분 걸어 올라가면 일주문이 보인다. 영내에 위치한 군법당에 일주문이 세워져 있는 것은 흔치 않은 풍경이다. 제법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길다. 부대안에 있어서인지 주변 정리가 깨끗하고 정갈하다.

법당을 중앙으로 좌측에는 종각이, 우측에는 바위 앞에 약사여래불이 모셔져 있다. 불상 규모는 작지만 영험해 군 불자들은 물론 일반 신도들이 자주 찾아와 기도를 하는 곳이다.

법당은 제법 넓다. 일요법회에 1백명 정도 장병 불자들이 찾아 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인원이 법회를 보기엔 충분하다. 불단에는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법당 옆에는 여느 군법당에도 있는 상담실이 있다. 여기서 강건욱 법사는 자살방지교육이라든가, 군생활중 개인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병불자들을 상담하며 심리치유를 해준다.

강건욱 법사는 "군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포교를 위한 초석이 될만큼 중요한 황금어장입니다. 군 장병들이 미래 한국불교의 호국신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장병들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회 활동을 할 것입니다."라고 각오를 피력한다.

연천 통일사=김주일 기자

"신교대 법당 건립 가장 큰 숙원"

주지 여정 강건욱 법사



"사단 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신교대 법당 건립입니다. 이 교육대대는 입대하는 청년들이 처음 맞는 관문입니다. 그곳서 처음 만나는 불교시설이 바로 신교대 법당이지요. 이런 중요한 포교 전진기지에 법당이 없어 강의실을 빌려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강 법사는 신교대 포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피력했다. 실제로 사단내 종교시설중 유일하게 종교활동 공간이 없는 곳이 바로 불교다. 신교대 종교활동 참가 비율은 불교가 개신교에 이어 2위를 차지만, 번듯한 법당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교회와 성당은 1백평 넘는 공간에 신축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지난해 부임한 강 법사의 노력으로 12억 여원 정도의 예산을 국방부로부터 확약 받았지만 2015년~2016년 연속사업으로 계획돼 있어 요원한 일이 됐다. 강 법사는 "군종교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 노력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주일 기자

주변 안보 관광지

▲열쇠전망대

5사단 열쇠 부대의 대표적 전망대로서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비교적 많이 찾는다. '열쇠 전망대'는 30분 정도면 관람할 수 있다.

전시물은 1층에만 있고 2층은 전망대이기 때문이다. 2층서 시간만 맞으면 브리핑도 들을 수 있다. '열쇠 전망대'는 몇몇 고지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좁고 긴 분지 지형이어서 비교적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다. GOP의 느낌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전해진다. 파주 '임진각'이나 '통일 전망대'로 사람들이 찾지만, 그곳은 철책 앞에 산이 있어서 막상 북측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런점에서 북측과 거리상 가장 가까워 안보 여행지로서 분단의 아픔과 현실을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열쇠 전망대'다.

▲백마고지 전망대

연천 대광리서 조금만 올라가면 철원이다. 한 30분 정도 거리에 '백마고지 전적비'가 있다. '백마고지'는 6.25 전쟁 중 격전지로 유명하다. 고지 정상 높이가 포격에 의해 열흘만에 약 1m가 줄었다고 할 정도다.

고지의 모양이 말 모양이고, 화약재 등이 하얗게 앉은 모습을 따서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다. 말이 '고지'이지 실제론 그냥 평야 지대에 드문드문 있는 '언덕' 수준이다. 그러나 평야 지역이기에 이곳에만 올라도 주변 지형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유리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니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을 것이다.

예전에는 연천 '신탄리역'에서 내려서도 버스를 타는 등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지금은 경원선 철도 '백마고지역'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기차 등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가 좋아졌다.

철원군서 운영하는 별도의 '안보 관광' 프로그램도 있다. 전망대 진입로를 따라 오르면 제단과 전적비가 나온다. 전적비는 꽤 높은 편이다. 옆면에 하늘로 오르는 백마상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통일각 법당(사진 아래)

5사단 GOP가 위치한 열쇠전망대내 통일각 법당은 우리나라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사찰이다. 이 곳에는 석가세존의 진신사리를 봉안해 놓은 불사리탑이 조성돼 있다.



이 탑은 1992년 조성됐다. 통일각 법당의 사리탑은 민통선 안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사리탑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통일각 법당에는 통일기원과 국운융창의 기원을 담은 종각도 있다. 사단 사령부 법당에 소속된 통일각 법당은 1979년 신축됐다.

▲통일교

통일각 법당과 종각을 잇는 다리다. 1979년도에 건설됐는데, 노후화 및 안전문제로 오랫동안 폐쇄됐으나, 연천군의 지원으로 올해 1월 복원됐다.

이로써 매주 최전방 법회를 오는 장병 불자들은 물론 민간인 불자들이 여법하게 법당을 참배할 수 있게 됐다.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탑의 진화

⑬ 보로부두르(Borobudur) 불탑

불교관 완벽하게 표현한 '불가사의'

본 글의 제목은 '탑의 진화'이다. '진화'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용어로 일반적인 의미는 생물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도태되어 점차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한 것으로부터 고등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불탑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 반드시 발전되어 진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대에 따라 간소화 또는 상징화되어 퇴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불탑의 역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교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불탑신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기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기에 조성된 황룡사9층탑을 비롯하여 익산 미륵사지석탑, 불국사 쌍탑, 화엄사 사사자 석탑 등의 건축적, 예술적 수준을 오늘날 재현하기 힘든 것처럼,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불탑 조성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로 꼽는 것이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불탑**〈사진1〉**이 대표작이다. 이 불탑이 있는 인도네시아는 13,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5세기경에 인도와 교류하며, 불교문화도 수용하였다. 이 불탑은 중부 족(욕)자카르타에서 약 42㎞떨어진 보로부두르 마을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불국사와 석굴암의 조성과 비슷한 시기인 775년경에 힌두교를 숭상하던 왕실의 지원으로 쉬바신을 위한 사원으로 시작 하였으나, 기단 부분만 만들고 중단 된 것을 불교를 신봉하던 사일렌드라왕조의 사마라둥가(Samaratungga)왕이 790년부터 835년까지 불사를 계속하여 마침내 거대한 불탑을 탄생시켰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후에 모든 불교국가에서는 불탑을 조성하였지만 8세기에 조성된 이 불탑의 예술적, 건축적, 신앙적 의미를 능가할 불탑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네덜란드 언어학자 데 카스파리스(J.G. de Casparis)에 의하면, 탑의 원래 이름은 '다사부후미 삼바하라 붇다라'(DasaBhumi Sambhara Budhara)로 '다사부후미'는 10단계로 십층(十層), 십지(十地), 십지품(十地品)을 의미하며, '삼바하라'는 언덕을, '붇다라'는 불탑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언덕위의 10층불탑'이란 뜻이다. 그런데 '다사부후미삼바하라붇다라'에서 뒤의 '바하라붇다라'(Bhara Budhara)를 인도네시아의 자바(JAWA)어 표기법으로 'a'를 'o'로 바꾸어 '보로부두르'(Borobudur)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이 불탑은 높이 40m의 10층탑으로, 각 층의 벽면에는 양각으로 불교관련 도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벽면의 길이를 모두 합한 길이는 60km에 달하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조각으로 탁월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이 불탑의 구조적 특징은 7층까지는 정사각형이고 8층부터 10층 까지는 원형을 이루는 이중구조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10층이 3단계의 구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10층은 '십지'(Dasabhumi)를 의미하는데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화엄경의 10지품의 수행과정을 의미하며, 3단계는 불교의 세계관인 삼계(三界) 즉,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표현**〈사진2〉**하고 있는 것이다.

7층까지는 사각형의 계단식피라미드로 한 변이 123m이며,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요로가 있으며, 8, 9, 10층은 원형으로 수미산을 상징하는 불교의 우주관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하나의 만다라를 표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7대불가사의 중 하나
높이40m 무게350만t
25cm×15cm 돌 200만개 축조
3000개 벽면 조각 상상초월
상상초월의 불탑신앙 있어 가능
축조과정 현대인들 짐작 못해
비교대상 찾아보기 힘들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만다라'
내부에서 시작 외부로 축조 추측
석굴암 천장구조와 비슷한 공법
수세기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어
1814년 발견 유네스코 지원 복원

이처럼 '보로부두르' 불탑은 불교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며, 앞서 말했듯이 각 층의 조각 내용은 한질의 대장경을 방불케 하듯 방대한 내용**〈사진3〉**이다.

또한 사방 회랑의 꼭대기와 중앙에 모셔진 불상은 전형적인 밀교의 오불(五佛)을 봉안한 모습이며, 각 출입구의 양쪽에는 모두 64개의 사자상**〈사진4〉**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불탑의 재료는 가로 25㎝, 세로 15㎝, 폭 10㎝의 안산암이라는 돌 약 200만개로 되어있다. 이 200만개의 돌에 홈을 파서 서로 맞물리게 하여 내부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이다.

조성방법에는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공통점은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내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축조되어 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우리나라 석굴암 조성의 순서로 예견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크기로 하여 돌과 돌 사이에 홈을 파서 위 부분의 돌 아래 중앙에 튀어나온 돌출형태에 맞게 끔 하여 일단 조립이 되면 부분적으로 해체가 불가능하게 한 것은 석굴암의 천장구조 결구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특히, 각 회랑의 바닥 돌은 다양한 형태로 서로가 맞물려 **[사진3 바닥 참조]** 있으므로 지진 등의 외부충격에도 흔들 임을 최소화 시킨 고도로 발달 된 과학의 산물인 것이다.

지금부터 대략 1,2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불탑을 조성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짐작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약 350만 톤에 이르는 탑의 무게를 지반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며, 약 3,000개에 달하는 벽면의 조각은 누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많은 돌은 어디서 옮겨 왔는가? 등에 대하여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냥 불가사의로 단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은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탑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 보로부두르 불탑을 능가하여 건축학적이나 예술적으로 더욱 진화된 불탑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양각으로 표현된 부조물의 내용들은 대장경 전체의 내용을 방불케 하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이 탑의 구조에서 불교의 세계관인 삼계의 표현과 모셔진 불상의 특징 및 만다라의 상징적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10층탑의 구조로 1, 2층에 해당되는 욕계(欲界)는 중생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도(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를 160개의 조각으로 표현 하였다. 한 개의 부조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뜻을 표현했으며, 우측은 인(仁)을, 좌측은 과(果)를 표현하여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의미하고 있다.

3층부터 6층까지는 욕심은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물질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는 색계(色界)에 해당 되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8상으로 구분하는 8상도를 비롯하여 본생담과 화엄경의 입법계품 등의 내용이 조각으로 새겨져 오늘날 사찰벽화의 근원으로 조심스럽게 주장해 본다.

욕계와 색계에 새겨진 부조는 총 2,672매로 내용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짐작케 하며, 7층부터 9층에 이르는 무색계(無色界)는 욕망과 물질을 완전히 극복한 정신적 세계로 작은 봉헌탑 안에는 설법인을 한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다. 이 불상들을 학자에 따라서는 전법륜인의 비로자나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7층에 32, 8층에 24, 9층에 16, 모두 72기의 봉헌탑안에 불상을 모셨으며, 중앙의 대탑을 합하여 73기의 탑으로 구성되어있다. 작은 봉헌탑은 마치 창살무늬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내부의 불상을 친견할 수 있다**〈사진5〉**. 이 불상들은 방향에 따라 수인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인에 따라 불상의 존명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미술사학계의 견해이다. 수인이 항마촉지인이면 석가모니불, 지권인은 비로자나불 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불탑에 모셔진 불상들은 수인에 따라 존명을 정하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동쪽에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남쪽에는 여원인(與願印), 서쪽은 선정인(禪定印), 북쪽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의 수인을 각각 결하고 있는 불상들은 방향에 따라 수인의 모습만 다를 뿐 상호를 비롯하여 법의 및 결가부좌의 자세 등이 모두가 한결같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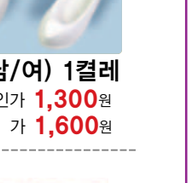
이 불탑의 구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만다라(曼荼羅)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다라의 사전적 의미는 원(圓)을 의미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주를 상징하며, 2종류가 있어 우주의 2가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에서 여럿을 향해 움직이는 태장계(胎藏界)와 여럿에서 한 곳을 향해 움직이는 금강계(金剛界)가 그것이다. 만다라는 종이나 천에 색칠하여 그리거나, 쌀가루나 모래를 이용하지만 청동이나 돌을 사용하기도 한다. 돌을 사용한 금강계만다라의 대표적인 예가 보로부두르 불탑**〈사진6〉**이다. 구조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행하는 탑돌이도 만다라 중심에 접근하는 수행의식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국사 다보탑이 만다라를 상징한 대표적인 탑이라 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 불탑은 인도 산치불탑의 경우처럼 입구에 토라나(torana)라는 출입문이 있다. 이 토라나의 정상에는 사자를 닮은 까르티무까(Kartimuka)라는 손이 세 개인 상상의 동물이 좌우에 두 마리의 뱀을 쥐고 있다. 좌우 아랫부분에는 각각 해수(海獸)가 입을 크게 벌린 채 위로 향하고 있다. '까르티무까'는 하늘, '마까'라는 땅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불탑은 950년경에 왕조의 중심이 자바의 동부로 옮겨가게 되는 바람에 밀림 속에 방치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인근에 있던 메라피 화산이 분출하여 흙속에 묻혀 수세기 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역사에 등장한 것은 1814년이었다. 싱가포르를 건국한 것으로 유명한 당시 자바의 통치자였던 영국인 토마스 래플스(Sir Thomas Stamford Bingley Raffles)경이 보로부두르를 재발견하고 나서, 다시 자바를 점령하게 된 네델란드 인들이 주도하여 복원 공사를 하였다. 복원 불사 중 수차례의 지진과 화산 폭발로 지연되었지만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로부두르 불탑은 크기의 위용과 구조의 뛰어난 예술적 우수성은 물론, 불교의 교리를 시공간에 완벽하게 표현하였다는 것은 지극한 불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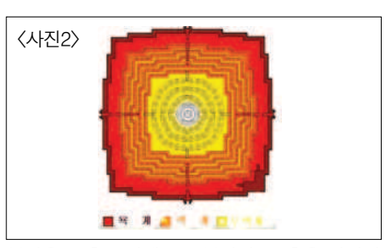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호 부터는 중국의 불탑을 중심으로 구조상의 변천과 불탑신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우인보

〈사진1〉

보로부두르 불탑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불탑으로 775년 경에 조성됐다. 힌두교를 숭상하던 왕실의 지원으로 쉬바신을 위한 사원으로 시작 했으나, 기단 부분만 만들고 중단 된 것을 불교를 신봉하던 사일렌드라왕조의 사마라둥가(Samaratungga)왕이 완성했다.

〈사진2〉

불탑은 10층, 3단계로 구분된다. 10층은 화엄경의 '십지'를, 3단계는 삼계(三界)를 표현했다.

〈사진3〉

보로부두르 불탑 각 층의 조각 내용은 한 질의 대장경을 방불케 하는 방대하다.

〈사진4〉

각 출입구의 양쪽에는 모두 64개의 사자상.

〈사진5〉

봉헌탑은 창살무늬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어 내부의 불상을 친견할 수 있다.

〈사진6〉

보로부두르 불탑의 구조에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만다라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 경전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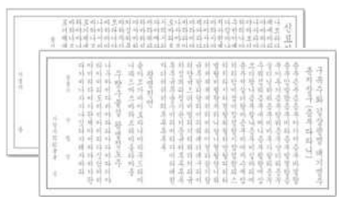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금지 관음도 액자 ※



금지 관음도 액자 6종
할인가 20,000원 (10점이상) 정 가 30,000원
• 포 장 : 골판지 • 크 기 : 38㎝×58㎝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2박스 이상 무료배송!



밀 대 (70개입) 한박스 90,000원
돈타레 (40개입) 한박스 90,000원
원기둥 (20개입) 한박스 90,000원



영가옷 B형-남 정가 1,3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D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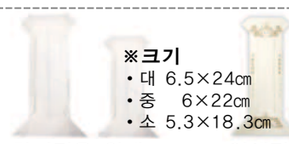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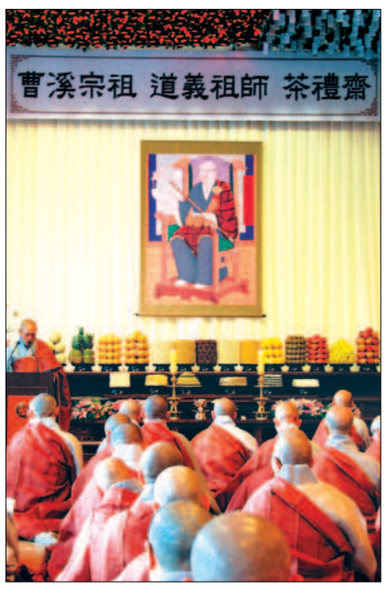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한국의 구법승
13. 조계종 종조 도의 스님

인고의 세월 넘어서 핀 '선불교'의 꽃



조계종은 매년 도의국사 다례재를 열고 있다.



석남사 조사전에 모셔진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진영.


울산 석남사에 있는 도의국사 부도탑. 가지산 석남사는 도의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이다.


지난 2008년 중국에 세워진 도의국사 입당구법비

도의 스님은 중국 6조 혜능 선사의 남돈선(南頓禪)을 신라에 최초로 전래한 스님으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고 있다. 도의 스님의 생몰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라하대가 시작되는 제37대 선덕왕(780-784)대에서 제41대 헌덕왕(809-826) 사이에 활약했다.

〈조당집〉(祖堂集) 권7 〈설악산진전사원적선사전〉(雪嶽山陳田寺元寂禪師傳)에 따르면 도의 스님의 성은 왕씨(王氏)로 법호는 명적(明寂), 시호는 원적(元寂)이다. 북한군(北漢郡 또는 北漢山)에서 태어났다. 전기에 의하면 그 부친의 꿈에 흰 무지개가 집안에 드리우고, 모친의 꿈에는 고승을 친견하는 태몽을 꾸고 어머니가 임신한 지 39개월 만에 낳았다고 한다.

도의 스님은 선덕왕 5년인 784년 당나라 오대산에서 공중으로부터 종소리를 듣는 등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 광부(廣府) 보단사(寶壇寺)에서 비구계를 받고 조계(曹溪)에 가서 육조(六祖)의 영당(靈堂)에 참배했는데 이때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한다.

다시 강서(江西)에 있는 홍주 개원사(開元寺)에서 서당지장(西堂智藏) 스님에게 법을 물어 모든 의혹을 풀고 지장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서당 지장 스님은 도의 스님을 보고 말하기를 '마치 돌틈(石間)의 아름다운(美玉)을 취하고, 조개 가운데 진주를 줍는 것과 같도다. 진실로 가히 법을 전하는 데는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리오' (조당집)라고 했다.

도의 스님라는 이름은 이 때 지어졌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도의 스님을 지장 스님의 제자 4명 중 계림도의선사(鷄林道義禪師)로 표기하고 있다.

도의 스님은 이어 백장(百丈) 회해(懷海) 선사를 찾아가 법요(法要)를 강의받았는데, 회해 선사는 "강서의 선맥(禪脈)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속하게 되었구나"(百丈曰江西禪脈摠屬東國之僧歟)고 칭찬하였다. 스님은 서당 · 백장 이대의 선법을 받은 후 당나라로 향한지 37년 만인 헌덕왕 13년(827년)에 귀국해 한국 선불교의 씨를 뿌린다.

784년 문수보살 감응 받아
서당지장 스님 가르침 사사
백상회해 스님 선법도 이어
827년 37년만에 귀국길 올라

한국 선불교의 씨앗을 남겨

도의 스님은 귀국해 선법을 펼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교학(敎學)만을 숭상하고 선수행을 이해하지 못했다.

도의 스님의 선법은 육조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서당지장-설악도의로 이어지는 정통 남종선의 활발발한 면모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화엄, 계율 등의 교학적인 불교가 유행했다. 이런 가운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주장하는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선법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도의 스님은 아직 선법을 펼칠 때가 아님을 깨닫고 달마가 숭산에서 9년간 침묵 속에서 기다렸듯이,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서 40년 동안 수행을 했다.

도의 스님이 가진 선사상의 개화는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는 가운데 한 세대, 그 다음 세대의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도의 스님이 지피려했던 선불교는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긴 침묵 속에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불립문자 등은 당시 파격
설악산에서 40년간 수행
보조체징 스님에 이르러 꽃펴
가지산문과 선불교로 이어져

도의 스님의 법은 제자 염거(廉居) 스님에게 전해졌지만 염거 스님 또한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음을 알고 긴 침묵 속에 수행에 전념하다가 제자 보조 체징(普照 體澄) 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하였다.

그 뒤 보조 체징 스님이 법을 받아 가지산에 보림사(寶林寺)를 짓고 종풍을 크게 떨쳐 일파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때 도의 선사를 제1세, 염거선사를 제2세, 자신을 제3세라고 하여 도의 스님을 가지산파의 개산조로 삼았다. 이로 인해 그는 신라에 처음 선을 전한 가지산문의 개조로 일컬어진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심인을 전하다

고려 말 진정(眞淨)국사 천책(天頙) 스님이 지은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는 도의 스님이 지원 승통(智遠僧統) 스님에게 한 법문이 수록돼 있다.

이 법문에서 도의 스님은 법계설(法界說)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심인법(心印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도의 스님은 교종인 화엄의 사법계설(四法界說)을 들으면 주먹을 곧이 들면서 이것이 무슨 법이냐 묻고, 또 일대장경은 무엇을 밝히는 것이냐 물으면 또한 주먹을 들어서 대답하는 등 문자를 세우지 않고 심인(心印)을 전한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신라 하대에는 신라 신분체계에 불만을 품은 육두품 이하의 많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당시 새로운 사상의 흐름인 선종불교를 배웠다.

이들이 귀국하자 당시 신라의 중심이었던 불교에도 큰 변화가 발생한다. 선불교의 도입은 당시 유행한 유가 내지 화엄교단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시대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선불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당시 분위기는 장흥 보림사의 '보조체징선사창성탑비문' 에도 잘 나타나 있다.

'처음 도의대사가 서당에게서 심인을 전해 받고 뒷날 우리나라에 돌아와 선의 이치를 설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경의 가르침과 관법(觀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교종의 법만 숭상하여 무위임운(無爲任運)의 가르침인 선종에 모이지 아니하고 허망하고 황탄하다고 여겨 높이 받들거나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마치 달마가 양무제를 만났지만 뜻이 통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도의스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산림에 은거하여 염거(廉居)선사에게 선법을 전하였다. 염거선사는 설악산 억성사에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여니 우리 체징(體澄)선사가 거기에 가서 그를 섬겼다.'

도의 스님은 기존의 교종불교가 의례화 · 형식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선불교가 수용되는 전환기에 사상적 선구자로서 인고의 세월을 살았다. 스님의 부도는 강원도 양양 진전사와 울산 석남사에 있다.

탑비문은 당시 선법이 허망하고 황탄하다 하여 신앙하지 않았던 모습을 전하고 있지만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선불교의 물결은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 스님의 선사상과 수행법은 한국불교의 정통이 되면서 수많은 수행자의 눈을 뜨게 하고 깨달음의 불빛이 되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 잘 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 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 2014년 3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이번 생 놓치지 말고 대오반성해야

법 신 ③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라는 이 도리, 그 당처, 이걸 알았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듣고 그만 알아버리네. 그러하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공부해 주신 거나 한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꿩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이 다겁을 통해서 각고수행하신 그것을 옴싹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하니 우리만큼 팔자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각고 고행을 했어.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칼에 잘리기도 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런데 우리는 말이지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이 각고 고행하신 그것을 옴싹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하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말이죠 한 번 생각을 딱 굳혀서 확 돌려버려. 그 마음씀씀이를 한 번 확 돌려버려. 이 돌리는 것이 몸을 한 번 뛰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말하지만 용녀가 부처님 말 한마디에 성불한 것 다 아는 거지만, 심지어 백정도, 돼지를 죽이는 백정도 말이죠. 백정이라 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술 안 먹으면 아무리 그거 해도 기분 안 날 겁니다. 술이나 먹을 줄 알고 돼지나 죽일 줄 알았다 뿐이지 불이라는 불자를 지가 말이나 들었겠습니까? 한데 돼지를 죽이는데 어쩌다가 칼이 숨통에 들어갈 때 꽥 하고 소리를 지를 것 아니겠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돼지의 눈동자와 자기의 눈동자가 딱 바로 정면으로 봤다 말이죠. 늘 보는데 그 날만큼이나 그 눈동자 자기의 눈동자와 돼지의 눈동자가 딱 마주쳤다 말이죠. 여기서 뭣인가 깨달았어요. 뭣을 깨달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칼 내버렸어요. 칼 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서 대도인이 됐어요.

부처님께서 각고 수행을 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건데, 그 도리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거 우리 거저 먹습니다. 나는 이거 단언합니다. 설법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로 설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참말로 여래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도리를 참 그렇구나 해서 실감이 여러분들이 난다면은 이 자리에서 벌써 부처 이룬 겁니다. 별것이 부처입니까? 별것이 어디 부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서 이루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은 그것이 있는 것이, 석가모니께서는 누만겁을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방편입니다만도 육년 동안 좌부동했다가 나중에 육년 만에 쓸데없는 고생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뭣이냐 말이여. 공연히 고생을 했어. 육년 동안이나. 그건 부처님의 경지에서 그래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시시비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우린 방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공연한 고생을 했어. 그

> **사람의 몸 받았을 때**
>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 **대오반성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 **이것이 내 거다 하면서**
> **불구덩이서 죽는 수밖에**
> **도리가 없다**

만 그대로가 부처인데 그만 그대로 본래 슬기, 이 육신을 끄집고 다니는 그 슬기자리가 부처인데 공연히 육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무정물인 이걸 고생을 시켰노 하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 참의심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말로 모처럼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사람의 몸을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오 반성해야 됩니다. 대오 반성 안 하면 그야말로 이것이 내 거다 이래 하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서 죽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도 아니지만 난 죽는다 생각하고, 나는 났다 생각하고 이래서 일생 보내려면 참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공부를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큰 도를 이루려면 우선 그 기틀과 연을 만나야 한다."

이거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으로서, 이 중생들이 많은데 어려운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좀 어렵긴 어렵겠어요. 이건 말 안하더라도 알겠지만 잘나나 못나나 그건 별 문제로 하고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몸을 받는데 남자의 몸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이리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까닭이냐. 그 생리가 달라.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계가 더 많은 것은 그걸 제거하는 약입니다. 처방입니다. 약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보다 남자의 몸이 공부를 하는데 좀 수월하다 하는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불도에 들기가 어렵다 이랬습니다.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은 받았어. 또 남자의 몸도 받았어. 그런데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은 말이지 그 법신에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다 이거 방편입니다.

그런데 불도를 만나기가 어려워. 참말로 이거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나의 경우로 봐서는 말이죠 절간이니 예배당이니 하는 것은 정신 빠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더욱 더 예배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절간은 술 먹는 자리로 알았거든요. 왜 술 먹는 자리로 알았느냐면 절간은 경치가 좋은 데 있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큰일 날 뻔 했어요. 하하하. 삼도지옥 영 못 면할 뻔 했습니다. 이런데 참말로 불도란 뭣이냐.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는 처소를 도장(도량)이라 하고, 이러한 도리가 불도인데 참말로 우리가 이 도리 몰랐으면 어찌 했겠습니까. 아, 이것만 내다 해서 어쨌겠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할 수 없다 하고 체념이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체념이란 말 말고 우리말로 뭐 있을 거여. 얼마나 답답해서 체념을 하겠나요. 체념을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요. 기가 막힐 거여. 그러면 그 고통, 체념, 이 놈이 나중에 뿌리가 돼서 다른 과를 만드네. 그 과가 좋은 과가 되겠나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信'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

⑧-1 상수불학(常隨佛學)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隨喜懺悔諸善根 廻向衆生及佛道
我隨一切如來學 脩習普賢圓滿行
勸脩淸淨波羅蜜 恒不忘先菩提心
滅除障垢無有餘 一切妙行皆成就
原共諸衆生往生安樂國

상수불학(常隨佛學)은 세 가지의 각기 뉘앙스가 다른 말로 풀이된다. ① 항상 부처님의 학문을 따라 배운다. ②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③ 항상 깨친, 어진 이를 따라서 배운다.

앞에서 우리가 수희공덕(隨喜功德)을 배우고 참제업장(懺除業障)을 하고 그런 것이 모두 결국에는 무엇을 이룩함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중생과 전 인류가 달성해야 할 부처님의 과업을 위하여 그 도(道)를 성취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데는 우리가 모든 여래를 따라서 배워야 하고 또 모든 여래의 학문을 따라야 한다. (我隨一切如來學) 그럴려면 널리 모든 선(善)을 닦고 보현(普賢)의 행원(圓行), 즉 보현보상과 같은 원만한 덕행(德行)을 쌓고 익혀 나가야 된다. 여래수행(如來修行)을 해야 된다. 진실한 알찬 수행을 하고 불방일(不放逸)하고 근수청정바라밀(勤修淸淨婆羅蜜)한다. 부지런히 맑은 바라밀(婆羅蜜)을 닦아나간다. 우리는 깨쳐야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수행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때 끼인 것, 장구(障垢)가 죄다 없어진다. 그런 다음 부처의 학문을 따라 배우면, 부처의 행동을 따른 정진(精進)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모두 다 낱낱이 성취되게 마련이다. 부처를 따라 배운다고 하지만 그럼 부처란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 내가 깨친다. 내가 똑바로 알고 깨쳐야 하고 또 남들을 깨쳐준다. 그리고 깨친 바를 행동으로서 실천한다고 이와 같이 배웠다. 우리말로 '깨친다'는 것은 붓다(Buddha), 즉 내가 불(佛)이다 하는 뜻이다. 불(佛)은 중국에서 각(覺)이라 하고 일어(日語)로는 사도루, 독일어(獨語)로 Erkenntnis가 이에 가깝고 범어(語覺)로 Buddha이다. 중국어로 각(覺)이라는 것은 學과 見이 합쳐서 된 것으로 보고 배웠다는 것이다. 일어(日語)의 'さとる는 さいとい'라는 말에서 되어진, 귀가 빠르다, 득 청각(聽覺)에서 비롯한 총명(聰明)을 뜻하는 말이다. 총명하다는 것은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

우리말의 깨쳤다는 것은, 누워 자다가 잠이 깨었다. 지금까지 꿈을 꾸다가 이에서 벗어났다. 이런 소리다. 또 하나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되었다 하는 말이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왔다. 즉 깨쳤다. 달걀이라는 막이 탁 터지어서 된 것. 잠 잘 때와 잠에서 깨친 때와, 그리고 달걀의 상태와 달걀에서 탁 깨쳐서 병아리가 된 것과는 완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귀로 듣고 알았다거나, 눈으로 보고 배우고 알았다는 등과 깨쳤다고 하는 것과는 척이나 대조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의 깨쳤다는 말은 확실히 중국어 일어와는 다르다. 부처는 되어진 것이며, 어디에서 되었느냐 하면 우리들 사람이 깨쳤으므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처의 불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말의 깨쳤다는 것이 중국어나

> **수행하고 바라밀을 닦아**
> **깨쳐 나가야한다**
> **수행은 믿음이 근본이며**
> **여기에 모든 과정이 들어있다**
> **信 · 住 · 行 · 廻向은 같으며**
> **무궁한 공덕이 있다**

일어보다도 훨씬 핍진하게 여실히 그려내었다.

수희(隨喜)와 참회(懺悔)라는,
중생과 부처에게 돌아가
배우려는 것.
모든 부처를 따라 배운다.
보현보살의 원만한 행동을
익힌다. 부지런히
맑은 바라밀(婆羅蜜)을 닦는다.
어진 마음으로
얽어매진 장구(障垢) 모두 말끔히 씻기어
착한 일 하던 행동,
끝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

여기서 '부처와 중생에게 돌아가', 하는 회향(回向)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오수의 한 단경인 십회향(十廻向)을 가리킨다. 오수는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지향(十廻向), 십지(十地) 등이다. 십지향까지 네 단계는 수행의 과정이다. 이를 간단히 풀이해 보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째 신뢰감이 가고 믿어져야 한다. 믿어졌다는 것은 그 믿음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거기 있다. 그것으로서 생활한다.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즉 신(信)에서 주(住)로 이행한 것이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는 수행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노릇을 한다. 실행한다. 하나씩 둘씩 실행한 그것을 잘했나, 되새겨 본다. 경험을 다시금 더듬어 본다. 앞으로 더 잘 해 나가야겠다. 한 일을 누구에게 돌려야겠다. 즉 잘된 일의 경험을 활용하게 모든 사람들, 중생들 전 인류를 향하여 다시금 크게 실천해 나가야겠다. 이것이 회향이다.

이렇게 보면 신(信), 주(住), 행(行), 회향(廻向)이 한 가지 같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딴 말로 표현을 달리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이것은 다 같은 얘기다. 앞에서 말한 십지(十地)도 역시 같은 것이지 별다른 것은 아니었다.

오수(五修)의 신(信), 주(住), 행(行), 회향(廻向), 지(地)는 다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같다고 통틀어 말해 버리면 수행자가 어리둥절하고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오수(五修)인 다섯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함으로서 좀 더 알기 쉽게 되었고 다시 이 다섯을 제가끔 열 개씩 세분하여 놨다. 그러므로 오수는 오십의 지위가 된다. 신(信)에 발을 들여 놓기 전의 범부는 일이고 신, 주, 행, 회향, 지(信住行廻向地)를 다 거쳐 오(五)십일이 되어 오수의 마지막인 등각(等覺)에 이르는데, 이는 부처와 꼭 같이 되었을 때며, 그 덕행의 과(果)가 가득 찼을 지경에 오십이로서 묘각(妙覺)에 달한다. 묘각이라 함은 부처님이다. 이렇듯 법무에서 불(佛)까지 오십삼(五十三) 위로 나누었지만 이것은 설명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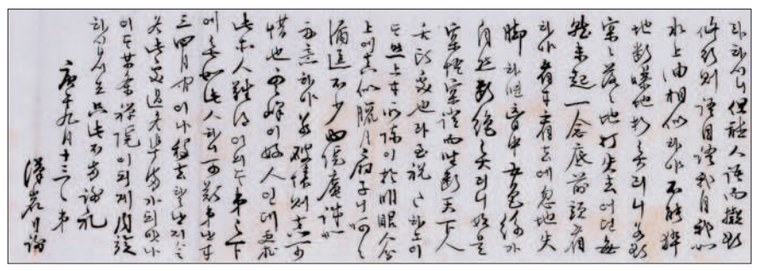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2〉

'悟後의 생애' 한암만의 어구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6)

오랫동안 적조하던 차에 한 통의 서신을 받으니 병중(病中)의 회포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신을 받아보고서 법체가 인연 따라 자적(自適)하다고 하니, 매우 안심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오후(悟後)의 생애(生涯, 깨달음 후의 보임)에 대하여 옛 선승들께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 조각 바위처럼 하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죽은 사람의 눈 같이 하라."고 했으며, 어떤 분은 "고독(蠱毒, 뱀, 지네, 두꺼비 따위의 독충)이 있는 곳을 지날 때 한 방울의 물도 묻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 보조국사(普照國師)는 《진심직설(眞心直說)》 십종식망(十種息妄) 편에서 첫째는 알아차림[覺察, 自覺], 둘째는 마음을 쉼[休歇], 그리고 열 번째 '체용에서 벗어남[透出體用]'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 간절하지 않은 법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묘(妙)를 터득한 후에야 얻어지는 것이므로, 이 몇 가지 법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오래도록 공부하면 자연히 묘처(妙處)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용(受用) 여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천 마디 만 마디 말들은 모두 나 자신의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옛 선승이 이르기를, "문으로 부터 들어온 것은 집 안의 보배가 아니다[從門入者, 不是家珍]."라고 하신 바와 같이, 그저 남의 말만 듣고 수행한다면 말은 말대로 나는 나대로가 됩니다. 마치 물 위의 기름 같아서 단박에 모든 망념을 끊어 버리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난[灑落]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항상 한 생각(망념)이 일어나기 전에 나아가 참구하고 또 참구하여 홀연히 화두를 타파[失脚]하면, 가슴속의 오색실[胸中五色絲, 번뇌 망상]이 자연히 끊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깨닫고 진실로 증득하면 그곳이 바로 천하 사람들의 혀(언어 문자)를 끊는 곳[坐斷天下人舌頭處]입니다.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빕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말한 것들은 눈 밝은 사람에게는 섣달 겨울의 부채[臘月扇子]에 불과합니다(쓸모없는 말이라는 뜻). 허허,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내원암(內院庵, 통도사 내원암)에 선방을 여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보내온 편지와 같이 계획을 파기하신다면 참으로 아깝습니다. 운봉(雲峰, 향곡스님의 은사)이 좋은 사람인데, 다시 이러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문하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으니, 탄식할 뿐입니다. 나는 이동한다면 내년 3,4월 사이에나 어디로 이동하고, 금년 동안거는 이곳에서 겨울을 지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선원(禪院)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하십시오. 이만 줄이고 답서(答書)의 예(禮)를 갖추지 않습니다.

경오(1930년) 9월 13일
한암은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해설] 이 편지는 경봉스님이 깨달음 이후의 삶[悟後生涯]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답서(答書)이다. 오후생애(悟後生涯)는 오후수행(悟後修行, 깨달음 이후의 수행)과 같은 말로 보임을 뜻한다. 한암선사는 오후의 생애(깨달음 후의 보임)에 대하여 옛 선승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깨달은 후 보임하는 방법은 마치 '한 조각 바위처럼,' '죽은 사람의 눈처럼' 일체 사물과 대상에 대하여 의식을 끊으라는 것이다. 또 뱀, 지네, 두꺼비 등 독충[蠱毒]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와 같이 독물이 한 방울도 묻게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국사의 《진심직설》의 십종식망(十種息妄) 편을 참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후생애(悟後生涯)' '흉중오색사(胸中五色絲, 俗塵, 번뇌망상)' 라는 말은 여타 선승들은 거의 쓰지 않는 한암선사 특유의 어구이다. 매우 문학적이고 현장감 나는 용어이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 불자들에게 불교의 밝은 미래 달려 있다"

조은수 교수 (불교학연구회장)

대학 진학에 실패한 재수생 시절, 불교를 접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고민한 한 소녀가 있었다. 매일 아침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목탁소리를 들으며 꿈을 키운 그녀는 마침내 서울대에 진학했고, 재수시절 받은 감화로 이윽고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돼 불교학의 세계화로 그 꿈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대 철학과 조은수 교수의 이야기다. 조은수 교수는 서울대 개교 60년 만에 처음으로 철학과에서 여교수가 된 이로, 세간의 주목과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힘든 재수생활, 조계사에서 불교 접해

조은수 교수가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인연이 작용했다. 사실 조은수 교수는 학부시절 약대를 나왔다. 전공분야가 전혀 다른 불교를 뒤늦게 공부해 세계적인 석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조 교수가 '약사의 길' 대신 '불교 철학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조계사 부처님의 가피였다. 40여 년 전, 조은수 교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서울 종로학원에서 재수 생활을 했다. 당시 종로학원의 위치가 바로 조계사 대웅전 앞이었다. 조은수 교수는 힘든 재수 생활 중 가슴이 답답할 때면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절도하고 앉아서 쉬며 마음을 놓였다.

조 교수는 "민감한 청소년이었던 그 시절, 대웅전에 앉아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치성한 마음이 솟으면서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지요"라고 말했다.

불교와 인연을 쌓은 조 교수는 마침내 1977년 서울대에 입학한다. 여기서도 조 교수의 신심은 높아져 갔다. 조 교수는 서울대 총불교학생회에 가입해 수업 시간에도 몰래몰래 철학과 수업을 듣곤 했다. 대학에 진학해 접한 인도철학자 라지니쉬의 저서는 조 교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라지니쉬는 당시 서구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은 철학자 중 한명이었다.

"제 대학생활은 불교학생회 선후배들과 함께 토론하고, 여름이면 사찰수련회를 가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컸어요. 철학서를 보고 불교학생회에서 동기, 선후배들과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해인사에서는 성철 스님께 가서 배우고, 또 혼나기도 했죠. 그 때 불교학생회는 그 속에 진리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삶의 하나였어요."

불교에 심취한 조 교수는 약대를 졸업 한 후 부모님 몰래 서울대 철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철학을 하는 여성이 많지 않던 시절,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굳은 결심 하에 미국 유학, 교수의 길 걸어

서울대 철학 대학원은 동양철학뿐만 아니라 서양철학 등 여러 학문을 두루 배우는 기회가 됐다. 석사를 마친 조 교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도전하는 것을 선택한다. 바로 미국 유학이다.

"그때는 대학원에 불교 쪽 교수님은 심재룡 교수님 한 분셨어요.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해 아이도 6살이었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죠. 그런데 미국의 좋은 점은 대학원에 입학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그 것을 보장해준다는 거였죠. 과감히 미국행을 결심했어요."

7년 만에 버클리대에서 '아비달마'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조교수를 지내게 된다. 이후 7년을 합해 총 15년 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그녀는 2004년 8월 교수로 모교인 서울대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서울대학 차원에서도 동양철학,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입니다. 한국사회가 크게 변화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예전과 달리 여성이기에 받는 차별이 줄어든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불교를 공부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불교

재수생 시절 조계사에서 불교와 인연
서울대 불교학생회에서 불심 다져
철학 대학원 진학 후 본격적으로 공부
美버클리대서 박사 후 미시간대서 교수

2004년 한국 돌아와 후학 양성 매진
GEP 프로그램 등 글로벌 역량 강화 나서
한국불교학계, 세계불교학계와 소통에 앞장
"교육이 처음이자 끝" 인재 양성 강조

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된 건 모두 부처님의 가피 덕분입니다."

세계불교학회와 소통하는데 앞장

조은수 교수는 현재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젊은 학자들이 세계불교학계와 소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규장각에서도 연구 활동을 하며, 서울시 마포 대안학교 이사장 등 다양한 일을 맡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맡아 불교학계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그 안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불교철학을 연구하고자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있다.

"오는 8월이면 제가 귀국한지 10년이 됩니다. 첫째는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고하신 은사 심재룡 교수님의 발자취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되요. 둘째는 제가 한국사회, 학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조 교수는 故심재룡 교수에 대해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토론하길 즐겨했다고 회고했다. 조 교수는 "교수님은 한국 선불교 전통의 정체성을 학문의 장 속에서 이론적으로 확립하신 분"이라며 "고려 보조지눌에 의해 정립된 선의 이론과 수행법이 조선 불교수행 규범으로 계승된 점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돈오점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후에 성철 스님에 의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학문적 논변의 계기가 됐고, 그런 논변 하에 한국불교의 학문은 더욱 풍성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런 점에서 이러한 활발한 논변이 학계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학자들의 수준은 매우 높아요. 다만 그 수준이 이론을 세우거나 학문적 논변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는 "불교학계에 10여종의 학술지가 있고, 많은 논문이 양산되고 있지만 일방적인 배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조 교수는 한국불교학계가 세계불교학계와 소통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해외에서의 한국학자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입니다. 일본학계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일본불교가 세계학계에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지속적인 소통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조 교수는 한국학계가 적극적으로 세계대회 등에 참여해 논문 등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해외 여러 학자들이 말합니다. 한국불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고요. 이는 한국학자들의 잘못이 커요. 함께 소통하며 이들에게 정보를 줘야 합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불교학회(IABS)에도 참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북미-유럽-일본 학자들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 교수는 2011년 태국 IABS대회에 박경준 교수, 서재영 박사, 이도흠 교수 등과 한국불교의 환경보호 운동에 대해 발표를 하기도 했다.

"불교학계에서 소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불교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학자들과 교류라며, 해외 발표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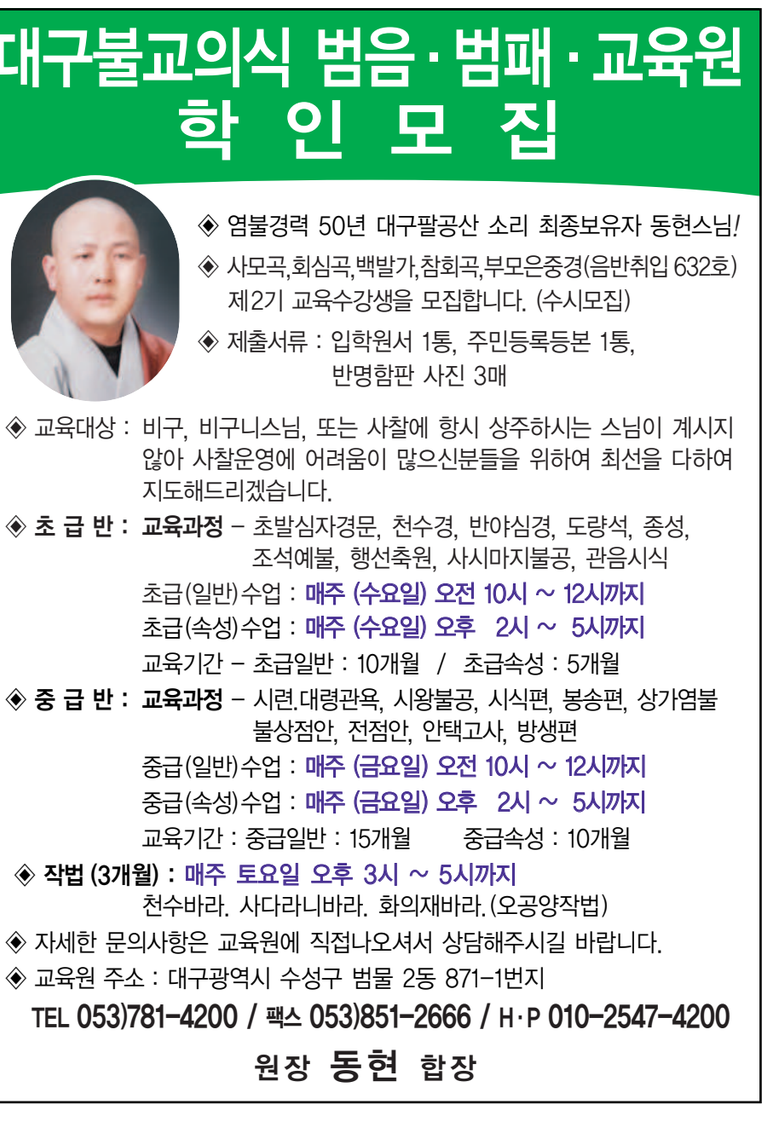
이러한 조 교수의 영향으로 올해 8월 비엔나에서 열리는 IABS에는 서울대 석·박사 10명이 발표를 한다.

불교 여성의식 신장·교육 발전에 기여 할 것

조은수 교수는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연합 부회장 등을 맡아 불교여성인권 신장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불교 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불교 명맥을 이어간 것은 재가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치를 단순히 기복불교라고 해서 폄하 받는 것이 현재 불교계의 시선입니다. 사찰에서 여성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의식화하고 교육시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조은수 교수는 …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 박사과정 수료 후 도미하여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 미국 미시간 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학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2004년 이래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교 철학 전공. 논문으로 '원효에 있어서 진리의 존재론적 지위', '불교의 경전 주해 전통과 그 방법론적 특징', '범망경(梵網經) 이본을 통한 고려대장경과 돈황(敦煌)유서(遺書) 비교연구', '종교적 신앙심과 마술적 영험 – 삼국유사의 불교적 읽기' 등이 있다. 저술로는 〈Korean Buddhist Nuns and Laywomen: Hidden Histories, Enduring Vitality〉 (SUNY Press, 2011), 〈Jikji simgyeong〉 ('직지심경' 2인 공동 영역)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초대 소장,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기록문화유산 출판소위원회 의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장을 역임. 현재 불교학연구회 회장,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연합 부회장을 맡고 있다.

조 교수는 "오히려 여성들이 스스로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과 재가 여성이 불교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수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샤카디타 여성불자국제협회(Sakyadhit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에서 활동하고 있다. 샤카디타는 '석가의 딸들'이라는 뜻으로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 여성단체로 세계 45개국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조 교수는 샤캬디타 개최하는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논문집을 한글로 번역해 출간하는 한편 국내외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 불자들의 교류 증진을 통한 국제불교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조은수 교수는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도 교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GEP는 불교계의 여성인재,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1년에 한 차례 2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 개설해 12주 간 영어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하는 B-GEP도 명법 스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여성불교지도자 렉세 소모 교수와 대담을 나누는 조은수 교수



2013년 인도 바이샬리에서 열린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한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비구니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B-GEP)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2011년 제1차 GEP 수료생들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서 논문 번역서를 만들고, 컨퍼런스 발표 통역을 수행하는 성과를 냈으며 제3차 수료생들은 인도 바이살리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해 통역과 번역봉사자로 활약했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 교수의 꿈은 무엇일까. 조 교수는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난 3월에 뉴욕에서 미국고등교육재단 장학금 심사를 진행했다"며 "세계에 불교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홍콩의 부호 로버트 호가 기부한 기금으로 수백 명의 교수와 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이어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 세계적인 학자를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이 처음이자 끝이죠. 불교정신에 입각해 세계에 당당히 활동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조 교수는 "교육은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불교정신에 입각해 세계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함께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인터뷰 하는 내내 조은수 교수에게서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이미지가 물씬 풍겼다. 부드러움, 우아함 속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향기가 조은수 교수에게서 느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나의 첫 상좌 '오복 스님'

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소년이 대둔사로 찾아왔다. 소년은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김승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며칠 전 전화를 주셨던 도리사 법등 큰스님의 신중한 음성이 떠올랐다. "선근이 있어 틀림없이 스님이 될 인연이 있는 학생이 있으니 잘 키워봐라"

스님은 내게 밑에 거둔 제자가 있냐고 물으셨다. 정신없이 대둔사와 이주노동자 센터,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오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르칠 처지가 아니었다.

기특하게도 승재는 도착한 날부터 새벽 5시 예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다. 내가 처음 출가할 때 스승으로 모시려던 분이 더 좋은 스님이 계신다며 소개했던 것처럼 승재도 큰스님의 소개로 내게 왔으니 참 희한했다.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함께 하는 동안 승재에게 스님이 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었다. 성실하고 순한 아이가 거친 수행의 길에 들어선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 한켠이 찌르는 듯 아렸다.

당시 대둔사에는 승재 외에도 2명의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

실상 순한 승재는 동생들 등살에 늘 당하고 살았다. 용돈을 주면 번번이 간식비로 뺏기고 방청소는 혼자 다 했다. 동생들이 말썽을 부리면 형이라는 이유로 대신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래도 억울하다는 말대꾸 한번을 안 하고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혼내는 나를 미안하게 만들었다.

승재가 변한 건 고3이 되어서 였다. 3박 4일동안 자전거로 220km 제주일주를 하러가자는 말에 못 간다고 반기를 들었다.

"스님, 저 수험생이에요."

지난 학기까지 내 말에 순순히 따르던 아이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했다. 수능준비를 하는데 말이 되냐는 눈빛이었다. 2년전 처음 절에 왔을 때 대둔사행 버스타는 곳을 사람들에게 묻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했던 승재에게 커다란 변화였다.

"승재야! 너 지금 공부하니까 제주도 갈 시간이 없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라. 제주도 자전거 도전이 힘들거라고 생각해서 은근히 빠지려는 거지?"

한참을 머뭇거리던 승재는 통일청소년들과 제주행에 동참했다.

승재는 비록 부모의 권유로 절에 보내졌지만 두 번의 봄과 겨울을 함께 보내면서 단순히 절에 맡겨진 아이가 아니라고 느꼈다. 승재를 불렀다.

"학교를 졸업하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래 고민이 끝났니?"

"네, 그런데 스님, 제가 스님처럼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울컥했다. 그동안 승재에게 머리 깎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래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가거나 기술을 익혀 회사에 입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림 · 박구원

오래전 스승이 내게 했던 말을 승재에게 해주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일 수 없다는 것' 만약 승재의 출가 의지가 약해졌다면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뒤를 이을 제자를 만났다는 것에 든든함이 느껴졌다.

승재는 지난 2월에 사미계를 받았다. 21일간의 집중 교육에서 오후불식과 3천배 과정을 당당히 극복하고 승복을 입었다. 법명을 무엇으로 지을까 궁리하다 '깨달음을 얻고 복을 지으라'는 의미로 깨달을 悟. 복 福. 오복스님으로 결정했다. 마침 나의 법명에도 깨달을 오가 들어가 있으니 만일 승재가 계속 승려의 길을 간다면 '진오스님을 따라 복지사업을 펼치라'는 의미로 해석하니 일석이조의 법명이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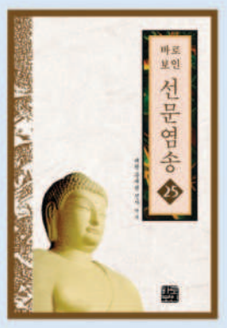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6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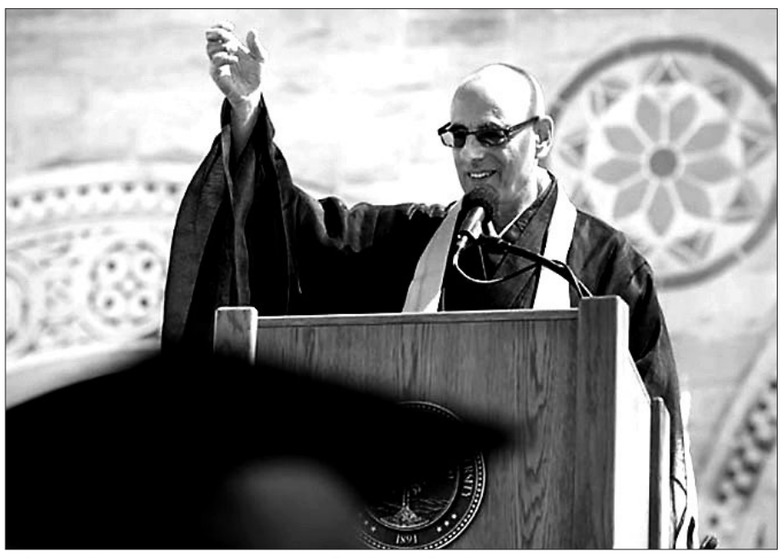
美 스탠퍼드대 졸업생에게 던진 선승의 일갈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2014년도 졸업식에 매일 선 재단(Everyday Zen Foundation) 설립자인 조케츠 노먼 피셔(Zoketsu Norman Fischer, 이하 '피셔') 스님이 초청 강연을 맡아 화제다.

스탠퍼스대 기관지 〈Stanford News〉 지는 "샌프란시스코 불교계의 지도자 중의 한 분인 피셔 스님이 지난 16일 대학 본관(Main Quad)에서 열린 2014년 졸업식의 초청 연사로 나섰다"며 "이날 피셔 스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자신의 영적 세계를 계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Stanford News〉 지에 따르면, 졸업식 때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명사를 초청, 졸업생을 위한 강연을 진행해온 스탠퍼드대 운영위원회가 올해에는 샌프란시스코 선센터를 운영하며 명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호스피스 등 지역 복지에도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며 대중의 귀감이 되어온 피셔 스님을 초청했다.

'약속,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를 주제로 초청 연단에 선 피셔 스님은 "여러분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며 한 맹세를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라고 스탠퍼드대학 졸업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면을 다잡는데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며 "명상과 같은 영적 훈련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졸업생에게 닥칠 사회적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매일 선 재단(Everyday Zen Foundation) 설립자인 조케츠 노먼 피셔(Zoketsu Norman Fischer) 스님은 6월 16일 스탠퍼드대 본관 메인 쿼드(Main Quad)에서 열린 2014년도 졸업식에 초청 강연을 펼쳤다.

"영적 훈련으로 사랑과 연민의 가치 찾고 실천해야"

노먼 피셔 스님, 스탠퍼드대 졸업식 초청 강연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적 훈련은 사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품었을 세속적 성공을 실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 피셔 스님은"육체적 건강, 화목한 가정, 윤택한 생활, 언론의 주목 등과 같은 '성공' 에만 주목한다면 '영적 훈련' 은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영적 훈련이란 성공이라는 것에서 또는 성공에 주목한 '나' 에게서 한발자국 떨어져 '보고', '만지고'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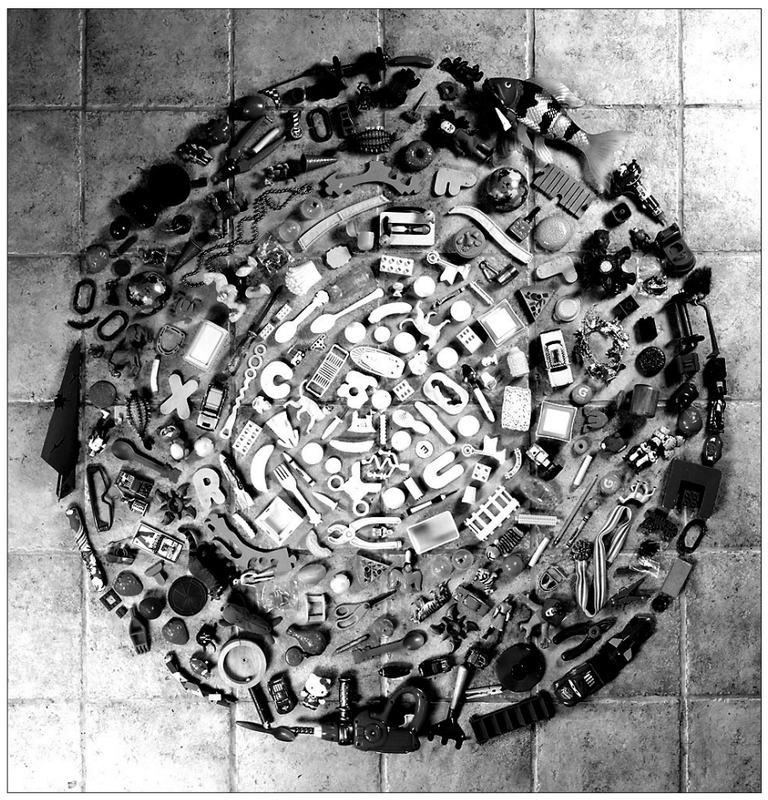
〈Stanford News〉 지에 따르면 피셔 스님은 스탠퍼드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매일 선 운동(Everyday Zen Movement)' 을 주도하고 있다. '매일 선 운동' 은 시공을 초월한 일상적인 명상을 권하는 것으로, 명상을 통해 '사랑이 움트고 자신과 주변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연민이 싹트는 것' 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Stanford News〉 지는 "지난해 처음 캠퍼스에서 소개된 '매일 선 운동' 의 참여 재학생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며 "스탠퍼드대 운영위원회에서 피셔 스님에게 초청 강연을 의뢰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졸업생 부러(K. Buhler) 씨는 "사랑과 연민이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피셔 스님의 가르침이 깊이 남는다"며 "피셔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졸업식장에 '포용의 온기' 를 가득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또한 졸업생 테일스만(T. Talisman) 씨는 "피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주변의 친구를 유심히 살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그것은 그들에게서 자부심 외에도 '사랑' 과 '연민' 을 들춰내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소중함이 더해지기 충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이 열린 스탠퍼드대학 본관(Main Quad)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선센터의 일군의 스님들이 준비한 진언을 암송하고, 노래와 춤 공연 무대를 선보이는 등 '불교식 졸업 의식' 을 시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가재도구 만다라

완벽하게 정돈된 집. 누구나 꿈꾸는 이상일 것이다.
집안에 흩어져 있는 가재도구가 만다라가 됐다. 미국 출신의 스테판 힐러브랜드와 메리 맥서먼은 집안 구석구석 흩어져있는 가재도구에 질서를 부여했다. 소비주의에 휩싸인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동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은 계속해서 서랍과 선반을 점령한다. 두 명의 작가는 물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맹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만다라는 소유안에서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 배현진 기자

이슬라마바드, 고대 중요 불교성지

청동기시대로 추정된 '소 그림 도자 파편' 발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불교 성지임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인 '소를 그린 테라코타 파편' (사진 아래 왼쪽)이 발견됐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가 고대에 중요한 불교 성지임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발견됐다고 〈Tribune〉 지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립예술대학(이하 'NCA') 발굴조사단이 탁실(Taxil) 지역의 불교 유적지 인근에서 그리스 · 로마 시대의 유물과 유사한 암석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를 그린 테라코타 파편' 이 발굴됐다.

발굴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무하마드 빈 나비드(Muhammad Bin Naveed) 교수는"테라코타 파편과 암석이 발굴된 말갈라(Margalla) 산은 중동 지역에서 간다라 지역으로 들어오는 중요 통로"라며 "불교의 중요 상징인 소 그림의 테라코다 파편 등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간다라를 지리적인 축으로 불교의 교세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라고 의미를 더했다.

〈Tribune〉 지는 발굴조사단의 수석연구원 키치(Khichi) 박사의 말을 인용, "NCA의 발굴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로, 향후 정밀조사가 시작되면 불교의 확장 경로를 분명히 하는 데에도 적잖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리랑카 불교 · 이슬람교도 충돌 3명 사망

불교 극단주의 단체 공격으로 75명 중상

스리랑카 남부 지역에서 불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간에 충돌이 벌어져 3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6월 16일(현지시간)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들 간 충돌로 최소 3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사망했으며 75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전날 15일 밤에는 알루트가마 마을에서 발생한 이번 폭력 사태로 수십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스리랑카 경찰은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날 불교 극단주의 단체인 '보두 발라 세나' 의 대표 법사가 설법을 한 직후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두 발라 세나' 단체는 최근 수년 동안 반 이슬람주의 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에서는 전 국민의 70%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는 7.5%로 소수 종교에 해당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스리랑카 알루트가마에서 이슬람 교도의 집이 극단주의 불교 단체의 공격으로 불에 탔다.

호주, 말레이시아 스님 은행 계좌 동결

자금세탁 국제조직 관련성 제기…430만 달러 '묶여'

말레이시아 불교계 '반발'…멜버른 사원 건축 정재 주장

호주국립은행(National Australia Bank)에 개설된 말레이시아 비구니 스님의 계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빅토리아〉 지가 6월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 경찰과 검찰이 비구니 스님의 계좌를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조직의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좌에 있는 430만여 달러(약 43억여 원)을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비구니 스님과 국제적인 자금 세탁 조직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존 딕슨(John Dixon) 연방 판사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협조로 쿠알라룸푸르 소재 해당 비구니 스님의 사찰을 수색한 결과 마룻바닥 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을 찾았다"며 "이런 점은 비구니 스님의 혐의에 무게를 더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 머물러 있는 비구니 스님은 "계좌에 있는 돈은 호주 멜버른에 사원을 세우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며 "멜버른에 세워질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 종교적 박해의 피해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호주 연방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호주국립은행(NAB)은 말레이시아 비구니 스님 계좌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조직의 것으로 판단하고 계좌를 동결시켰다.

"현재 비구니 스님과 관련 말레이시아 불교계는 '종교 탄압' 이라고 주장하며 동결된 예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전한 〈빅토리아〉 지는 "반면 딕슨 연방 판사는 비구니 스님의 국립호주은행 계좌는 말레이시아 고소득층의 탈세를 위해 개설되었다는 데 혐의를 굳히고 있다"며 "호주 연방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저자 송준영 선생이 말하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 책의 제목이 뭔가 큰 느낌을 주는데 무슨 뜻인지요?

'황금털사자'는 선시에 나타나는 '금모사자(金毛獅子)'의 한글 번역입니다. 문헌상 처음 금모사자란 이름이 보이는 것은 당대에 어떤 선사가 조주 선사에게 준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나더라도/정안에 길조가 아닐 텐데"라는 게송에서 보입니다. 중국 오대산 청량사는 화엄종의 4조 청량국사를 기리어 건립하였는데, 청량국사가 설법할 때에는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황금털사자란 우리의 본원의 면목을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선시에 보이는 무한실상의 표현입니다. 흔히 선가에서 이르는 부지(不知)니 불식(不識)이니 불회(不會)의 형상화입니다. 이 책에서는 근현대의 선지식이 우리에게 흘러 보내는 자비심의 실상, 이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 선시를 통해서 선사들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도 전문적 안목을 필요로 하고 선시도 그렇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시가 조사들의 가풍을 이해하는 좋은 창이 될 수 있을까요?

조사님들의 선시는 모두 중생의 눈을 뜨여주려는 자비심의 발로였습니다. 시인은 새로운 미학, 즉 시인이 본 이면의 세계, 피어나는 찰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언어로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라면 선장들은 생동하는 우리 삶을, 에너지를 이념이나 되새김 없이 바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와 선이 서로 만나집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선시는 우리는 본원지, 대자유지인 실상에서 만나게 하는 데 반혀져 있는데 반하여, 시는 시라는 장르에 의해 써진 언어의 아름다움인 미학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선시이던 모두 중생을 눈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읊어졌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문장이나 전승된 문장이냐는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선시는 문학의 관심과는 1차적으로 직결된다기보다 선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표현되어지지 않는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선시 고유의 수사학이 발달되는데, 이것이 선시의 반상합도, 선시의 초월은유, 선시의 무한실상 등의 모순적 어법에 의해 합도 되는 다른 빼어난 세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시의 표현법은 이미 10000여년 계승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위의 수사법은 아방가르드 시나 후기현대주의 시의 중심 사상을 울기는 수사학과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시를 잘 이해하므로 조사들의 가풍은 물론 실험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책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요. 자료 수집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허 스님에서 전강 스님까지 11명 선사들의 게송-상당법어나 소참법문-직접 쓴 서문이나 서간문-투고 글-대담-선사의 대기대용-선의 법맥-선화로 본 행장-연보 등이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문도회서 만든 어록이나 법어,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한 근거 있고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정하여 뮦었습니다. 그리고 문도회에서 직접 묶은 어록이 없을 때는 그의 스승이나 제자의 어록들을 찾아 제 편집하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찾아 나서다 보니 턱없이 부족하여 구술된 자료들도 문증하여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책은 '한국의 선시 1'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경허 스님에서 전강 스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시리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2권의 자료가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암, 금오, 청담, 탄허, 성철, 서옹 등등의 제 선사들의 선시와 선, 2권 역시 12명의 선사를 기록할까 합니다. 특히 1권에서 자료부족으로 싣지 못했던 혜월 선사에 대해 기록할까 합니다. 혹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수월 선사와 혜월 선사의 자료를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이면 제2권이 간행될 것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

장종천 편역 | 신국판 양장 | 926쪽 | 33,000원

붓다의 본생과 탄생, 성장과 출가, 수행과 전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붓다의 감동적인 생애가 펼쳐진다.

방대한 아함의 불음佛音을 한 권으로 쉽게 풀어 엮은 책으로, 붓다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생활, 45년 간 펼친 방대한 가르침의 에센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목숨을 건 수행과 통찰,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상한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쉬임없는 전법활동……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게송!

부처님, 나의 부처님



- 일백오십찬불송 -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 찬가!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종파를 초월하여 인도의 모든 수행승들이 계를 암송한 후 바로 배우는 게송으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은 불교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영어본, 우리말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게 엮었다.

마트리체타 지음·의정 한역·S. 담미카 영역·허만항 한글 번역
신국판 | 25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세상 노래

해성 스님의 찬불가요 2집 '소리의 향기' 발매

"장애인 포교를 하면서 2000년도에 자연스럽게 첫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햇수로 14년 만에 다시 음반을 내게 되었네요. 병원 · 장애인시설 · 요양원 · 군부대 등 사회복지 현장 곳곳에서 공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찬불가에 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펼치고 있는 해성 스님(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이 찬불가요 2집 '소리의 향기'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 '소리 꽃' '공덕의 밭' '모두 성불합시다' '날마다 좋은 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등 11곡이 수록되었다.



해성 스님의 찬불가요 2집 '소리의 향기' 표지

오랜 시간 장애인 포교를 펼쳐온 스님인 만큼 타이틀 곡인 '우리는 모두 하나'에서는 장애 ·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마음을 담았다.

장애 · 비장애인 하나 되는 세상 '발원'

"우리는 모두 하나 너와 내가 둘이 아니죠/ 함께 하는 그런 세상 우리 모두 만들어 봐요/ 사랑과 자비의 손 꽃 마음 따라 피어나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희망의 향기 되어/ 아름다운 행복의 문을 끝없이 열어주는/ 우리들의 사랑의 손길 자비의 메아리여"

해성 스님이 작사하고 능인 스님이 작곡한 이 노래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를 통해 자비의 세상을 이야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효사상을 담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눈길을 끈다. "병원법당에서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를 어머니라는 노래로 부르게 되었어요. 전국 병원을 돌며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음반을 내면서 아버지 노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다 보니 모두가 제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해성 스님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서울시 북부병원법당에서 매달 1회씩 능인 스님을 초청해 환자들과 함께하는 음악법회를 열고 있다.

효사상 담은 '아버지' 등도 눈길

스님은 이번 음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찬불가를 통해 정화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비의소리 대표 반영규 거사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능인 스님 등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찬불음악 작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전통의 재구성으로 현대美 찾는다

박대성 화백 '원융' 전… 가나아트부산 7월 12일까지

전남 화순 쌍봉사의 가을밤, 축 늘어진 단풍은 지붕 위를 장식하고 달은 은은하게 세상을 비춘다. 하늘색 연못 위에 오리가 노닐면 쌍봉사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든다. 그것은 이미 밤이 밤이 아닌 가을이 가을이 아닌 그런 세상이다. 바로 작가가 꿈꾸는 이상향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소산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 '원융'이 7월 12일까지 가나아트부산에서 열린다. 가장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통해 역설적으로 현대적 감각을 보여주는 박대성 화백의 작품들은 한국화의 근본을 지키는 동시에 현시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늘 새로운 느낌으로 관람객들을 찾는다.

10여년간 경주에서 작업해온 작가의 신작들에서는 전통의 풍경과 정신이 오롯이 느껴지며,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역사의 현장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만월' '담월' '화우' 등에서 볼 수 있는 연못 위 오리의 등장이다. 박 화백은 이 작품들에 과거 산수화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한다.

"한국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을 중요시 하죠. 이런 관습에서 탈피해 이 작품들에서는 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 화면을 새롭게 구성해 봤어요. 연못 속에 노니는 오리를 디자인적 형식으로 가미해 재구성했죠. 전통을 소재로 하지만 현대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미술에 심취한 작가는 도자기 자개함 등을 '고미'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다. "제가 한국 유물들에 관심이 많아요. 유물 속에서 고미(古美)를 발견했죠. 일종의 정물화지만 바탕부터 칠해 나가는 서양 정물화하고는 달라요. 백지 위에 그대로 정물을 그려내 유물의 특징을 살렸습니다."

이는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원융(圓融)'에 근거한 작업들이다. 작가적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작품들은 어떠한 현상도 각각의 속성을 지닌 채, 동시에 서로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는 '원융'에 이른 것이다.

쌍봉사 등 전통건축 배경으로 연못 위 오리 '디자인 기법' 응용

'원융'은 이렇듯 시공간을 초월하며, 정신적 조화를 이루려는 작가의 노력과 상통한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립되는 각각의 속성을 더 높은 차원에서 거대한 하나의 순환으로써 융합하는 일은 박 화백이 일생 통해 추구해 온 심미안과 다름없다.

경주 삼릉에서 작업하면서 늘 명상과 산책을 하며 내면을 들여다 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박 화백.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인간 근본을 연구해 가고 있다고 한다. 작가는 이렇게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작품에 투영시킨다.


수묵으로 풍경을 표현한 '선바위'


전남 화순의 쌍봉사를 배경으로 한 박대성 화백의 '담월'. 작가는 전통속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화풍을 펼쳤다.

"뭔가 크게 계획을 세워서 제 작품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 속 내면의 성찰을 통해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제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죠."

그의 행보는 바쁘다. 8월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출품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9월경 창원에서 중국 · 일본 · 한국 · 대만 작가들과 함께 서예전 '문자전'을 개최한다. 또한 올 연말에는 경상북도 · 경주시 ·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투자해 경주엑스포 단지 안에 조성한 박대성 화백의 개인 미술관도 개관한다. (051)744-2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자연의 세계를 조형 언어로

이도연 개인전 6월 26일까지 스페이스선+서

이도연 작가가 6월 26일까지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머무르다' 전을 펼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 자연과 교감을 통해 인간이 정화되고 무한한 생명력을 찾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명상 공간 속에서 자연의 무한함과 경건함을 발견한 것이다.

자연의 무한한 세계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한 이도연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바쁜 일상과 도시의 건조함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도록 한다.


자연의 세계를 담은 이도연의 '메모리 1'

한편, 이도연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회화판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으며 유중창작스튜디오 퇴실 릴레이전, 푸른 기억 등의 전시를 펼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천진불이 빚어낸 불심의 세계

경주박물관 '제30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빚기 대회' 수상작 전시

그리기 으뜸상 '부처'의 박재민
빚기 으뜸상 '금동불입상' 황유솔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제30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빚기 대회' 우수 작품 전시회가 8월 31일까지 박물관 강당에서 연다.

경주박물관은 지난 5월 26일 열린 '제30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빚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경주와 포항, 울산 지역의 초등학생 396명이 참가해, 119명의 어린이가 입상했다.

그리기 부문 으뜸상은 '부처'를 그린 박재민(나원초교 4학년) 어린이가, 빚기 부문 으뜸상은 '금동불입상'을 만든 황유솔(유림초교 4학년)어린이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버금상(경상북도지사상 등)12명, 솜씨상 33명, 꿈나무상 7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주박물관은 "우리 문화재를 감상한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빚기 부문 으뜸상 황유솔의 '금동불입상'


버금상 이성욱의 '불국사 삼층석탑'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17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코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문화人

禪 정신 카툰에 투영 친근감 위해 다양한 작업 시도

명상카툰 작가 용정운 씨


명상카툰 작가 용정운 씨는 부다일러스트를 시작으로 명상카툰을 그려왔다.

'목탁소리' 통해 불법 만나
부다일러스트 작업 시작
일곱살 딸 읽을 수 있는
불교 동화책 발간 '발원'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한 회사의 홈페이지 디자이너로 일하던 그녀는 여느 커리우먼처럼 예쁜 옷 사입고 맛있는 음식 사먹는 것을 행복으로 삼았다. 하지만 늘 머릿속에는 불교미술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법상 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행모임 '목탁소리'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인생에 변화가 왔다. 불법을 만나게 되었고 청년회 활동을 하며 생활 속에서 수행의 묘미를 알아갔다. 또 불교를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발원한 그녀는 부다일러스트를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세상에 명상카툰을 알려나가기 시작했다.

명상카툰 작가 용정운 씨(43)의 이야기다. 2005년 성우 스님의 저서〈산사일기〉의 삽화를 시작으로 '현대불교신문' '봉은지' 통도사월간 '보궁'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등의 연재는 물론 능행 스님의 저서〈이 순간〉, 그리고 본인의 글 · 그림을 실은〈일상에서의 작음 깨달음〉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명상카툰을 알려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처음에는 왜 불교계에는 불교를 소재로 하는 카툰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당시 광수생각 등으로 카툰이 유행하던 때여서 불교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죠. 워낙 불모지에서 혼자 시작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많이 격려해주셨고 또 도와주셨죠. 특히, 첫 연재를 펼쳤던 현대불교신문은 저의 데뷔 무대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 작가는 최근 불교방송의 캐릭터 제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천진동자를 단순화한 형태에 불교기의 색깔(청 · 황 · 적 · 백 · 주황)을 기본으로 '합장한 보리', '카메라 감독 보리', '연꽃부처님 보리', 'I♥BBS 보리', '목탁을 안은 보리' 등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불교방송 캐릭터도 2012년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 수상 당시 사회를 보면서 인연 맺었던 장수연 아나운서가 연락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불교의 오방색 이미지를 각 캐릭터에 대입해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불교 소재로만 작업하는 용 작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선적인 느낌을 작품 속에 투영하는 것이다.

"의뢰받은 글을 삽화로 표현할 경우 선적으로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해요. 계속 마음을 투영하다 보면 표정이 느껴지고 이를 이미지에 반영하죠. 또한 대중을 위한 이미지인 만큼 단순하고 친근감 있게 그려내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결국 내 마음이 그림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취침 전 명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7세 된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육아를 병행하며 춘천의 한적한 곳에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 딸이 읽을 수 있는 불교 동화책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딸아이에게 불교책을 읽어주다 보면 궁금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은 어디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본만 해도 함축적 의미의 짧고 감동적인 동화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해요. 불교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동화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용 작가는 앞으로도 불교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으면서 불교적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들로 대중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말한다. "불교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많은 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들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BS 캐릭터 '보리'


일러스트 '연꽃에서 피어난 동자승'



일러스트 '일상에서의 깨달음'

풍경 속에서 캐내는 무상의 그림자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㉖ 여주 신륵사 ㊦




신륵사 동쪽 암벽 위의 강월헌 앞의 삼층탑은 나옹스님의 화장터임을 말해준다.

배 타고 남한강 거슬러 올라

요즘 자전거를 타고 서울의 한강을 거쳐 팔당 양평 이천 충주로 달리는 '남한강 종주코스'가 인기다. 조선의 선비들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여강을 거쳐 충주까지 가는 코스를 좋아 했다. 그런 코스를 유람하는 것은 아주 큰 호사였을 것이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벽사(㙐寺)'라는 시는 서울에서 배를 타고 신륵사 앞까지 올라가 절 풍경 속에서 나옹스님과 목은의 자취를 그리고 박은(朴誾)의 시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엮어진 20행의 칠언고시다. 제목 '벽사'는 신륵사의 다른 이름인데, 벽돌로 쌓은 탑이 있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다. 시의 후반 10행을 본다.

사문노회기소슬(寺門老檜氣蕭瑟)
동대쌍탑고줄올(東臺雙塔高崒Ø)
나옹비판목옹필(懶翁碑版牧翁筆)
후내읍취시갱절(後來 S翠詩更絕)
청풍은행자고금(靑楓銀杏自古今)
괴조주명도어출(怪鳥晝鳴跳魚出)
향내일흥여목전(向來逸興如目前)
부앙백년심처연(俯仰百年心悽然)
부수회겁문호승(不須灰劫問胡僧)
차향단구방신선(且向丹丘訪神仙)

절 문 앞의 노송은 쓸쓸한 느낌이요
동쪽 대 위 쌍 탑은 드높이 솟았구나.
나옹 비석 새긴 글은 목옹의 솜씨이고
후대에 쓴 읍취헌 시 또한 절창이라.
청풍이며 은행나무 예나 지금 그대론데
이름 모를 새가 울고 물고기 뛰어노네.
이전 사람 느낀 흥취 지금과 마찬가지.
인생 백년 돌아볼 제 마음 절로 처량하네.
영원한 세월 이치 승에게 묻기보다
우선 단구 향해 가서 신선을 찾아볼까.

김창협은 시의 말미에 '청풍(靑楓), 은행(銀杏), 괴조(怪鳥), 도어(跳魚)는 모두 읍취헌의 시에 있는 말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신륵사의 풍경 속에서 옛 자취와 시를 떠올리지만, 현실에서 자신이 느끼는 무상감도 크게 드러낸다. 그래서 '스님에게 영원한 세월 이치'를 묻느니 '단구를 향해 가서 신선을 찾아볼까'라는 독백으로 시를 마무리 했다. 불교가 말하는 적멸의 경지 보다는 그윽한 풍경 속 신선이 되는 길을 선망한다는 뜻이다.

신륵동대취백삼(神勒東臺翠柏森)
예성귀도제지림(藥城歸棹滯㙐林)
나옹탑줄풍령어(懶翁塔崒風鈴語)
목로비황석발침(牧老碑荒石髮侵)
적석청운부일색(赤石晴雲浮日色)
여강원수입춘음(驪江遠樹入春陰)
방인막문지회의(傍人莫問遲徊意)
무한연파협차심(無限煙波ㅐ此心)
불시애운연(不是愛雲煙)

신륵사 동대에 푸르른 잣나무 숲
예성으로 갈 배가 이 숲에 체류했네.
나옹의 부도탑은 풍경이 말해주고
목로가 쓴 빗돌엔 바위 옷이 끼어있다.
적석의 개인 구름 날빛이 훤하건만
여강 멀리 있는 나무 봄을 맞아 그윽하네.
왜 더디 가느냐고 사람들아 묻지 말게
끝도 없는 연파가 이 마음에 들어서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시다. '밤에 신륵사 앞에다 배를 대고 동대에 오르다(夜泊神勒寺登東臺)'라는 제목인데〈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제3권에 실려 있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정약용은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예성[충주의 옛 이름]으로 가다가 신륵사 앞에 머문 것이다. 머물고 보니 절에는 나옹 스님의 부도와 목은 이색[牧老]이 지은 비문을 새긴 비가 있어 회상에 잠기는 것이다.

남은 길, 별 수 있다던가?

정약용은 그 회상을 음미할 뿐, 갈 길을 재촉하지 않는다. 아득한 역사 속의 사람이 남긴 흔적은 지금 강위에 아물거리는 연파와 같으니 배를 재촉해 갈 마음조차 누그러지고 마는 것이다.〈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제3권에는 신륵사를 읊은 오언율시도 한 편 있다.

독야동대탑(獨夜東臺塔)
오사입형연(烏紗立逈然)
송허풍석석(松虛風淅淅)
강정월연연(江靜月娟娟)
말로무장책(末路無長策)
부생이만년(浮生已晩年)
편주유헐박(扁舟有歇泊)
불시애운연(不是愛雲煙)

밤에 홀로 동대 탑에 올라
오사모 쓰고 멀리 보며 섰노라니
무심한 소나무에 속삭이듯 바람 불고
강이 고요하여 달빛 유난히 밝네.
남은 길 무슨 별수 있다던가
뜬 인생 이미 늘그막인 것을.
조각배를 여기다 댄 것이
구름 연기 좋아서가 아니라네.

이 시의 제목은 '밤에 신륵사 앞에다 배를 대고 동대에 오르다(夜泊神勒寺登東臺)'인데 앞의 시와는 달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흐른다. 정약용의 사상과 학문이 뿌리 대고 있는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의 '신륵사'라는 시도 신륵사 풍경 속에 녹아 있는 무상의 그림자를 들춰내는 맛이 있다.〈성호전집(星湖全集)〉제1권에 실려 있는 시를 본다.

신륵사전강수류(神勒寺前江水流)
신륵사중고객류(神勒寺中孤客留)
등영당심경미이(燈影當心耿未已)
경성교몽청이유(磬聲攪夢淸而幽)
산중우치계화절(山中又値桂花節)
령외행심풍엽추(嶺外行尋楓葉秋)
시상동대망야색(試上東臺望夜色)
만공호월운유유(漫空皓月雲悠悠)

신륵사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신륵사 안에는 외로운 길손 머문다.
등잔 그림자 마음에 닿아 잠을 못 이루고
경쇠 소리 맑고도 그윽이 꿈 흔드네.
산중에서 또 계화 피는 철을 만났고
영외에서 장차 단풍 물든 가을 찾으리.
동대에 올라가서 밤 경색(景色)을 보니
달빛은 허공에 가득하고 구름은 유유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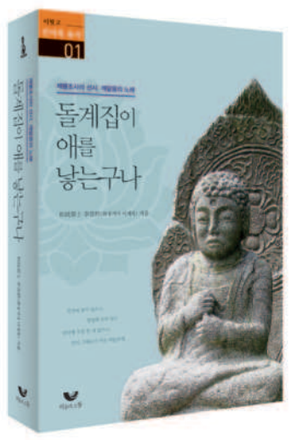
반야심경은
심(心) · 불(佛) · 중생(衆生) 모두
진공묘지(眞空妙智)에서는
본래 평등한 중도실상이고
열반피안(涅槃彼岸)임을 분명히 찬탄하고 있다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송찬우 편역 | 신국판 | 340쪽 | 14,800원

유식(唯識)을 바탕으로 마음 도리와 불교교리를 통설하다

『반야심경』은 부처님 49년 장광설법인 일대시교(一大時敎) 가운데 21년 동안 설한 광대하고 심오한 6백부『대반야경』의 핵심 요지를 빠짐없이 원만구족하게 간직하고 있는 골수이다. 본서에서는 불교의 근본교의인 세간 · 출세간의 모든 인과차별상(因果差別相)과 성(性) · 상(相)이 둘이 아닌 중도실상진공(中道實相眞空)으로서의 열반을 더불어 비추고 있다. 이를 근본자체로 의지해서 일으키는 3관수행문(三觀修行門)과 현설반야(顯說般若)와 밀담반야(密談般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과 교리체계를 낱낱이 함축하고 있다. 실로 이는 교리적으로나 사상에 있어서도 위대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탄허스님으로부터 교(敎)를, 성수스님으로부터 선(禪)을 배운 동현학림 송찬우(前중앙승가대 교수) 원장의 역작.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 · 전법게 · 열반송 · 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묵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게, 제2부 고승 · 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묵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 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종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종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 · 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보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1 ~ 6/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유마경과 이상향	화공	민족사
2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곽철환	불광출판사	7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3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8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일운	담앤북스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불교에서 본 우주	강승환	운주사
5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10	내 손 안에 부처의 손이 있네	틱낫한	예담



삼수갑산행은 "은둔이자 입전수수"

경허의 얼굴

김호성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2만5천원



2012년,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 성우 선사의 열반 100주년을 맞아 관련된 논문 한 편이 〈불교평론-52호〉에 실렸다. 논문의 제목은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이다. 이 논문은 일종의 '필화' 가 됐고 논문을 실었던 〈불교평론〉은 폐간에 이른다. 다행히 〈불교평론〉은 이듬해에 복간됐다. 이처럼 '경허' 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우리 한국불교의 중요한 테마이다. 책은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김호성 교수가 바라본 '경허' 이다.

'경허' 라는 테마가 어려운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허 스님의 파격적인 무애행(無碍行)에 대한 해석 때문일 것이다. 스님의 삶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스님의 무애행은 한국불교에 있어서 '끝없는 이야기' 가 아닐까 생각된다. 논문 한 편이 학술지의 존폐를 거론하게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렇다고 할 수 있으며, 경허 스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오간다고 할 수 있겠다.

논문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이 필화가 된 이유는 논문이 "경허 스스로도 자신의 기행에 대해 당당하지 못했으며 만년에 삼수갑산으로 떠난 것도 비난과 시비를 피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라고 한 부분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불교계 내부에서 편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논문의 필자 윤창화(민족사 대표)는 "경허 선사는 훌륭했으나 다만 그분의 음주육식과 여색이 후대의 많은 선승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색을 정당화 · 타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을 뿐이다."고 했다.

윤창화의 논문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경허의 삼수갑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책 〈경허의 얼굴〉은 윤창화의 논문에서 촉발된 또 다른 '논의' 로서, 경허의 삼수갑산행의 의미를 다시 고찰해보자는 것이다.

책은 4편의 논문과 3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들 중 3편은 이미 학술 논문집을 통해서 발표되었고, 제1부 제1장에 실린 '경허의 삼수갑산은 입전수수인가 은둔인가' 는 이 책을 통해 처음 발표되는 글이다. 또한 제3부 '보충 또는 해설' 에 실은 3편의 에세이들 모두는 이 논문에 대한 보충의 의미를 지닌 것들이다. 그러므로 '경허의 삼수갑산은 입전수수인가 은둔인가' 가 이 책의 핵심이 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경허의 삼수갑산은 김지견과 민영규



경허 스님 진영

경허의 '삼수갑산행' 의미 고찰
4편의 논문과 3편의 에세이 실어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여

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입전수수인가, 아니면 윤창화가 말하는 것처럼 은둔인가? 저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각기 패러다임 1과 패러다임 2로 보고 하나하나 분석해 나간다.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시각을 패러다임 3으로 제시하는데, 은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잣거리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행으로 본다는 점에서 '입전수수' 를 부분적으로 긍정한다.

저자는 패러다임 1이 경허의 전 생애를 모두 입전수수로 보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입전수수의 길이 하강의 길이라면, 경허 스님은 그 하강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결사와 선실의 복원 등을 통해 근대 선불교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등 상승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패러다임 2에 대해서는, 경허의 삼수갑산행의 이유를 물으면서, 경허 스님의 시를 통해 내면세계를 살펴보고자 한 방법론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만을 묻고 교단사적 차원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1부 제2장의 '사효의 윤리와 출가 정신의 딜레마' 는 제자인 한암 스님이 스승 경허 스님의 삶을 정리하고 평가한 '행장' 속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허 스님의 행위를 한암 스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출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글이다.

제2부 제1장의 '정혜계사문에 나타난 수행 이념' 에서는 '정혜계사문' 을 통해 경허의 두 가지 수행 이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바른 수행론의 제시이며, 두 번째는 도솔 상생을 원하는 까닭에 대한 해명이다.

제2부 제2장의 '정혜계사 규례에 나타난 수행 이념' 에서는 정혜를 닦음과 도솔 상생의 문제와 정토왕생과 도솔 상생의 문제를 다룬다.

책 〈경허의 얼굴〉은 '경허 보기' 에 대한 일종의 정리이자 새로운 문제 제기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경허의 얼굴' 이라고 했다. "이 책은 내가 본 '경허의 얼굴' 에 대한 증언록이다. 물론 나는 내가 본 '경허의 얼굴' 만이 경허의 진짜 얼굴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경허의 얼굴' 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 저자의 변이다. 저자는 경허의 삼수갑산행이 은둔이자 동시에 중생제도를 위한 길(입전수수)이라고 보았다. 권력의 길인 도성 안에서의 불교계에서는 성스러운 존재로 추앙받던 경허 스님이 북방의 삼수갑산으로 간 것은 떠난 쪽에서 보면 은둔이지만 저쪽에서 보자면 속의 세계, 중생들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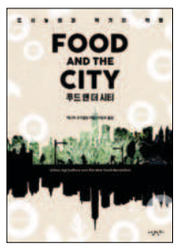
저자가 "앞으로도 이렇게 경허의 얼굴을 보고 왔다면서 나름의 견문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처럼 책은 그 동안의 경허 논의에 대한 작은 결론이며, 또 다른 결론을 기대하는 '제시' 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세계는 지금 도시농업 중

푸드앤더시티

제니퍼 코크럴킹 지음 | 이창우 옮김
삼천리 펴냄 | 2만4천원



현대 인류의 식품 체계는 포장식품과 패스트푸드, 농약과 항생제, 방부제의 도움을 얻어진 산업적 식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인류의 먹거리는 대부분이 가까운 자연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산업'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식품체계가 인류의 건강,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 안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위협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책은 현재의 식품체계가 빚어내는 사회적 불안 요소들과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농업' 에 관한 이야기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식품 체계의 대안을 찾아 가는 기나긴 여정을 담고 있다. 5년에 걸쳐 전세계 도시농업과 먹거리 혁명의 현장을 발로 뛰며 찾아내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들은 많은 이야기와 현장 사진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인류의 식생활과 도시의 모습을 얼마든지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다국적 농업회사와 대형식품 체인점에 포위된 지구 곳곳의 시민과 혁신적인 지방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런 힘겨운 '싸움' 의 결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그저 화단 가장자리나 화분에 오이나 상추를 길러 먹는 일뿐만 아니라 닭을 기르고 꿀벌을 치고 포도를 수확하여 판매용 와인을 생산하는 일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책의 전반부는 글로벌 식품 체계와 생산, 소비자, 식량 위기의 현실을 각종 통계와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보여준다. 몬산토아 카길을 비롯한 '빅 애그(농업 대기업)' ,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체인점, 이른바 녹색혁명과 유전자혁명이 20세기 내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주는 장면일 뿐이다.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깊어지고, 도시농업의 형태와 내용, 아이디어도 훨씬 다양해졌다. 1980년대 후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는 확산되고 있고,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에 밀려난 농민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도시농업이 그저 한때 반짝이는 녹색 '유행' 이 아니며, 이 운동의 열기가 더해간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3의 물결' 이 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식량 생산과 체계를 혁신하는 일이 시민운동의 차원을 넘어 이제 도시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21세기에는 국가나 국민적 의제보다는 도시 문제가 변화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것이다. 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시농업은 도시가 계획되는 방법, 도시가 작동되는 방식, 도시의 외관과 인상, 냄새까지 모두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도시혁명' 이다. 2008년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에서는 농촌 보다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2030년 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바로 지금, 도시농업이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이용하는 방법, 식량을 공급하는 방법, 식량 생산자와 지구를 대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바람에 날리어

이츠키 히로유키 지음 | 채숙향 옮김
지식여행 펴냄 | 1만3천9백원



'춘소일각가육천금(春宵一刻價六千金).'

꽃이 향기롭고 달이 으슴푸레 비치는 봄밤의 한 시각의 경치는 육천금과 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이 시구처럼 싱그러운 청춘의 아름다움을 비유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그렇게 퇴색되지 않는 청춘의 반짝임에 대한 찬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진다. 1960년대 일본 문단의 슈퍼스타였던 이츠키 히로유키의 에세이 〈바람에 날리어〉도 마찬가지다.

〈청춘의 문〉이라는 장편소설로 한국에 잘 알려진 이츠키 히로유키는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해 일본 류코큐 대학에서 불교사를 전공한 불자이다. 실제 최근 NHK에서 제작하는 '21세기 불교로의 여행' 의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불자 이츠키 히로유키의 초년 에세이 〈바람에 날리어〉는 1967년 〈주간 요미우리〉에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으로 대부분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미 40여 년이 지난 글이지만 그가 천착한 청춘은 시간을 넘을만한 힘이 있다.

이츠키 히로유키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진보라는 관념. 또 하나는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중 '청춘' 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 후자의 입장으로 접근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불쌍해."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신의 청춘 회고를 이런 대사로 매듭짓는다. 그리고 묘하게 잔학한 눈빛으로 청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이츠키는 그런 말을 부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말 옛날이 좋았다는 걸까? 나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요즘 젊은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동시에 부럽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아날로그적 감수성으로 충만한 이츠키 시대의 청춘과 물질문명의 혜택을 입은 디지털 세대의 청춘은 별반 다르지 않다. 누구나 거치는 청춘이라는 시절은 아름답고, 활기차면서 아프고 쓰라리다. 빛나는 청춘의 날이 가고 '안주' 라는 삶의 군살이 붙고 '실패' 라는 인생의 주름이 생길 때쯤이면 우리는 자신만의 잣대로 세상과 남을 재단한다.

이츠키는 말한다. 나의 젊은 날을 뒤돌아보며 현재를 비판하는 건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젊은 날은 이랬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난센스라고.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문호 이츠키가 청춘이라는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지금, 여기를 살라' 는 진리였다.

신성민 기자



茶의 다섯 색채 방편… 마음 본성 깨달아



차와 명상
원허 스님 지음
연꽃호수 펴냄
2만원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인드라망으로 얽혀져 있다. 그 속에서 즐거움, 고통, 탐욕, 성냄, 사랑, 미움 등 다양한 감정을 체험한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우선 만남과 헤어짐의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와 '남'의 관계란 무엇인지, 삶 자체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등 말이다.

최근 〈차와 명상〉을 펴낸 원허 스님(前 송광사 및 동화사 강주)은 이 책에서 "인연의 관계를 꿰뚫어 아는 법이 바로 명상이며 수행이지만,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차 한 잔 마심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명상이며, 또한 자비다선"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스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연흐름의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놓치지 않게 되며,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이 줄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명상이요 수행"이라고 덧붙인다.

즉 명상은 온전한 나를 만나 나를 알아가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고통을 없애가며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깨우며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의미다.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므로 알아차림을 통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흐름을 알게 된다면 이는 곧 모든 인간관계의 이치를 깨닫는 방법이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알아차림과 집중을 계속하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비울 것은 비우고 나눌 것은 나누게 되며 내려 놓을 것은 내려 놓게 되겠죠. 마음은 뇌의 물리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마음은 뇌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책에는 '오색차 명상'이란 부제가 붙었다. 색채를 이용해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게 오색차 명상의 핵심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또한 원허 스님은 행다선은 움직이는 차례속에서 현재 이 순간으로 깨어나 지혜를 체득해 형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명상법이라고 덧붙인다.

자비다선, 계정혜 갖춘 명상법
색채에 따라 심리변화되는 원리
차도구 없이도 상상으로 명상 가능



저자의 지도아래 오색차 명상을 하고 있다.

"오색차 명상은 공성과 빛인 마음의 본성을 차의 다섯 색채를 방편으로 해서 깨치는데에 있으며,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마음의 현상임을 깨닫는데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몸과 심리치유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이 자비다선 명상은 유행을 따르거나 뿌리 없는 명상법이 아니라 계정혜 삼학을 갖춘 명상법이며, 수행에 따라 체험의 단계와 깨달음이 있는 명상법입니다."

자비다선 차명상의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몸과 심리 치유이며 둘째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단계,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각있는 존재인 유정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단계 등이다.

특히 저자는 오색차 명상 수행을 위해서는 색채(色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색채를 단순히 표층적인 면만 보면 무심히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것은 심층 심리적인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색채는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상, 조화, 디자인, 건축 등 나아가 몸의 생리적인 현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색채에 따라 심리변화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오색차 명상이지요."

하지만 저자는 책에서 약용으로서의 차 마심과 차 수행의 차 마심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차 마심도 치유효과는 있겠지만, 지(止)와 관(觀) 수행이 병행될 때만 차 마심이 그대로 생명살림으로 된다고 조언한다. 즉 차를 마시는 행위와 맛에 대한 집중은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며 막힌 것을 소통시키므로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오색차 명상에 대한 팁도 하나 귀띔한다. 이 명상은 차 도구 없이도 상상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미지 명상이다.

또한 책 말미에는 직접 수행에 참가한 이들의 상담치유와 체험 사례들이 후기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현장감을 더해 준다.

"파랑색 찻잔과 색상을 떠올릴때는 등에 바람이 일듯 시원한 느낌이 느껴졌고 그 느낌이 어깨와 팔에 느껴지는 듯해서 가벼웠다"(환희행) "얽히고 맺힌 마음을 풀게 됐다"(금강심) "오색차를 집중해 마시고 그 기운이 온 몸에 구석구석 퍼지는 명상만으로도 심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았다"(삼매경)

한편 서울, 부산, 대구, 성주, 호주, 캐나다 등 국내외에 6개 선원을 운영하는 저자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서울 창경궁에서 경선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무비 스님의 언어로 만나는 선(禪) 지침서



무비 스님의 증도가 강의
무비 스님 강설
조계종출판사 펴냄
2만원

증도가(證道歌)는 육조 혜능스님으로부터 인가 받은 뒤 큰 깨달음의 심경에서 그 요지를 읊은 선시이다. 원래 영가 스님은 당시 유행하던 천태종에 있었으나, 스스로 조계의 길을 깨친 후 선종으로 넘어왔다. 영가 스님과 육조 혜능대사의 만남은 유명하다.

영가 스님이 증도가를 지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영가 스님이 조계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하직을 고하자, 육조스님께서 몸소 대중을 거느리고 전송하셨다고 한다. 그때, 영가 스님이 열 걸음쯤 걷다가 석장을 세 번 내려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계대사를 한 번 뵙고는 나고 죽음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라고.

영가 스님 육조로부터 인가 받아
그후 깨달음 심경서 요지 읊어
'인간불교' 관점서 무비 스님 해설

또한 영가 스님은 육조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곧 생사가 없는 것이고, 요달했다고 하는 것은 본래 더디고 빠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생사가 없는 도리, 신속함이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알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자 육조 스님은 "그렇지, 그렇지"하며 인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가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한 데 모아 지은 〈영가집〉 증도가는 도를 닦는 이들에게 큰 지침이 됐고 선종을 대표하는 글이 되었다. 오도송이란 깨달음의 희열이 주체할 수 없어 터져 나온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가스님의 증도가는 그 깊이와 무게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유려한 문체로 진수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평생의 지침서이며, 예로부터 많은 이들에게 독송되고 해설돼 왔다.

무비 스님은 우리 시대 최고의 대강백이다. 또한 일찍이 수행을 통해 불교의 정수를 체험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사상을 정립하면서 '인간불교시대', 즉 '사람이 부처다'를 주창하고 있다. 이는 원시불교, 소승불교, 비밀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 재해석되어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를 '인간불교시대'로 정의한 것이다. 무비 스님은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능력 그대로가 부처의 능력이라고 설파한다. 이는 빈부, 귀천, 남녀, 노소의 어떤 차별과 분별이 있을 수 없는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무비 스님의 증도가 강설은 바로 '인간불교시대'에 사람이 부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때문에 본 증도가 강의는 단순한 역해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

김주일 기자

불교의 오래된 사상서 첨단과학 이론과 유사한 사고 발견 정리

불교에서 본 우주

강승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불교를 통해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만일 불교와 현대천문학이 만난다면 어떨까? 우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공간의 구조와 시간의 변천과정 등을 밝혀낼 수 있을까? 불교경전에는 이와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 경전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전체를 조망하기 힘들다. 또한 현대과학은 확인 가능한 우주의 작은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깊은 선정 상태에서 초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관찰한 불교의 장엄한 우주관과 최첨단 기술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현대천문학이 만나는 회통의 지점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속살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책은 지금껏 밝혀진 첨단과학의 우주론과 불교서 말하는 우주관을 상호 비교하면서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우주 본모습을 조명하고자 시도한 독특한 저서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과학과 불교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광범위하게 참고해 광대한 우주의 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의 체계를 세워 정리했다. 이런 결과로 나온 이 책이 지닌 특징은 이렇다.

먼저, 불교와 천문학을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한꺼번에 놓고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쪽만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전체를 천문학과 불교철학의 안목을 빌려 통섭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만일 현대천문학과 불교의 통섭적 만남으로 이뤄진 우주에 대한 설명이 정말 우주의 실제 모습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는 불교나 현대과학에 고무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둘째, 불교와 현대천문학을 연계시킨 점이다. 2500년 전 붓다가 고도의 정신적 경지서 관찰한 우주가 오늘날 천문학의 우주관과 그 차원에 있어 상통한 점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이처럼 불교와 현대과학의 융합을 통해 우주를 설명하려 한 시도가 바로 이 책의 주안점이다.

다음으로, 저자 나름대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공간의 두께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해 복잡다단한 이론들을 논리화하고 체계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성주괴공이나 연화장의 세계관을 현대과학의 입장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과 더욱 부합된다면 우주에 대한 더욱 깊은 안목과 새로운 탐구 방법의 지평을 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현대과학의 우주론을 빅뱅과 빅크런치, 은하와 블랙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제 2장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화엄경〉과 〈구사론〉을 중심으로 성주괴공(成住壞空)의 4겁과 화장장엄 세계해와 세계종을, 제3장에서는 불교와 현대과학의 근본적 차이점을 관점의 차이, 즉 육안과 심안의 차이라고 본다. 제 4장은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불교와 견해와 현대과학의 견해를 각각 소개하는데, 불교의 경우 성주괴공의 공과 수행에서의 공, 공과 12연기, 무명과 진여를 설명하면서 무명을 현대과학의 빅뱅과 비교한다. 현대과학의 경우에는 대표적 우주의 시원으로 설명되는 빅뱅과 이와 대조되는 정상우주론, 인플레이션 이론과 대칭성 붕괴 이론을 소개한다. 제 5장에서는 심안으로 바라본 화장장엄세계해와 삼천대천세계의 모습을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3,000억 개의 은하, 그리고 중첩우주와 다중우주론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 6장 우주의 두께에서는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평행우주와 차원

다수 문헌 통해 우주 진상 체계 정리
불교와 과학 융합 통해 우주 설명

다짐, 초 끈 이론 등의 이론과 공즉시색(空卽是色) 색즉시공(色卽是空), 그리고 상입상즉(相入相卽) 등을 각각 소개함으로써 우주 공간의 구조가 어떠한가에 접근하고자 했다. 제 7장 우주의 물질에서는 불교의 진여서 무명이 나온다는 견해로 현대과학 이론인 중성미자, 힉스입자, 반물질 등의 문제를, 제 8장 우주의 시종에서는 종말과 증감, 우주의 끝과 방위, 시간의 문제 등을 불교와 현대과학의 입장서 서로 조명했다. 마지막 깨침에서는 우주의 시간적 변천과정인 성주괴공과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대조하면서 이를 초월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실존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불교의 깨침과 그에 들어가는 과정인 수행의 문제로 귀결시킨다.

현대과학서 제시하는 새 발견과 이론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인간의 외적 관찰의 범위를 넘어선, 이른바 마음의 문제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 과정서 현대과학자들은 동양사상, 특히 불교사상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불교의 오래된 사상서 첨단과학의 이론과 놀랍도록 유사한 사고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외적 세계인 우주와 내적인 우리 마음과 인생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반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듯 하다.

김주일 기자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강의

1 빙의환자는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퇴마 후 퇴마한 영가와 조상천도재를 해야 합니다.

2 이십여년간 연구하고 퇴마해 온 경험과 비법으로 오로지 제행스님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3 상담에서 퇴마까지 실제로 사용한 강의로 배우면 누구나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제행스님 직접강의 및 퇴마, 사주, 작명, 예약상담과 출장퇴마 합니다.
▷책 구입 : 농협 552-01-047918 비룡정사 (정가 13,000원)

● 참가비 : 200만원 (정원 5명 선착순. 통화 후 접수)

특전(1) : 수강생 전원에게 1회씩 무료출장 퇴마해 줌으로 해서 배운 되로 하면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겠습니다.

특전(2) :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퇴마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개인지도 수시모집 : 퇴마 심리상담. 사주(기문둔갑). 작명)

장 소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3-6번지 아크로타워 (주차가능)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전 화 : 011-772-4606 제행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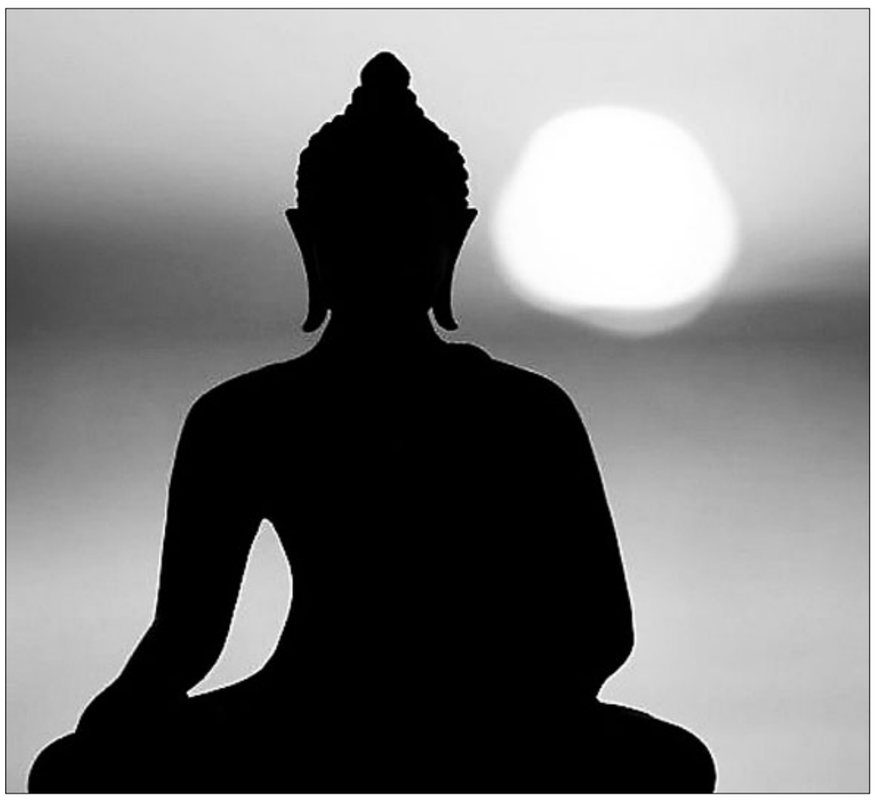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붓다의 물리학

10. 결론

‘미시세계’ 보려면 선정·스승의 지도 필수



물질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 공부하면 몸과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다양한 조건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일생의 모든 인식들과 인식되는 모든 대상들, 몸의 움직임과 말은 단지 조건 지어진 마음과 물질일 뿐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다. 마음과 물질이 있는 존재계에서 다른 방법들로 마음은 물질의 조건이 되고 물질은 마음의 조건이 된다. 대상이 되는 물질들과 감각창구로 기능할 수 있는 물질들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들에 대해 조건이 된다.

마음과 물질에 대한 지혜를 계발하기 위하여 마음과 물질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알아차림을 하게 돼야 한다. 한 번에 한 대상만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알기가 어렵다. 물질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한 번에 한 대상만이 육 문 중 하나의 창구에서 감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다. 예를 들면, 형상은 눈의 문을 통해 감지될 수 있지 몸의 문을 통해 만져서 감지할 수 없다. 눈의 의식은 시각대상을 감지하고 몸의 의식은 단단함이나 부드러움 같은 땅 성품을 감지한다. 각 문을 통해 적합한 대상들이 경험되어지며 서로 다른 창구들은 서로서로 혼동되지 않는다.

우리가 꽃을 보고 만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한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실재를 알아차린다는 것과 한 개념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수 있어야 한다. 개념 즉, 관습적 진리는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자체의 불변의 특징을 가진 궁극적 실재(빠라마타담마)가 아니다.

한 번에 하나의 실재를 알아차린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형상, 단단함 또는 소리 같은 실재들은 끊임없이 감각창구들에 충돌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이 다른 특징들을 갖고 한 번에 하나씩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을 알아차리기 쉽다. 우리는 실재를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실재에 대한 지혜가 계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른 지혜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깨닫는 자아는 없다. 지혜는 하나의 마음부수(쩨따시카)로 정신현상의 한 형태다. 그것은 깨닫고 계발할 수 있다.

바른 지혜는 통찰의 여러 가지 다른 단계들을 거쳐 계발된다. 첫 번째 단계를 잘 아는 것이 유용하다. 첫 번째 통찰지혜에 도달하게 되면 지혜로 마음의 특징과 물질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마음은 무엇을 인식하고 물질은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다른 특징들에 대해 처음에는 직접적인 지혜가 아직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뜨거움을 느낀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실재는 무엇일까? 열을 지각하는 마음이 있고 열이라는 물질이 있지만 우리는 상이한 현상들을 ‘전체로’ 집합해 ‘한 사람이 뜨거움을 느끼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마음은 물질과 구별되지 않는다. 열이 지각될 때 열이라는 물질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실재만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마음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물질이 대상이 되며, 이것은 조건에 따른다. 한 번에 하나의 실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때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아’ 또는 ‘내 몸’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점차로 지혜가 개발되면 자아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게 된다.

오문에 부딪히는 물질들은 오문들과 동시에 마음의 문을 통해서도 인식된다. 마음은 오문을 통해 인식될 수 없고 마음의 문인 심문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각각 적합한 감각의 문을 통해 지각된 지각대상들은 심문을 통해서도 인식된다. 우리는 안식이 형상을 보지만, 심문을 통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의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므로 지혜가 아직 계발되지 않았을 때는 심문과정은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심문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찰지혜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마음의 특징과 물질의 특징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며, 그 단계에서 심문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지혜가 계발되면 마침내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마음과 물질에 대한 공부는 지혜의 계발에 관해서와 지혜의 대상에 관한 오해들을 분명하게 한다. 마음과 물질에 대해 독서하고 그들을 숙고하는 것은 육문을 통해 드러나는 실재들에 대해 바른 지혜를 계발하는 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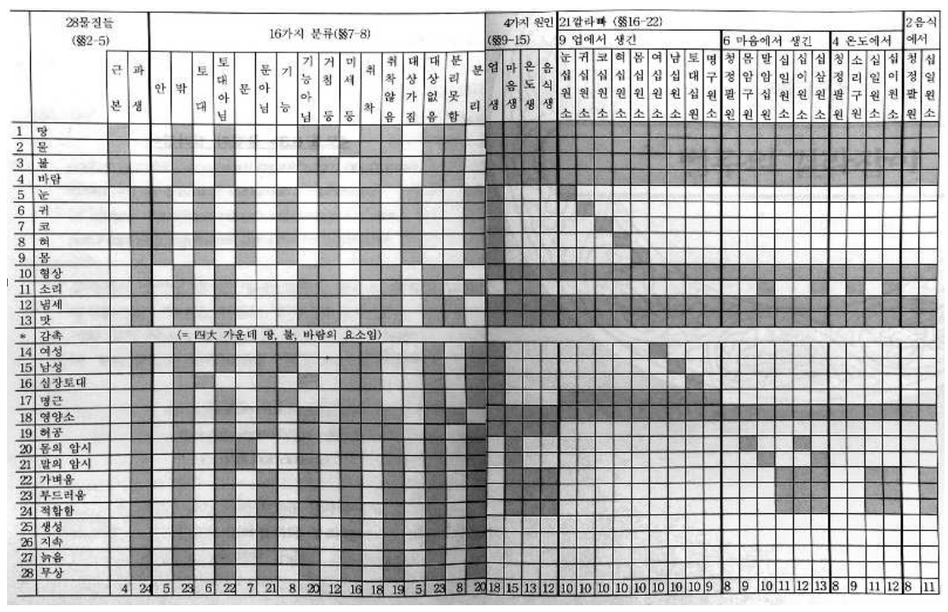
〈장로니게(테리가따)〉에 붓다 시절에 문제들로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들에게 논장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바른 지혜를 얻었으며 심지어는 깨달음도 얻었다. 사대, 감각창구들, 대상들, 요약하면 궁극적 실재를 공부하면 존재나 자아가 없다는 진리가 더욱 더 분명해진다.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던 위자야 비구니에 관한 이야기를 Canto 57에서 읽을 수 있다. 그녀가 논장을 배운 후 실재에 대한 바른 지혜를 계발해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다섯이 아닌 네 번 나는 내 토굴에서 나와 결여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방황했으나, 생각에 빠져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 때 나는 한 비구니에게 가서 물었다. 의심에 가득 찬 질문을, 그녀는 나에게 담마를 가르쳐 주었다. 사대, 생명의 인식의 발생과 대상, (그러고 나서 고귀한 삶의 요소들) 고귀한 사성제, 기능, 힘, 칠각지 지고한 선으로 이끄는 팔정도 나는 그녀의 설법을 경청했고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했다. 초경이 지났을 때 무수한 생의 과거 기억들이 일어났다. 이경이 지났을 때 나는 정화되어 천상의 시야인 천안통을 얻었다. 그 밤의 삼경이 지났을 때, 나는 무지의 어둠을 돌파하고 벗어났다. 환희와 행복한 편안한 마음이 온 몸에 가득한 채 7일간 앉아 있다가, 경련이 난 사지를 뻗치며 나는 다시 일어났다. 정말로 안개로 뒤덮인 무지의 집에서 벗어났는가?”

> 실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 그 실재에 대한 지혜 계발돼
> 바른 지혜는 여러 단계 통찰 거쳐 계발
> 마음과 물질에 대해 공부·숙고하는 것은
> 육문으로 드러나는 실재 지혜 계발 조건

> 불교 물질세계는 아비담마 논장에 설해져
> 논장 법은 누구나 체험 가능한 실재 세계
> 깊이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 계속 하면
> 바른집중 방해 요소 제거되고 선정 들어

표. 앗타살리니의 물질길라잡이



붓다의 물리학 연재를 마치며

올해 초부터 연재한 붓다의 물리학이 반년이 걸려 금회로 종지부를 찍는다. 여기서 소개한 불교적 물질세계는 최고의 경전인 아비담마 논장에 매우 자세히 설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시절에 찾아 볼 수 없는 북방경전들에 물들어 있는 한국에서는 이런 세계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았다. 십 수 년 전부터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초기불교 테라와다 남방경전도 주로 니까야(경장) 중심이어서 많은 대중들이, 심지어는 테라와다 부파 출가 수행자들도 논장을 경전으로서 도외시하고 있다.

그러나 논장은 이름 그대로 최고의 뛰어난 가르침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가르침을 베풀었던 최고의 경전이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만 경험할 수 있는 법들이 아니고 준비된 자들은 누구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궁극적 실재의 세계이다. 이 미시세계를 보려면 선정이라는 현미경이 필요하다.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사마타수행자들은 아나빠나 호흡관 등 사마타 40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 표상이라는 니미타를 얻게 된다. 처음에는 좀 흐린 색깔의 표상인 익힌 표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더욱 더 집중해 나가면 아주 깨끗한 거울같이 거친 표면이 없는 닮은 표상인 니미타를 얻게 된다. 이 니미타를 계속 집중해 나가면 근접삼매가 일어나고 마침내 본삼매를 얻게 된다. 이제 바른 집중을 방해하는 장애들이 제거되고 선정에 들 수가 있게 된다.

초선과 이선에서는 희열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거칠다 생각하여 더 집중하면 희열이 떨어지고 행복만 있는 삼선을 얻게 되고 여기서 더 집중해 나가면 마침내 행복도 사라지고 평등심만 있는 사선에 이르게 된다. 이때의 니미타는 매우 밝고 투명하게 된다.

사선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보는 위빠싸나를 하면 찬란한 붓다의 물질세계가 전개된다.

필자가 2004년 겨울 파욱센터에서 경험한 붓다의 물질세계는 너무도 명확하고 찬란한 세계였다. 모든 의심의 티끌을 제거된 깨끗한 세계를 경험했다. 그러나 만일 지도 스승 없이 혼자 그것을 보았다면 그 세계를 알 수 있었을까? 아마 모든 것이 폭발하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광경을 예견해 주는 것 등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도교 등 외도에서는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아 궁극적 실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마타 수행 없이 얕은 집중을 사용하는 위빠싸나 수행자는 초선 근접삼매이므로 니미타가 밝지 못해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볼 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마른 위빠싸나 수행자들도 닙바나를 얻을 수는 있다.

그래서 여러 독자제현들은 집중시 불빛이 보이는 경지가 되면 바른 스승을 만나 지도를 받아서 물질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앗타살리니의 물질길라잡이를 첨부하니 이해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란다. 그동안 붓다의 물리학을 사랑해 주신 독자제현 여러분이 금생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닙바나 얻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끝〉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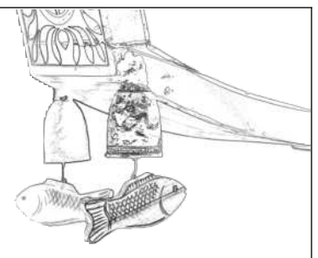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세상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 수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 치유해 드립니다

(배우실 분)
010-4411-663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585-4626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운전가능, 가족처럼 지내실 분,
애기 있어도 됨
010-4587-1011

- 부처님 공부하실 분 (남 · 녀) - 비구니스님 기도하실 분 모십니다 - 공양주 구함

051)721-0449
010-3579-64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양주)
031)529-2855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명리학(사주철학) 지도

(1)명리학+성명학
(2)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벽한 지도
(3)주1-2회, 3-4개월 완성
(4)경력34년, 병제철학원장
(5)사주,작명,개명,택일,모든상담
010-3695-1626
서울 9호선 가양역 10번 3분거리

디자인 결혼정보

초혼, 재혼
처음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결혼,사랑행복,사랑미래
결혼은 인생의 디자인입니다
010-5230-3671
02)816-3671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보국문로 195
반야도 합장

불사 준비하는 60대 비구입니다

절,신축,수리, 조립식 등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저렴하게
시설해 드립니다
010-7321-0404

인연 찾습니다

조건 최상으로 학교와
종단 관, 등록 인수하실 분
미국령 GUAM사이버대학교
미국령 종단
2007년 등록 현재 라이센스
010-8774-2040
인터넷 070-8844-2030

부전스님, 처사님 (40-50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문경)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양 도 공 고

학교 & 종단
미국령. 현지법인
조건. 양도&동업
2007년 등록
010-8774-2040

달 마 도

40㎝ × 60㎝ 한점당 5천원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정암달마도를 특가로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백중선물용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010-2953-8770
051)202-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10점이상은 사찰명과
주지스님 법명을 넣어 드립니다

기도의 대가 대주스님

-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부모, 자녀,부부,관계개선 치유명상
* 가족세우기(지도자과정, 특별세션, 개인세션)
2 하나로 깨어나기 명상
* 성장과 성공을 위한 깨달음
네이버카페 - 원네스 가족세우기(참조)
신청문의 : 혜산스님 010-4114-6600

달마일장금(경) 강의 (공양/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 4일 (1일 8시간) 총 24시간 강의
- 강사 : 유천명리학당 원장직강 011-838-1134
-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 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540-5번지 3층 유천명리학당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6시)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안 손으로 짚어 1분 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월요일 오후 2시 ~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백중 천도재
▶ 입재 : 7월 1일(음. 6. 5, 화), 조계종 대종사 성파큰스님
▶ 초재 : 7월 9일(음. 6. 13, 수), 쌍계사 방장 고산큰스님
▶ 2재 : 7월 14일(음. 6. 18, 월), 조계종 대종사 성우큰스님
▶ 3재 : 7월 19일(음. 6. 23, 토), 조계종 대종사 불심 도문큰스님
▶ 4재 : 7월 25일(음. 6. 29, 금), 조계종 대종사 현해큰스님
▶ 5재 : 7월 30일(음. 7. 4, 수), 봉선사 조실 월운큰스님
▶ 6재 : 8월 7일(음. 7. 12, 목), 조계종 대종사 암도큰스님
▶ 막재 : 8월 10일(음. 7. 15, 일),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밀허스님
※ 백중 천도재 동참하신 분께는 회주 無一 우학스님의 금강경 CD와 천도 법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 053-474-8228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연화사
- 주 지 : 지암 (김삼연)
- 주 소 : 경남 의령군 가례면 홍의로 194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대한불교조계율종 총무원장 법하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

축령산 보현사에서는 '제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무루 동참하여 축령산 천하명당터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장소 : 축령산 보현사
문의 : ☎ 031)591-9023
(기도동참자 1인당 1년 10만원)

매월 셋째 토요일 신묘장구 철야기도 후 천도재 봉행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천일기도도량 축령산 보현사
보현선원 진명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23-34

풍수계 최초 밝혀낸 혈맥의 신통발복력!

-반드시 발복흥성유지되는 혈맥생기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천공
H·P 010-4600-7399
절로암토굴 041)337-739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화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화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을 꾸짖어서 예경하게 하지 말고, 남을 위해
경전을 설명해 주되 은덕을 베풀었다 고 여기지 마라."

- 불반니원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자급자족 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 :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법당 50평, 요사채, 산신각, 다실, 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전 문
연 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폭포사찰 양도
- 단청법당 36㎡, 삼성각 29㎡
- 요사채 90㎡ 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0-3426-9393(사찰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40평, 대지총면적 45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725-590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부지: 30평
- 인법당 : 30평
- 시내중심가
- 양도가 : 3억2천
- 위치 : 강원사찰
- 부지 : 2,02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4억3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010-2772-72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81번지
- 뉴서울쇼핑 2층 총 80평
- 가액 : 5,500만원, 월 40만원

010-8552-39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437-0088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암자 적임지
- 1천평 평당 10만원

011-9323-86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대로변
- 3층 건물에 2층(3층 옥상 사용 가능)
- 지장보살님, 약사여래, 종
- 내부수리 깨끗 법당, 주방1, 상담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8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293-170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동 576-11 장전로타리 옆
- 2층, 3층 각 50평
- 부처님 전법도량, 최고 명당자리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115만원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010-8533-1601
051)635-311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가창면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2동 60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 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 위치 : 포항시 남구소재(호미곶)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3층 : 40평(해수관음기도처, 산신각)
- 2층 : 40평(법당, 청기와)
- 1층 : 40평(종무소, 주지실)
- 가액 : 2억 9천만원
- 특징: 관광명소에 위치한 해수관음도량으로 포교와 기도처로 아주 좋습니다.

대구)010-5848-0455 / 서울)010-5728-0455
동진사찰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 목조, 천불전(목조),
-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15억

010-8625-1225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 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동 576-11 장전로타리 옆
- 2층, 3층 각 50평
- 부처님 전법도량, 최고 명당자리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115만원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010-8533-1601
051)635-3110

사 찰 안 내
고추장, 된장, 간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숙성 알코올 분말을 특허 받았습니다.
제조에 참여 하실분 전화요망
- 토굴 200평, 삼존불, 황토방
- 가액 : 8500만원

010-3595-985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단월
- 대지 : 206평, 건물 1층 34평, 2층 23평 합 57평
- 황토 목조 기와지붕 뒷산 작은 계곡 있음
- 가액 : 3억 7천 5백

031)774-1081

전세 토굴 안내
- 명기 좋은 산당
- 위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 산신각,용궁,대웅전,요사채 큰방 2개, 작은방 5개, 화장실 3개, 주차 5대 가능
- 가액 : 전세 3,500만원 (양도가능)

010-9381-4857

수양관(토굴)안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약 100평, 건평: 약 40평
- 수행하기(요양)매우 적합
- 상담후 꼭 필요한신분께 양도 또는 임대 사두실분 환영합니다.
- 가액 : 약 3억 5천만원

010-5407-80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성시 금강면 사흥리 금강저수지 옆
- 건평 540평 한옥 52평, 방8
- 가액 : 6억 5천

010-4616-3100
010-2599-701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 대지 500평, 법당15평, 요사채40평, 연못, 석탑, 연등 정원수 30년생 100여수 전원주택 조경이 잘되어 있음.
- 건축을 신축할 수 있으며 주위에 영어 마을이 있고, 이웃에 유치원도 있음
- 청량리역에서 전철 운행 용문역에서 서가원까지 택시 기본요금
- 가액: 5억(절충가능)

010-2705-03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시 북구(일곡지구)
- 30년 넘은 사찰로 최고 위치
- 최상급 법당 내부(약 50평) 최상급 요사 내부(약 50평)
- 방3, 거실, 실내화장실 2, 실외 화장실3, 차고, 옥상
- 2층건물 대지 : 74평, 도시가스
- 가액 : 3억5천(융자 1억원 있음)

010-3621-8747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의성군 봉양면 구미리IC 2.3분 거리 탐산 온천 부근
- 임야 22,215㎡, 대지135평
- 전기 수도 2백미터앞 4차선
- 가액 : 6천5백만원
- 위치: 경북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 전 1028㎡ 계곡물 철철 평당 7만원

010-4504-7809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동해시 발한동 지리 1길 31-3호
- 품위있고 깨끗하고 아담한 토굴
- 대지 40평 내에 건축된 단독주택
- 마당과 울타리는 특수목재 제작함
- 가액 : 8천 6백만원

010-5458-29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500만 조정가능

010-3589-811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부근
- 135평, 임법당, 건물3동, 삼존불
- 신중단, 지장단, 칠성단, 영가단
- 도로에서 200미터 심야전기 보일러, 화목난로
- 가액 : 4천 5백만원

010-4146-6556

사찰(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 대지 60평, 건평 1층 30평, 2층 법당 27평
- 석불, 석등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695-4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 IC 10분 거리(김천대학 뒤편)
- 법당 45평, 삼성각 5평, 요사채 55평, 토지 2,000평
- 가액 : 8억 (사정상 급 양도, 실투자금 14억)
-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지

010-9354-7000

토굴겸 임법당 안내
- 위치 : 김천역에서 도보로 10분
- 총평수 : 56평
- 가액 : 4천 9백만원

010-9609-1919

절터로 좋은곳
-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을 낀곳
- 토성작업 한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읍
- 마당있는 독채
- 가액 : 삭월세 200만원 시설비 350만원

010-3381-3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매
- 가액 : 3억 3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인법당 27평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M 지장보살
- 가액: 1억7천5백만원

010-6808-554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삼면 면소재지 부근
- 100가옥 사는 동네 맨 뒷집(산자락)
- 면적 1,164평방미터에 법당 34평, 주차시설 및 조경 좋음 (법당까지 승용차 진입가능)
-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010-6621-940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면목역(7호선) 8분거리
- 4층건물에 3층 평수 60평
- 법당, 요사채, 주차시설, 방3, 공양간, 화장실2, 창고
- 시설비 상담후결정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8만원

010-2439-0812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주시 성근동
- 4층 중 3층, 아래시장 근처 시외터미널 10분거리
- 총평수 80평, 법당 30평, 방4, 거실, 주방 시설일체 완비
- 가액:1,000만원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863-4956
054)777-2064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10동 1627-26
-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탱화, 에어컨2, 방2, 주방, 다용도실
- 총평수 40평 법회 즉시 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사정상 저렴한 가액 (급)절충 가능

010-4415-5780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법당 : 40평, 총평수 80평
- 방 2개 , 창고 2 개, 종무실,
- 시장 옆, 최고의 시설 전망 좋은 지역임
- 시설비 유, 전화주세요
- 가액 : 보증금3,000만원/ 월165만원

핸드폰 010-6722-22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가 3층 48평
- 아파트밀집, 재래시장 인근
- 시설 : 법당, 거실, 방2, 주방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물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정가능)
- 현재 7년째 법회중
- 불사관계로 저렴하게 급 양도

010-3102-5321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명상가 · 임상심리학자)

〈2〉 이혼의 다툼과 혼란을 겪는 부부 (사례)

연민으로 감싸고 존중하면 용서가 쉬워져요

파도에 나를 맡기기

내가 처음으로 집중 명상 수행을 한 것은 이혼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였다. 당시 나는 이혼하기 직전이었고, 아들 나라얀은 네 살이었다. 불교 명상의 이익을 이미 체험한 적이 있었기에 단기간의 집중 명상 수행으로 나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기를 원했다. 부모님께 나라얀을 맡긴 후 나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명상센터를 향해 거센 눈보라를 헤치며 차를 몰았다. 쌓인 눈을 헤치며 천천히 운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다. 나와 남편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매장시킬 이혼은 원하지 않았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무정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타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라얀에게서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앗아갈 이혼을 나는 원치 않았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내내 나의 마음과 항상 연결되는 방법을 찾게 되기를 염원했다.

그 후 닷새간의 침묵 명상 중에 나는 주의가 명확해지고 심화되다가 몸이 늘어지며 늪지 같은 졸음에 빠져들거나 신체적 통증에 괴로워하거나 방황하는 마음에 휩쓸려 허둥거리는 과정을 수없이 휩쓸려 허둥거리는 과정을 수없이 경험했다. 어느 날 초저녁, 앞날에 대한 생각이 끝없이 밀려왔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절차를 맡겨야 할까? 남편과 나는 언제쯤 각자의 거처로 짐을 옮겨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이 힘든 시기에 아들 나라얀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 불안한 생각들이 하나둘 표면으로 떠오르자 나는 마음을 실제로 깊이 파헤쳐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모조리 꺼내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몸이 경험하는 그 불쾌한 느낌들과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8세기의 선승 료칸의 시가 떠올랐다. "불법(佛法)을 찾으려 하는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가게, 이리 오고 저리 가게, 파도에 자신을 맡기게."

'불법(佛法)'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세상만사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은 한, 우리는 실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폭풍우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 명상 수행의 막바지 며칠 동안 나는 내려놓고 도내려놓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기분을 돋우고 상황을 분석하려는 나의 오래 묵은 전략들이 자꾸만 방해하는 느낌이었다. 료칸의 시는 가능성을 일러주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파도에 나를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쓸 때마다 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협을, 문제를 일으킬 작정으로 구석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을 항상 감지하곤 했다.

나는 감정의 파도에 따라 흘러가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오래된 습관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가슴이 옥죄는 느낌을 잠깐 알아차리다가 곧이어 아들이 새로 들어갈 유치원과 시간 조절이 가능한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문제를 걱정하곤 했다. 그러면 귀중한 명상 시간을 '허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했다. 내 마음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삶의 거친 파도에 내가 휩쓸려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점차 알아차렸다. 파도에 나를 맡기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명상 센터에서는 매일 오후마다 교사들의 지도로 모든 수련생이 자애 명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기법을 명상에 엮어 넣었다. 전통적인 자애 명상은 먼저 나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대상을 확장해 모든 존재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나를 위해 자애 구절을 외기 시작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처음에는 피상적인 정신적 훈련처럼 느껴졌으나 곧바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내 마음이 그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염려하고 있었고, 이러한 염려 덕분에 나의 경직된 마음이 얼마간 풀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제는 두려움과 슬픔의 파도에 나 자신을 조금 더 쉽게 맡길 수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과 저리고 쑤시는 몸의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를 괴롭혀온 걱정거리가 또 나타날 때마다 그것도 역시 내 가슴을 짓누르고 옭아매는 거친 파도라는 것을 자각했다. 파도에 저항하지 않고 그 파도가 나를 덮치게 내버려둠으로써 나는 편안히 이완하기 시작했다.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와 맞서 싸우는 대신, 나는 출렁이는 파도를 모두 품어 안는 자각의 바다 속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나는 진정한 귀의처에 이르렀다. 그곳은 더 없이 크고 넓어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타고난 현존은 깨어있고 열려있고 다정한 느낌

현존은 우리가 애써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하는 색다른 상태가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존이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 체감할 때 일어나는 깨어있고 열려있고 다정한 느낌이다. 당신도 현존을 실감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느낌을 현존이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도 그러하다. 무더운 여름밤에 명료한 정신으로 침대에 누워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현존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숲속을 혼자 거니는 동안 현존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누군가의 임종이나 탄생을 목격하는 순간에 완벽한 현존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현존은 자각이며, 자각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다. 현존은 즉각적이고 포괄적이며 오감을 통해 지각된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자세히 주시한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할 것이다.

깨어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기본적인 의식, 즉 주변 소리와 신체 감각과 생각 등, 물 흐르듯 변화하는 매순간의 경험을 인식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현존의 이 특성은 자각의 '앎' 이다.



열려있음은 삶이 펼쳐있는 자각의 공간이다. 이 자각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경험에 저항하지도 판단하지도 않는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이 마구 일어날 때조차 열려있는 자각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알아차리고 우리의 정서적 삶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시시각각 날씨가 변해도 본디 푸른 하늘처럼, 드넓은 자각의 공간은 삶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해 우리를 뒤흔들어도 그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나 자각은 타고난 감성과 온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세심하게 반응하는 이 감성을 나는 다정함이라고 부른다. 다정함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에, 그것의 모든 아름다움과 슬픔에 사랑과 연민과 경외로 반응하게 한다.

이 세 가지가 현존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셋을 따로따로 떼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햇빛이 찬란한 하늘을 생각해보라. 햇빛 가득한 하늘과 햇빛을 분리할 수는 없다. 그 찬란한 공간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온기와 우리를 둘러싼 빛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빛, 공간, 온기가 하나로 엮여 전체를 이룬다.

> 진정한 평화 얻기 위해선
> 삶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
>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길 원합니다"
> 꾸준히 반복하면 경직된 마음 풀어져
> 마음 깊은 곳 "도와달라"는 외침은
> 우리를 온전하고 자유로운 본성으로 안내

존재함으로써 충만한 삶을 살려는 갈망이 우리를 이 타고난 현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현존을 뚜렷하게 감지할 때 우리는 진실을 깨닫는다. 너그러운 현존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 활짝 열려서 현존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창의성이 꽃핀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여기에, 현존 속에 이미 존재한다. 도와달라고 외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참된 귀의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타고난 현존의 자유와 치유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현존으로 돌아가기

명상 센터에서 명상을 마친 후 나는 불안하고 분노하고 긴장할 때마다 현존에 귀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난 뒤 돌아와서 처음으로 벌컥 화가 났을 때 나는 몹시 예민한 상태였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그날 저녁에 나라얀을 봐줄 수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나는 정신없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고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간신히 지킬 수 있었다. "나는 가장이야. 그 사람은 늘 이 모양이라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번에도 그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어. 이번에도 나를 실망시켰어!" 나의 마음은 이렇게 내뱉으며 분노로 식식거렸다. 하지만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는 잠깐 멈춰서 내 몸에 아직도 남아 있는 판단과 비난을 다정하게 쓰다듬고 나의 완강한 믿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렇게 고요히 앉아 있는 동안 비판하는 생각과 분노의 소용돌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분노의 저 밑에 불안한 의문이 하나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불안의 파도가 나를 휩쓸고 지나가게 내버려두자 내면의 고요한 공간이 드러났다. 내가 한숨 돌리고 쉴 수 있는 공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물론 나는 미래가 어떠할지 알지 못했다. 내가 가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었고, 이 순간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 내면의 공간에 머무는 동안 나는 남편이 받고 있을 스트레스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이사 갈 집을 구하는 문제,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문제, 그가 예전에 꿈꾸었던 것과는 다른 현실에 적응하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자 나는 더욱 너그럽고 다정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파도에 나를 맡기는 것에 훨씬 더 강하게 저항할 때도 있었다. 재정 문제나 양육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놓고 남편과 대립할 때 특히 그러했다. 파도에 나를 맡기는 것은 차후 단계였다. 그보다 먼저 연민으로 나를 감싸고 나를 보살피려는 욕구를 실제로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하자 나의 분노와 비열한 생각까지도 거의 전부 용서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빗장을 풀었고, 분노와 두려움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곤 했다. 그러고 나서 명상 센터에서 경험했듯이, 나는 일어나는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드넓은 현존을 다시 감지했다. 그렇게 현재에 존재함으로써 내 삶을 더욱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 광활한 현존 안에서 쉬면서 나의 불안하고 변덕스런 충동과 건강한 욕구를 더욱 명확하게 구별하기 시작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장할 때 나는 아주 편안했지만 삶을 완고하게 통제하려고 할 때는 편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은 내가 그를 존중하고 유연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많이 느낄수록 내게 더욱 호의적이 됐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를 통해서, 남편과 나는 사이좋은 친구로 남았고 서로를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게 됐다. 하지만 그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우리 두 사람은 영적 수행에 전념한 적이 있었으므로 별거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공손하고 성숙하게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에게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잦았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이나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고 때로는 울화를 터뜨리고 상대방을 경멸했다.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그나마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은 우리의 아들을 최우선시하자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는 말자는 약속이었다. 현존에 귀의하는 수행을 통해 나는 우리 두 사람을 용서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계속 배려할 수 있었다.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 터져 나온다. 제리의 옆에서 팜이 깨달았듯이(998호 1회 참조), 첫 번째 결혼생활이 끝날 무렵에 내가 경험했듯이, 진실한 갈망은 우리를 깨운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자유로운 본성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존재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자유로운 본성을 발전할 수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타라 브랙의 〈삶에서 깨어나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80 ~ 90평
  2층 공양간, 3층 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2575-987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계성마을
- 평수 : 730평, 법당 : 30평
- 삼존불, 산신각(신중탱화, 나한탱화),
  칠성탱화, 연못, 정각, 두줄기 흐르는 냇가가 있음
- 주지실 : 방2칸, 공양간2칸,방3칸 화장실2칸
- 가액: 3억2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55)931-7971
010-4844-709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대구역 부근
- 한옥독채 38평, 방 2, 공양간
- 아미타 사존불
- 후불탱화(신중,산신,용왕), 소옥불 77불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0-3381-0800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갤러리 색즉시공



생명

움직임을 봅니다
나무도 움직이고
지붕위에 새들도 움직이고
빗방울도 움직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움직입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 입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中道' 에서 眞如를 만나다

Buddha in Comic & Ani

⑫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포스터

"처음 받은 꽃이 이별의 꽃이라니, 싫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 있는 소녀가 울듯이 이야기한다. 앞자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괜찮아"를 연발한다. 이내 가족은 자신들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지만 이미 길을 지나친 상황. 아버지는 호기롭게 도로 사이에 난 산길을 올랐지만, 그 끝에는 돌상과 빨간문이 있다.

잠시 은퇴를 선언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복귀작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하 센과 치히로)' 의 이야기는 치히로의 가족이 빨간 문을 지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센과 치히로' 는 믿고 볼 수 있는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아쉬지 않을 정도의 명작이다.

낯선 세계에서 부모는 아무도 없는 가게의 음식을 먹고 돼지로 변해버리고 치히로만 홀로 남게 된다. 치히로를 구해준 것은 미소년 하쿠. 하쿠는 길섶의 열매를 먹게 해 치히로에게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무대는 마녀 유바바가 운영하는 '유옥(油屋)' 이라는 온천장으로 넘어간다. 이곳 또한 희한한 곳이다. 치히로(千尋)는 '일하지 않으면 유바바가 돼지로 만들어버린다' 는 이 '유옥' 에서 유바바에게 '센(千)' 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일을 하게 된다. 치히로이자 센은 '유옥' 에서 부모님을 구하고, 이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센과 치히로' 의 공간적 주 무대는 바로 '유옥' 이라는 곳이다. '유옥' 은 말 그대로 '기름 집' 즉, 불타고 있는 집이다. 화택(火宅)은 〈법화경(法華經)〉에 쓰인 유명한 비유이다. 화택(火宅)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우비고뇌(憂悲苦惱)로 점철된 이 세상을 뜻한다. 이 세상을 태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불길은 지배욕이나 소유욕과 같은 '욕망' 혹은 '집착' 이다.

'유옥' 은 일본의 만신들이 지치고 힘든 몸을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유바바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지불한다. 노동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유옥' 은 이미 '신들이 쉬어가는 곳' 이 아닌 단순한 '영업장' 으로 비춰진다.

이곳에서 보여지는 군상들도 대부분은 물욕과 식욕을 좇는 범부들이다. 도마뱀 고기나 사금을 보며 모여드는 종업원 · 항상 돈과 보물을 세고 있는 유바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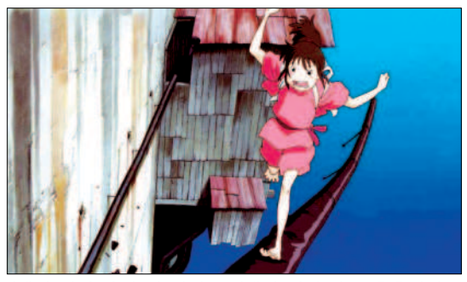
미야자키 하야오는 화택의 이미지를 가진 '유옥' 에 물의 이미지를 결합해 한번 더 비틀기를 시도한다. 그의 작품에서 불은 '파괴' 를, 물은 '정화' 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의 거신병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의 7일간' 이나 '모모노케 히메' 의 생명의 상징인 사슴신이 쉬어가는 샘은 이런 역할의 이미지를 대변해준다.

유바바가 불의 이미지라면 치히로(센)는 물의 이미지다. 치히로는 목욕탕의 때를 벗기고 약수를 길어온다. 치히로는 항상 물과 함께 한다. 오물신을 강의 신으로 정화시킨 것도 치히로였다. 본래 강의 신이었던 하쿠와의 첫 기억도 치히로가 '코하쿠 강' 에 빠진 것이다.(하쿠는 치히로가 자신을 기억해냄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다)

작품에서 터닝 포인트는 치히로가 기차를 타면서부터다. 갈 수만 있고 되돌아올 수 없는 기차. 늪의 경계를 돌아 '늪의 바닥' 역을 지나 사라지는 기차의 이름은 '중도(中道)' 이다. 그 기차를 타고 치히로는 '늪의 바닥' 으로 향한다.

'중도' 의 기차길에는 끊임없이 수평선의 경계만이 비춰진다. '센과 치히로' 의 모든 것은 경계에 걸쳐있다. 물과 불 · 치안과 피안 · 욕망과 정화 ·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는 목가적이고 동화적인 이미지의 '중도' 기차의 여정을 통해 완전히 하나가 돼 진망화합한다.





'센과 치히로' 의 한 장면들. '센과 치히로' 는 유옥이라는 화택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녀의 고군분투 모험기이다.

'유옥' 벗어나기 위한 소녀의 모험
신화와 동화적 감수성 만남 '눈길'
세파에 이기고 싶다면 자신을 알라

이렇듯 미야자키 하야오는 〈센과 치히로〉에서 생성시킨 이미지들은 이 같은 경계를 흔들면서 미묘한 자장을 형성시킨다. 이런 자장은 우리에게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를 사유케 해주는 단초로 작용한다.

용수는 〈중론〉에서 "무릇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성이라고 설한다. 그것은 임의로 시설(施設)된 것이며, 그것은 '중도' 그 자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존재는 '있고, 없고' 의 양변의 존재를 떠나 있다는 말이다.

치히로와 센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 였다. 모든 존재의 실재(實在)는 다만 연에 의한 잠깐의 이름에 불과하다. '센과 치히로' 의 세계는 모두 치히로와의 관계에서 이뤄진다. 이렇게 치히로가 만나고 경험하는 인연들이 빚어내는 하모니가 〈센과 치히로〉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도 인상적이다. 마치 선문답과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하쿠와 함께 돌아온 치히로를 맞는 것은 유바바와 12마리의 돼지들이다. 유바바는 치히로에게 "여기서 부모를 찾아봐라"라고 소리친다. 찬찬히 둘러본 치히로는 "없어요"라고 말한다. 물론 정답이었다.

월호스님은 이 부분을 자신의 책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에서 "무(無)야말로 자신의 본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이라며 "이것은 무심의 경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에서 정작 센과 치히로는 행방불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돌문을 나와 현실로 돌아간다. 치히로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이 행방불명돼 있지 않는가' 라고 스스로 자꾸 반문해 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대행 스님

마음의 보시는 세세생생을 건지고 무명을 벗겨주는 것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는 태도와 하고 다니는 모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옷은 기워 입든 꿰매어 입든 얼룩얼룩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옷 빛깔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갈스럽고 정돈이 돼 있어야죠. 신발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바보 병신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면 벌써 상대방에게 간판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나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왕지사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좀 더 시대를 좇아서 순응하면서 옳은 법을 배우면서 내 몸뚱이도 아주 정갈하게 정돈해서 다닐 줄 아는 그런 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나 모든 애고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표가 없더라도, 허허허…, 진짜 공부를 하다가 막히거나 이런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질문자1(남): 먼저 한마음 주인공 도리를 공부하게 됨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질문을 드리게 돼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사항이 많은데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태어나면서 모습과 의식들도 제각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둔한 사람 등등 제각각 소질과 재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까지 진화되어 오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인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거야 말하나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곤충에서 고등 동물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원은 자기가 마음의 계발을 하는 대로, 발전을 하는 대로 차원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모르면 차원이 낮고 알면 차원이 높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천차만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죠.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학식도 많고 직책도 높고 돈도 많은 사람이 남한테 선을 베풀고 살다가 죽는 경우하고요, 또 비록 배움도 없고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한마음 공부를 하다가 가는 경우하고 그 차이는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예. 많은 재산이 있어서 물질로써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 50%의 복덕을 받는다 한다면,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으로 공덕을 베풀었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1(남): 한마음 공부 하는 사람이 말입니까?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예, 그렇습니다. 없고 있고 이걸 떠나서 마음의 보시란 세세생생을 건지는 거고 무명을 벗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보시를 아무리 했어도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덕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1(남): 물질로 준 사람이 말입니까?

큰스님: 예.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국제 사회의 이목이 북한 핵에 집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혹시나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요즘 시중에서는 상당히 사재기도 하고 라면을 싹쓸이해서 다 사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재 북한 핵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아, 저기서도 그러더니 여기서도 또 그러네요. 허허허….

질문자1(남): 어디서 말씀입니까?

큰스님: 이북과 이남 말입니다. 하여튼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질문자1(남):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집에 가도 라면도 하나 안 사 놨고요, 부탄가스 하나도 안 사 놨습니다. 그건 뭐 스님께서 저희 집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 집 앞에 슈퍼가 있는데요, 슈퍼에 라면이고 뭐고 싹쓸이를 다 해 버렸어요.

큰스님: 그래도 쌀은 사다 놓으셨는데요?

질문자1(남): 저희 집에요? 제가 일하러 다닌다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사 놨는지….

큰스님: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죽는다 산다 이런 생각도 나는 나질 않고, 너무 바보가 돼서 그런지 그런 것도 생각 안 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했다면 콧방귀가 풍 나와요. 하하하….

질문자1(남): 저도 그런 생각인데 통일 문제에 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큰스님: 통일 문제가 뭐 따로 있소? 콧방귀가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이런 게 뭣이 그렇게 무서우냐 이거예요. 그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 전쟁은 나지 않아요. 한 번이나 속았지 두 번은 속을 수가 없잖아요!

질문자1(남): 그럼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좋겠습니까?

큰스님: 허이구, 참!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요.

질문자1(남): 저는 괜찮은데 라면 많이 사 놓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큰스님: 하하하! 나는 전쟁이 안 난다고 하지도 않았고 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콧방귀 탕 뀌면 탕 뀌는 대로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아니 사람의 마음 밖에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둘이 아니요, 우주하고도 둘이 아니요, 세상하고도 둘이 아닌데 그 핵을 만약에 그렇게 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주물러서 만든 거지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소 폭탄이나 무슨 어떠한 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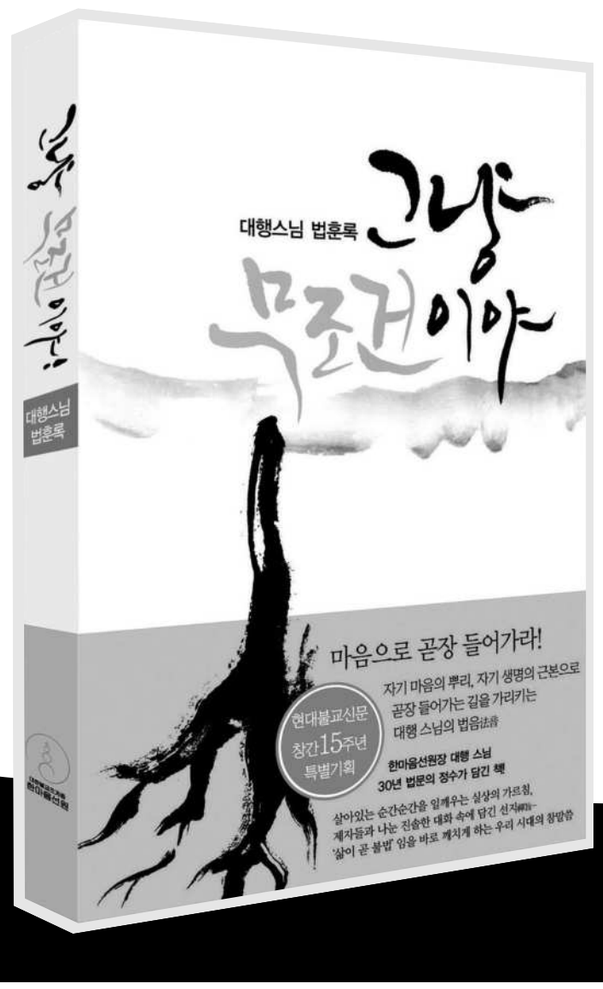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나는 될 수 있으면 세계가 좀 의합해서 지내게 하기 위해서 수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질문자2(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진짜로 믿을 수 있어야

☞ 29면에서 계속

학교 3학년들을 과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는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마음으로 잘 타일러 주고 싶어도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한 번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그렇게 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혼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서 스님께 여쭙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큰스님: 강단에 설 때는 반드시 '주인공! 네가 저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줘야 하잖아.' 하고서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움죽거려요. 그렇게 믿어야 해요. 당신 껍데기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질문자2(여):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집에 오면서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맡기는데도 행동을 바로 해야 될 때는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 그럼 스님네들한테 물어서 잘 배우도록 해요.

질문자3(여):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 큰아들 혼사 때에도 스님께 여쭤 보고 주인공한테 맡겨서 자부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있거든요. 근데 사오 년씩 사귀다가 우연히 요새 두 남매가 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오래 끄는 것도 주인공, 되는 것도 주인공, 안되는 것도 주인공이지.'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큰스님: '되게 이끌어 주는 것은 너밖에 없잖아!' 하고 하는 것이지요. 허허! 그것은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스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고, 또 스님들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지만, 그거는 댁에서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그럼 그 가운데 누가 그럭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게 하는 건 주인공밖에 없잖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4(남): 작년부터 여기 와서 스님 설법 들으면서 마음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님 때문에 여러 번 친견도 하고 그랬는데 차도도 없고, 그냥 '네가 진짜로 있다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주인공한테 '아침에 식사 몇 숟갈 드신 것 제발 토하지 않고 그냥 그거라도 소화가 되게끔 해 달라.' 하고 '네가 진짜로 있다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 봐도 더 잘 알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들을 않아. 진짜로! 믿는다는 사람들을 모두 가만히 보면 가짜야. 가짜가 많아.

질문자4(남):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큰스님: 나한테 다녀가서도…, 한번 생각해 봐. 아들이 돼 가지고도 아마 한, 반도 잘 모를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그런데 닿지 않아. 진짜로 믿는다 하는 거는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진짜로 믿어야 그 가운데 해결을 보는 거야. 내가 꼭 살아야겠으니까 이름으로 부르는 거, 그것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이름이나 진짜로 믿고 그렇게 100% 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었어. 나는 이렇게 진짜로 하라고 이를 뿐이지 죽고 사는 거를 내가 대신 해 줄 순 없잖아.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들이 그걸 재료로 삼고 열심히 하되,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그걸 떠나야 돼. 그런데 앞서에도…, 이거는 내가 말할 게 아니지. 하여튼 자신들이 모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믿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거야, 엄마나 아버지가 말이야. 좀 뭐라도 뜨뜻하게 입고 오지 그랬어, 추운데….

질문자5(여):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둘째 자식이 콩팥이 둘 다 없어서 병원에서 피를 거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큰스님: 콩팥이 없어요?

질문자5(여): 예. 둘 다 없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피를 거르거든요.

큰스님: 콩팥을 두 개 얻다 떼어 버렸어요?

질문자5(여): 혈압 이상이 오래 돼서 녹았답니다.

큰스님: 하여튼 열심히 관해 주세요. 본인한테도 관하게 해야만 되겠지만 엄마가 열심히 관해 주세요. 저런 나무 뿌리가, 엄마의 뿌리나 자식의 뿌리나 똑같듯이 주인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아들이 편안하게 지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관해 주세요.

질문자6(남):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일체 만물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산 신도입니다. 제가 더욱더 오래 참구를 했어야 되는데 성질이 좀 급해서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큰스님: 아뇨, 상관이 없어요.

질문자6(남):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집에도 갔다 올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왜 내가 가보지 않은 집에는 못 가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중에 유마힐 거사 같은 분에게 인연이 된 고기 한 점은 즉시로 천도가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을 가지고 혼자 참구를 좀 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유마힐 거사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질문자6(남): 고기 한 점이 인연이 되어도 그 고기는 즉시로 천도가 된다고 『한마음요전』에….

큰스님: 허허허…. 여러분이 고기를 잡술 때에 내 살이 되지요?

질문자6(남): 예.

큰스님: 내 살이 되니까 벌써 사람으로 인도환생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소가 무명을 벗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살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 살은 내 살이 되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 그 생명도 내 생명이 되니 살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로 한 찰나에, 입에다 넣고 씹어서 넘기는 찰나에 벌써 그 무명은 벗겨지죠. 사람으로 화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한 찰나에 바로 무명을 벗고 화현을 하니까요.

질문자6(남): 저는 좁은 소견에, 의식이 딴 데로 떠났는데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고기 한 점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도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주관에 대해서 큰스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인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마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르침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우리 이 몸뚱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몸뚱이 안 오장 육부 속에 요만한 벼룩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벼룩에게는 얼마나 그 덩어리가 크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지금 벼룩과 같다면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나 우주 속에 들어 있는 별성들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모두가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거를 생산해 내고 또 들이고 또 생산해 내고 또 들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을 할 때 셋 넷을 생산하고, 거두어들일 때 또 싹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모두 생산이 되고 작용을 하고 살죠. 한 치도 빈틈없이 한 치도 쉬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이 크고 작다 이러는 것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전부, 마음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옹졸한 분도 있고 여러 분이 많죠. 그거를 보신다면 우주의 그 생산처도 모두가 컸다가 줄었다가, 줄었다가 생산해 내고 또 커지고 또 끌어들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그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만하다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이게 한 순간에 또 작아지고 또 여러 개가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말로 크다 작다 하겠습니까? 우주도 한두 개가 아닌데. 허허허….

질문자6(남):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예. 다 됐습니까? 그런데 진짜 공부에 대해 질문할 분들은 평상시 이렇게 모일 때 하지 이런 때는 안 하는군요. 허허허…. 하여튼, 여러분!

대중: 예!

큰스님: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인도를 해 주십시오. 관하는 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병고가 닥쳤을 때 관해야 할 일이 있고 애고가 닥쳤을 때 관해야 할 일이 있고, 관해야 할 일이 닥치는 대로 너무 다르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똑바로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번연히 '이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 마음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믿고 그렇게 해라.' 하면요, 꼭 가만히 보면 딴 짓 하고 있거든요. 허허허…. 뭐 야릇하게 딴 짓을 해요. 나중에 그게 나았다가도 좀 저거 하면 딴 짓을 해 가지고선 더 죽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하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관하는 거를 똑바로 좀 일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6월 19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콧방귀 탕 뀌면 탕 뀌는 대로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의 마음 밖에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부처님 마음과도 둘이 아니요
우주하고도, 세상하고도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흥국농산
유황오리, 다슬기엑기스 강력추천!!
함양군 HAM YANG GUN



보리밥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껍질을 유황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황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1박스) = 109,000원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파격판매 이벤트 연장"



지리산자락의 헛개즙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지하임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주)흥국농산
- 판매처: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www.7-star.net
(네이버,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자 세상보기

총리 후보, 무릇 '격'이 있어야



법응 스님
한반도평화통일
실천기획단 공동단장

안대희 前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으로 총리후보에서 낙마한 데 이어 지난 10일 지명된 문창극 후보자 또한 과거 발언과 칼럼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한 뉴스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각이 예정된 상당수 신임 내정자들이 과거 경력 및 논문 가로채기,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실을 넘어 파탄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번 내각 개편작업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겠노라는 명분 아래 시작되었다. 하지만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사실상 박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모든 집단의 지도자는 공히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심이 확보돼야만 권위가 서고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해서 공조직의 지도자라면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언행을 해야 하며, 행보를 조심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지난 십수년 동안 도합 6명의 총리지명자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토지 불법증여, 이중국적, 아들의 병역 문제 등으로 인사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이 도덕성과 위법성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자신은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식민사관과 숭미(崇美)주의, 근본주의적 종교관이 거론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주요 지도층 일각의 역사와 민족, 종교에 대한 굴절된 시각은 사실 한 가지로 귀결된다. 바로 제국주의로 대변되는 '힘'에의 숭배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물리적 강자(强者)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열등감을 감추고, 상대적 약자를 경멸하고 무시함으로써 반민족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종교나 의식주, 언어, 사회적 통념은 당연히 강대국의 주류사회를 쫓는다.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나머지 모두는 그저 '개조'해야 할 미개인일 따름이다.

총리 후보의 자질을 둘러싼 연이은 논란을 보면서 필자는 이들 문제투성이의 인사들이 하나 같이 최고의 학력(學歷)을 자랑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이 각종 인맥으로 하여서 공공부분의 민영화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소위 관피아를 만들어 낸다면, 관피아에 전문지식과 정책이념, 기술적 방안을 제공하는 이른바 '학피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대학, 언론, 기업체 연구소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권력층의 일그러진 이면에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족적 불행 가운데 하나는 지식과 학력이 권력의 상층부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고, 누구나 다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학력'은 신분상승의 엘리베이터이자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자산이었다. 전후(戰後), 폭풍 성장한 교육률과 맹렬히 불타올랐던 교육열은 아시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일등 공신이면서, 동시에 한국사회를 사교육 열풍과 무한경쟁, 양극화의 극치,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비정함 속으로 몰아넣은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병폐적 사회구조를 통찰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물신주의와 세속화, 대형화로 치달으며 때만 되면 입시기도의 깃발을 내걸고 적폐의 한 축이 되어 온 종교계부터 사무치게 반성하는 조류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만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는 책임총리의 탄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조계종 선거법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 제198차 임시회가 오는 6월 25일 열린다. 이번 회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법안 선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비구 · 비구니 스님을 동수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구 스님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재가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공동체 살리는 선거제도 개정 필요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승납 20년 이상의 비구, 비구니 스님 6000여명 전체가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가 입법예고되었다. 하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총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종회 종책모임들이 표면적으로야 동의하고 있다지만, 비구 스님 상당수가 여전히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비구승 위주의 종단운영 구조가 공고화되어 있는 체제에서 총무원장 선거에서만이라도 평등한 참여가 보장된다면, 다른 여타의 종단운영에도 큰 파급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종단운영구조 하에서 평등권의 확보는 그만큼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100일 순례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교계의 현실은 썩 밝지 않았다. 중앙종단의 규모가 커지고, 교구의 인사권이 정착되어 안정된 것 같지만, 실제 일선사찰과 교구본사-총무원의 관계는 행정적 결합 이상은 아니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정신적 일체감과 질서는 많이 퇴색해 각자 사찰 중심의 각자도생 움직임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입법예고된 안대로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리고, 비구니 스님이 평등한 참종권을 행사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이왕 고칠 요량이면 100년 앞을 내다본다는 마음으로 더 튼실하게 고쳐야 한다. 출가대중의 공동체성과 책임성 강화, 재가대중의 종단 운영 참여,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 강화, 무너진 미래세대와 탈종교성 심화 등 안팎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세상도 현행 직접선거-대의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의적 방식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다가올 세상의 흐름을 읽고, 현재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으로 선거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조계종단은 비구만의 종단인가?



옥복연
종교와 젠더
연구소장

현재 종단에 등록된 비구 · 비구니의 숫자만 해도 1만 2천여 명에 이르지만,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인단은 321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각 교구와 중앙종회의원 등 특정 계층 출신의 소수이다 보니, 선거 때마다 계파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나 금권선거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총무원의 입법 예고안대로 총무원장 선거가 시행된다면, 약 6천여 명의 출가자에 의해 총무원장이 선출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무원 산하 쇄신위원회에서 약 60여 회에 걸쳐 회의를 거듭했고, 비구 · 비구니의 동등한 비율과 소수이지만 재가자가 참여하는 사부대중의 선거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총무원의 입법예고안은 출가자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재가자들의 실망이 컸다. 그나마 비구 · 비구니의 동등한 선거권은 성평등한 종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위안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 입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종단의 대표인 원로회의와 교구본사주지, 그리고 중앙종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구와 비구니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감히 비구니가 비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에, 비구니에게는 비구와 같은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정, 원로회의,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계원장, 포교원장은 물론 교구본사주지도 비구만이 할 수 있도록 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조계종단의 현실이다. 출가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종단의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최대 종단이라는 조계종단은 소위 '비구만의 종단'이라는 것이다. 만약 다가오는 198회 임시회에서 이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계종단은 비구니를 차별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종단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社說

행복바라미, 보시바라밀 문화 정착 기대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6월 19 · 20일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캠페인이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공연과 축제 중심에서 희생자 추모와 국민 치유 프로그램으로 바꿔 진행됐고, 행사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올해에는 특히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공상정, 조해리 선수을 비롯해 前 국가대표 수영감독 노민상 교수와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수영 금메달리스트 정다래씨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해 팬사인회를 통해 국민적 호응도 이끌어 냈다.

'행복바라미'는 가정의 달이자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을 '불교계 모금의 달'로 이끌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사회공헌 모금 배분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행사에서는 15일간 거리모금 캠페인을 통해 1억 200여만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 209명에게 전달됐다.

세상의 변화는 작은 몸짓과 발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장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렵고 소외된 이들의 좋은 길벗이 되겠다는 것이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취지다.

이런 나눔 정신을 잘 살려 행사때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행복바라미의 고귀한 정신이 우리사회 저변에 넓게 확산돼 우리모두가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업중생이 되길 발원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길이다. 아울러 7월 5일까지 전국 16개 시 · 도 108개소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거리모금 및 나눔문화 캠페인도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이들의 동참도 당부한다.

남북 만해 다례재처럼 통일 불사도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0주기를 맞아 남북 불교도가 함께 다례재를 개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선불교도연맹이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합동다례재를 봉행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 다례재는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의 결과 성사될 수 있었다. 당시 민추본은 조불련에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봉행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후 팩스로 수차례 의견을 교환해왔다. 회담에서는 이외에도 서산대사비 보존보수사업, 묘향산 보현사 추계제향 등에 관한 내용이 오갔다.

조불련은 만해 스님의 항일정신을 높이 사며 행사 필요성에 동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학술토론회 형식이 아닌 공동추모 형식의 다례재를 제안했다. 주제, 범위 등 조율해야할 세부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항일운동 지도자인 만해 스님의 추모 다례재를 남북 불교가 하나돼 봉행하는 것은 현재 정세에서 여러 의미가 있다. 밖으로는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전범 범죄가 아닌 한일 외교 문제 정도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고노 담화 흔들기'가 이뤄지고 있고, 안으로는 극우 망언 총리 후보가 버티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민족 지도자 만해 스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풀어내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 같은 교류 사업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합동 다례재는 불교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정신과 사상, 업적과 실천을 남과 북이 함께 조명해보는 의미있는 장이 되길 바라며 남북 불교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남북교류행사가 정례화 되었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三千三

세계 최초, 3003위 大아라한 展

작품 조성 기간 10년



수행과 예술 그리고 자신의 길

적산(寂山) 스님

모든 것을 던져 몰입했던 10년의 고행 끝에 탄생한 나한 연작에는
제가 유년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온 작가로서의 꿈과, 출가 이후의 수행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불교의 세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다양한 나한들은 다원화된 시대속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들의 구제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대승적 주제의식을 삼천삼 점의 나한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인사 원각스님을 은사로 출가
E-mail : seungik320@hanmail.net

2014. 7. 16 (수) - 7. 29 (화)

오프닝 7.16(수) 오후 5:00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3, 4, 5F)

전시장 내 특설법당 (1일 3회 기도)

국태민안 · 남북통일 · 소원성취

*기도 접수 문의 : 010-6432-0086



Gallery MISUL SEGY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4 Tel. 02-2278-8388